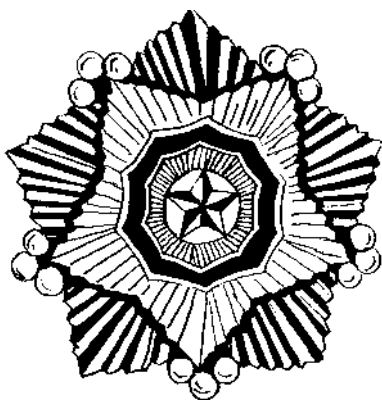




6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6호

(루계 제788호)

## 차례

그날이 있었기때문이였다(시) .....	권강일(3)
후손만대 고마운 양춘을 불러(시) .....	리진협(4)
승리의 붉은기는 희날킨다(시) .....	박상철(5)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5)
----------------------------	-----

1956년 6월 6일(시) .....	박희구(6)
전승기념관이 일떠선다 외 1편(시) .....	김석평(6)

<b>단편소설</b> <b>사랑의 샘</b> .....	최종하(8)
--------------------------------	--------

<b>주체문학의 대강</b> .....	(16)
-----------------------	------

승리의 길이어(시) .....	박정애(17)
0시 30분(시) .....	정두국(17)
분노한 봄들광에서(시) .....	김경석(18)
《백두산호랑이》의 시적발견(평론) .....	리동수(19)

크나큰 행운 .....	박철(22)
바다로 가네(가사) .....	채근수(22)
나의 시는 결전에로 달린다 .....	방금석(23)
그리웁니다 사랑입니다(가사) .....	김은희(23)
미래가 태어나는 품 .....	문동식(33)
나는 강선의 용해공이다(시초) .....	리명학(34)
한생에 대한 생각 .....	조석영(36)
월호고개 싸리꽃 .....	오정로(47)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김정은

실화문학 **가꾸어가는 마음들** ..... 리 룡 운(24)

단편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 ..... 장 기 성(37)  
소설 **단풍은 붉게 탄다** ..... 최 학 명(61)

◇ 시 ◇

무도는 영웅도 ..... 박 문 일(48)  
건설자의 선언 ..... 전 수 철(48)  
이런 아침이었다 ..... 리 성 애(49)  
증오와 복수의 강의 외 1편 ..... 리 광 규(50)  
수산땅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시초) ..... 권 오 준(51)  
통일의 축포가 오르리라 ..... 장 명 길(52)  
철산오빠에게 ..... 김 명 철(53)  
옛 화선지겨주 ..... 홍 성 두(57)  
어머니는 당원이다(시초) ..... 렬 형 미(58)  
사랑하는 제자들아 ..... 김 명 옥(73)  
존엄 ..... 양 은 성(60)

○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자 **제기한 김상오의 작품들** ..... 최 남 순(54)  
료 **소설가 김문창의 창작적개성** ..... 박 승 일(74)  
○ **한설야의 창작활동과 장편소설 《대동강》** ..... 리 순 철(77)

소 **통일의 그날에로 달리는 무쇠철마** ..... 라 경 춘(75)  
개 **장편소설 《흰고래 모비 딕》에 대하여** ..... 김 은 하(79)

표지2면: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노래)

3면: 《인생의 영광》(노래)

# 그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권 강 일

그날에는 갓 스물  
나는 아직  
생활의 먼길을 앞에 둔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때  
너무도 겸허히 너무도 소문없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고계셨기에  
미처 알수 없었다  
더욱 복된 우리 생활의 설계도를  
어느분이 내앞에 펼치고계시는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도 그날을  
못 잊어 뜻깊게 맞이하는 오늘  
내 다 모르고 자란 그 세월의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추억의 날로  
그 뜻깊은 날의 의미를  
못 견디게 내 가슴에 새겨주거니

그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쇠물을 꿰이던 나의 가슴에  
내 아버지도 주지 못한 시인의 넋이  
그리도 꿈같이 움터난것은  
하여 지금 내가 쓴 시들이  
신문에 방송에 널리 소개되고있는것은

당앞에 조국앞에  
나의 작은 힘과 지혜나마  
성실히 바칠수 있게 해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보란듯 값있게 살수 있게 해준 그날

그날은 한해두해 먹어가는 내 나이에  
나날이 커만 가는 행복을 얹어준 날

그날은 내 심장을 바쳐 모셔야 할  
운명의 수령을 알게 해준 날

그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속도전돌격대에 입대한 내 아들이  
당원이 되어 돌아온 날  
우리 가문의 피줄을  
당에서 곳곳이 이어준다는  
그 가슴젖는 생각으로 잠 못이루던 그밤도

그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오늘날 원썬들이 미쳐날뛰여도  
내가 사는 나의 집 해빛부신 창가  
명절마다 나뭇기는 공화국기발  
그밑에서 누려가는 사회주의 우리 생활

날이여 날이여  
영광넘친 향도의 닳을 올린 기슭이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무비의 담력으로 땅을 이끄시고  
하늘같은 은덕으로 내 나라를  
아름다운 인간의 화원으로 꽃피우시며  
일심단결의 크나큰 세계를 펼치신분이시여

무궁세월이 이 땅우에 흘러가도  
1964년 6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을  
우리의 복된 생활이 시작된 날중의 날로  
영원히 마음속에 안고살리라

주체87(1998).

# 후손만대 고마운 양춘을 불러

리진협

원대한 뜻을 품고  
수령님께서 걸으시고  
장군님 걸으신 길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시는 길

나라와 민족을 안으시고  
만경대일가분들 대대로 걸으시는  
애국헌신의 먼길이어라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어린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

나라잃어 갈길도 없던 이 나라에  
얼마나 고마운 인민의 뜻이더냐  
태양을 안아올리시고  
태양의 세월로 멀리 저 멀리로  
이 민족의 앞날에 끝없이 주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이어

고맙게 받아안은 은인의 은혜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진다 했어라  
하지만 이 나라 민족이 받아안은  
선생님의 그 은혜 그 은덕은 정녕  
세월이 흐를수록 고마워가니

만경대일가  
한가정의 복락만을 위해서였다면  
하늘이 낸 우리 수령님  
피어린 항일혈전사의 갈피갈피를 새기셨으랴  
전화의 불길 그리고 재더미  
한생의 자욱자욱 그토록 눈굽 뜨거운  
만단사연 아로새기셨으랴

김형직선생님의 뜻이었거니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 3천리에 양춘을 불러와야 한다는  
비장하고 뜻깊은 사연과 함께  
만경대일가분들이 걸어온 애국헌신의 길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족잡과 췌기밥의 사연도 새겨온 길이어라

끓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나라와 민족을 안고 끓던 선생님의 각오도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자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도  
장군님 걸으신 그 길우에 함께 있지 않았던가

그렇게 이어져온 애국헌신의 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안고  
선생님 건느시던 그날의 압록강  
생명을 내댈 그 살얼음길을 이어  
원썬들의 검거선풍과 포위환을 뚫으며  
반일애국항전으로 민족을 묶어세우시던  
선생님의 그날의 길을 이어 오늘에로 온 길

양춘이라도 온 한생의 열과 뉘을 깡그리 불태  
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빛과 열렬함으로  
강성국가의 찬란한 양춘을 불러온  
만경대일가의 지원의 뜻 어린 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안아온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

오, 오늘은 마침내  
우주강국 핵강국을 안아온 길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 억세게 걸고계시는  
애국헌신의 그 길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길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양춘을 부르며  
통일의 강성국가에로 가고있거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만대로 흥해갈 길이어라  
위대한 태양의 세계를 펼쳐가며  
만경대일가의 애국헌신의 뜻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은  
태양민족 이 조선 이 행운을 안아왔어라  
후손만대 번영해갈 양춘을 불러  
후손만대 고마운 양춘을 불러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날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으로 돌려 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도 표현할수 있다.》

《보천보를 칠 때 우리가 살상한 군경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일전쟁당시의 주요전투들을 소개할 때면 언제나 이 전투를 맨 못자리에 놓군한다. 그것은 내가 이 전투를 그 어느 전투보다도 특별히 중시하기때문이다.》

## 승리의 붉은기는 휘날린다

박 상 철

푸른 하늘을 떠이고  
패궁정마루에 거연히 솟아있는  
붉은기 우러러 다가서니  
조국으로 진군하는 영광의 대오  
우렁찬 발걸음소리 땅을 울리는듯

권총잡에 손을 얹으시고  
붉은기의 기수가 되시여 진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틀어진 쌍안경너머  
항시도 잊은적 없던 조국땅

앞새 푸른 보천보의 황철나무아래서  
암흑에 잠든 조선의 밤을 깨우며  
대원수님 올리신 한방의 총성이  
불길로 타올랐던 그 해불  
대공에 붉은기로 휘날리는가

오만한 일제에게 철추를 내리며  
짓밟힌 겨레의 가슴마다에  
재생의 봄빛을 안겨준 그밤의 화광  
깜깜하던 어둠을 태우며  
이 땅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었나니

조선의 녀을 안아일으키며  
자주정신의 장엄한 탄생으로 타오른 해불  
짓눌려 캄캄하던 이 땅에  
일제의 멸망을 선언했던  
빨찌산총대의 불이어

모진 광풍이 몰아쳐와도 선군장정의 길우에  
더 거세차게 퍼덕이는 붉은기  
백두의 천출명장들이 물려준 총대우뢰로  
천하를 뒤흔드는 내 조국의 진군길에  
승리의 기치로 나뭇겨갈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애의 녀을  
운명의 천대만대에  
억척불변의 진리로 새겨주는  
붉은기탑이어

아, 변함없는 붉은기의 한빛으로  
백배로 뭉치여 파라선 조선의 신념 안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신 강성국가의 령마루 향해  
천만군민을 불러 퍼덕이는 불멸의 기념비  
하늘가에 솟아 빛나고있도다



# 1956년 6월 6일

박 희 구

붉은기를 높이 든  
이 나라의 첫 답사대오를 거느리고 오신  
백두의 아들을 맞이하던  
여기 량강땅의 그 감격과 환희를 펼치며  
6월의 그날이 왔다

봄빛같은 그 미소를 지으신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그 모습  
우리러 매혹된 눈빛들과 마음  
삼가 드리는 꽃다발을  
겸허히 사양하시던 그 심오한 뜻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우리는 환영받으려 오지 않았다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배우러 왔다고  
환영의 날을 배움의 날로 안겨주시던 그 말씀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시나니

그이의 품에서 시작된  
혁명전통교양의 새 과정안이  
온 나라에 시작되던  
6월의 그날부터 근 60성장

그이 열어주신 백두의 행군길우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 숭엄히 굽이쳐  
흐르고

수령결사옹위의 길도  
백두의 혈통으로 인민을 키우는 길도  
성스럽고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따라  
천으로 만으로 늘어나  
백두의 기상 나래치는 저 끝없는 답사행렬

열네살의 영명하신 **김정일**장군  
백두의 명맥을 끊어버리려는  
반혁명분자들의 야심과 책동을 짓부시고  
백두의 행군길에 오르신 력사의 그날을  
세월은 이 땅우에 영원히 새기였거니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이 나라의 천만군민  
백두의 댕이 높뛰는  
심장에 새겨안고 시대와 세대를 이어 빛내이는  
1956년 6월 6일이여!

## 전승기념관이 일떠선다 외 1편

김 석 평

이 땅에 화창한 봄이 왔어도  
봄맛이 환희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제  
이 행성에 자주화의 봄빛이 화창할수록  
더욱더 불안과 공포에 떠는 미제가  
세계평화의 성새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향해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하늘과 바다로 몰아오는 이 시각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퇴성인가  
제4차 핵시험의 폭음인가  
침략의 검은구름 쳐물리치며  
온 세상에 울려퍼진 감격의 소식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회장을 돌아보시였다

무적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통일성전으로 온 나라를 이끄시는  
천출명장 **김정은**원수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전승기념관을 더욱 웅장하게 일떠세우신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력사깊은 기념관으로

원췌 미제야 똑똑히 보라  
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무리들아  
작전지도가 아니라 설계도면을 펼쳐들고

땅크와 장갑차가 아니라 불도젤을 몰아가며  
전승기념관건설 전투에 펼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의 모습을

유엔의 연락을 두드리며  
《제재》와 《결의》의 기염을 토하더니  
이제는 년례적인 훈련이라 꼬리를 사리는  
비겁하고 흉악한 침략의 무리들아

시대와 상대를 오관하지 말고 똑똑히 보라  
전승기념관의 드넓은 전시장  
이쪽엔 네놈들이 사랑하는 폭격기들과  
저쪽 푸른 물 출렁이는 도크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나란히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한 그날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을 띄워놓을 자리다

세계는 보게 되리라  
선군조선의 전승기념관에서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인류공동의 원수 미제의 종말의 역사를

전승기념관이 일떠선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역사가 깊은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기념비인양  
선군조선 평양의 하늘가에 높이 일떠선다

## 나는 전략로케트군부대 병사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군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만나뵈온  
영웅적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부대의 병사

나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를 빛내신  
월미도의 해안포병  
나의 아버지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해병  
선렬들의 위훈담을 들으며 자라나  
오늘은 어엿한 전략로케트부대 병사로 되었거니

감사를 드리노라  
누려야 할 행복 뒤로 미루면서  
피눈물 삼키며 마련한  
핵장검을 나에게 맡기여  
수호자의 빛나는 대오에 내세워준  
조국이며 인민이며

원썹들 아무리 멀고 깊숙이 숨어있다 해도  
모조리 찾아내어 소멸해버릴  
선군의 보검 전략로케트가 우리에게 있거니  
보라 우리의 로케트가  
발사대우에 놓인채로 있어도

별써 핵몽둥이 부러졌다고  
세계 《제재》의 꿈이 깨어졌다고  
아우성치는 미제

오늘은 불맞은 송아지처럼  
유엔의 연락을 두드리며  
또다시 《결의》와 《제재》를 목이 쉬도록  
웨치더니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까지  
태평양격랑속으로 몰아대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미제

수십년세월 우리에게  
《결의》와 《제재》 봉쇄와 고립을 일삼더니  
기어이 우리가 만든 핵무기에  
이제는 그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나서라 미제침략자들아  
때늦은 후회와 참회를 그치라  
다시는 이 땅의 맑은 공기를  
화약내로 흐리우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다시는 이 나라의 신성한 한치의 땅에도  
식인종들의 더러운 시체가 나딩굴지 못하도록  
미제의 본거지에 핵세테를 안겨  
죽음의 불가마에 미제를 처넣을 명령을 받은  
나는 조선인민군전략로케트군부대의 병사다!





# 사랑의 샘

최 종 하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야전차에서 내려서시자 규모있게 자리잡은 병영구내가 갑자기 밝아지고 청청한 가을하늘에 두둥실 떠가던 뭉게구름도 흰빛을 한껏 뿌리며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듯싶었다

땅을 찡찡 구르며 정보로 걸어나간 대대장 최정광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온몸이 그대로 편차없는 자막대기인듯 직선, 직각이 체질화된 절도있는 동작과 자세, 쇠북통에서 나는 소리처럼 여무진 음성, 보통키이지만 어깨우에 쇠모루를 얹은듯 다부져보이고 중량감이 느껴지는 단단한 체구, 광대뼈가 윤표하게 두드러진 얼굴에 거무스레하게 탄 살결...

첫눈에 믿음에 가는 그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손을 들어 답례를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곁에서 정중히 거수경례를 드리는 김철경려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다.

허우대가 크고 몸집이 우람찬 김철경은 굵직한 골격과 근육이 군복밖으로 드러나보이는듯 하여 전문적인 씨름선수같았고 유순한 눈매와 얼굴을 보면 똥년벌을 마주하고선 농사군같기도 한 호인형이다.

아담하게 꾸러진 병영건물들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최정광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으시었다.

《올해에 콩을 얼마나 생산했소?》

최정광은 싸움준비와 관련한 물음이 계실것이라

고 속구구를 하고있었던 모양인지 아니면 콩생산량이 시원치 않아서인지 당황해하며 얼른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

최정광과 김철경의 얼굴을 번갈아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어서 콩창고로 가봅시다.》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발걸음을 떼시었다.

주저주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대의 콩생산량이 시원치 않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포착하시었으나 더 묻지 않으시고 내쳐 걸으시었다.

예상했던대로 창고에는 콩이 많지 않았다.

지금껏 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콩마대와 콩광주리들이 차고넘치는 창고들만 흐뭇하게 보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불시에 가슴 한복판이 허전해움을 느끼시며 안색을 흐리시었다.

《인민군적으로도 콩농사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이 러단에 이렇게 뒤떨어진 단위가 있다는것이 믿어지질 않소. 그래 콩을 하루에 얼마씩 먹이고있소?》

최정광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백그람은 먹이고있습니다.》

《백그람이라... 너무 적소. 거의 모든 부대들에서 이백그람수준에 올라섰고 삼백그람 먹이는 단위들도 많은데...》

최정광이 무엇인가 설명할듯말듯 하다가 머리를 숙이자 김철경이 한걸음 나섰다.

《이 지대는 해발고가 높으네다 온통 석비레땅

이어서 척박하기가 이틀데 없습니다. 예로부터 콩을 심었다가는 푸른 쉼만 거두어들인다고 해서 〈청두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변인민들은 지금 이 정도 생산한것도 대단한 기적이라고들 말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 멀리 산발아래쪽으로 보이는 농장마을들을 사색깊은 안광으로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창고앞마당을 거니시였다.

(군인들에게 충분히 먹일수 없는데야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기적이겠소. 자식들을 여기에 내보낸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지대가 좋은 곳에 보낸 자식이나 험한 곳에 보낸 자식이나 할것없이 다 잘 먹고 잘 지낼것을 바라는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인데 지휘관들의 기준점이 달라져서야 되겠는가?!...)

《최고사령관동지, 어떻게 해서나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정 힘들면 다른 대대들에서 생산한 콩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까.》

철경의 목소리에 안심하시기를 바라는 심정이 짙게 어렸으나 장군님께서 가볍게 부정하시였다.

《그렇게 얻어먹으면 여기 동무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소?! 제 손으로 가꾼것을 먹어야 궁지도 생기고 일욕심도 생기는 법이요. 사람이 얻어먹어버릇하면 저도 모르게 의존심이 생기게 되고 자기 한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숙맥이 되고마오. 해방직후 우리 어머님께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터밭만은 제 손으로 직접 가꾸시였소. 밭을 가꾸시느라 치마와 신발에 묻은 흙을 내가 씻어드리려 하면 어머님께서 〈그만두어라. 흙칠을 하지 않구서야 어떻게 밭을 다루겠니. 땅은 사람의 땀을 먹은것만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시며 겉싸게 일하군 하시였소. 나도 어머님을 도와 거름도 주고 김도 매면서 함께 일하군 하였소. 정성들여 가꾼 밭에서 갖가지 푸른 남새와 실한 열매들을 수확할때면 어린 마음에도 기쁨을 금할수 없었소.》

《...》

장군님께서 기대어린 시선으로 최정광이쪽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건은 어렵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어서 통장훈을 불러보지요. 그런데 이곳의 주인인 대대장동문 자신이 없는 모양이지?》

어두운 기색으로 서있던 최정광이 주저주저 말씀드렸다.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면서... 군인생활문제를 차요시해온 자신을 반성해보던중입니다....》

《싸움준비라?!...》

장군님께서 입속말로 조용히 뇌이시며 최정광

의 자책어린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대대장동무, 병사들을 잘 먹이는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준비가 어디 있겠소. 건전한 육체와 결합된 강毅한 정신, 이것이 한쌍의 날개가 될 때 위훈의 봉우리에로 끝없이 날아오를수 있지 않을까?!》

《최고사령관동지, 꼭 해내겠습니다.》

최정광은 낮으나 힘있게 말씀드렸다.

《중소. 목표가 중요하고 결심이 중요한거요. 토지가 나쁘고 힘이 딸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 정성과 열의가 모자란다고 생각해보시오. 그러면 방도가 나설거요. 이 청두봉을 풍두봉으로 만들고 창고에 콩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오. 그러면 내 꼭 와보겠소. 어떻소, 대대장동무? 그렇게 약속하지?》

《최고사령관동지!...》

군인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앞에 너무도 감동이 커서 최정광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굳은 결심이 담겨져있었다.

《그럼 나하고 약속한셈이요.

사람을 알려거든 약속을 해보라고 했는데 콩생산량을 가지고 동무들의 군인들에 대한 복무정신과 싸움준비에 대한 태도를 가늠해보겠소.》

송구함과 자책감, 굳은 결의가 복잡하게 얽혀군 어진 김철경에게로 시선을 돌리신 장군님께서 문득 생각나신듯 물으시였다.

《참, 여기에 왔다가 싹새물이 울고갈 정도로 기막히다는 그 싹새물을 맛보고 가야지?》

《저쪽입니다.》

샘터쪽으로 장군님을 안내해드리는 김철경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려 화제를 샘물쪽으로 돌리셨지만 그이의 심중은 지금 얼마나 괴로우실것인가?)

샘터는 취사장건물앞에 자리잡고있었는데 그옆에는 얼마 굶지 않은 수양버드나무가 땅에 닿을 정도로 휘늘어진 가느다란 가지들을 하느적이며 서있었다.

네모반듯하게 미장한 샘틀안에 찰랑이는 맑디맑은 물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듯 정갈하고 청싹했고 희디흰 조약돌사이로 끝없이 모래를 일어번지며 솟구치는 모양은 어서 오라 정답게 반기는것만 같았다.

《려단장동무! 동문 대대에 내려오면 이 샘물부터 마시고서야 료해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돌아갈 땐 큰 물통에 하나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간단가?!...》

김철경이 솔뚜껑같이 류별나게 큰 손으로 뒤더 수기를 굽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샘플을 좋아하기에 제 좀...》

《어머니의 등뒤에 숨을 때 제일 마음편안한게 어린이들의 심정이라던데 집에 가면 아직 응석을 부리는게 아니요, 응? 하하하...》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수행원들이 모두 따라웃었다.

김철경도 어쭙게 웃었는데 이럴 때 보면 땅크와 같은 담대성과 팽철한 사고력, 일단 결심만 서면 담벽도 열린 문이라고 마구 내미는 군인다운 기질과 성격을 지닌 지휘관이라기보다 천진한 어린애같기도 하고 산골마을에서 흔히 마주칠수 있는 순박하고 텃밭한 농사꾼같아보이기도 하였다.

어느덧 마음이 가벼워진 김철경이 자랑조로 말씀드렸다.

《참, 희귀한 샘플입니다. 아무리 왕가물이 계속 되어도 절대로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덤혀낸 물처럼 뜨스하고 여름에는 팽창고에 보관했던 물처럼 시원합니다.》

《지심깊이의 수원에 뿌리를 박은 아주 좋은 샘플이로구만. 이렇게 바로 진짜샘이란 말이요. 가만, 이렇게 눈요기만 하겠소. 어서들 마셔보지요.》

장군님의 말씀에 최정광이 샘플우에 주머니 놓인 사기고뿌들중 하나를 집어들고 허리를 굽히었다. 물고뿌를 받아든 수행원들이 물맛이 참 좋다며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가슴이 쩡 열리도록 시원하고 여러가지 향료를 넣어 정성껏 가공한듯 감미로운 맛을 내는 샘플이었다.

《정말 자랑할만 한 샘플이로구만. 그런데 이 어린 버드나무를 보니 샘플을 사용한지 얼마 안되는 것 같소.》

장군님께서 옆에 서있는 버드나무에 다정하게 손을 가져가시었다.

《예. 한 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 병실 뒤쪽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가물철엔 마르곤 해서 물고생을 했습니다.》

《가물철이라고 해서 마르고 큰물때라고 해서 솟구친다면 그걸 샘이라고 할수 없지. 물이 림스로 고여있는 웅덩이라고 하는게 더 적중할게요.》

《...》

철경은 사시장철 솟구치는 샘물을 찾느라고 온 대대가 떨쳐나섰을 때의 이야기를 그이께 말씀드리려다가 주춤하였다. 웅당 할일을 한것을 가지고 제 자랑하는것처럼 쪽스럽게 생각되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그의 심중이 리해되신듯 화제를 돌리시었다.

《자, 이젠 여기 동무들의 훈련을 봅시다.》

그이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으로 훈련장이 있는 등성이쪽으로 향하시었다.

실탄사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훈련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는데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무지로 내려지는 새로운 정황앞에서 당황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자기 임무를 신속정확히 수행하군 하였다. 만족하게 웃으시며 그들의 훈련성파를 축하해주신 장군님께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시고 야전차으로 향하시었다.

장군님곁에 급히 따라선 김철경이 간절하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점심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장군님께서 손을 내저으시며 헉헉한 기색으로 말씀하시었다.

《우린 도중식사를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오. 이 다음에 여기 창고에 콩이 가득 쌓이면 그때에 와서 내 꼭 동무들과 식사를 하겠소. 이 높고 험한 고지에까지 찾아온 값을 톡톡히 내라고 하겠으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소. 다른것이 아닌 콩음식으로 말이요. 자, 이젠 됐지.》

장군님께서 안타까움과 죄책감으로 얼굴붉히는 철경과 정광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차에 오르시었다.

야전차는 굽이굽이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져갔다.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신 장군님께서는 사색깊은 시선으로 시창밖을 바라보시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엄혹한 겨울추위에 맞서려는듯 황들었던 잎새들을 말끔히 털어버린 갖가지 나무들이며 저 멀리로 런던히 뻗어간 산줄기들과 큰 톱날처럼 삐죽삐죽 솟은 산마루들이 그이앞에서 열병식이라도 하는듯 승엄한 자세로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불시에 치밀어오르는 석별의 정을 누를길 없으시여 방금 떠나온 청두봉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대대창고에서 보셨던 크지 않은 콩마대무지가 눈에 밟혀와 마음 허전함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래년에는 어떻게 해서나 콩사태가 쏟아져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장군님께서 서둘러 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드시고 《고산지대에 알맞는 콩종자!》라고 써넣으시었다.

푸르스름히 열린 새벽하늘가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못별들이 반짝반짝 령롱한 빛을 뿌리며 새날의 시작을 알리고있었다.

문건의 마지막장을 덮으신 장군님께서는 온몸에 우쩍 힘을 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심호흡을 하며 창문밖 저 멀리 청두봉방향으로 시선을 주시였다. 그곳에 다녀오신지도 벌써 한해가 지나갔다. 살같이 흘러간 나날이었다.

못 건디게 차오르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다시 집 무탁에 마주앉으시여 문건을 펼쳐드시자 글줄이 아니라 흙갈이를 하고 유기질거름을 내며 메마른 땅을 기름지으느라 애쓰는 청두봉의 지휘성원들과 병사들의 땀젖은 모습과 함께 넓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콩마대들이 방불히 떠오르시였다.

당장에 달려가 거칠어진 손도 잡아주고 콩무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은 간절한 심정 누를길 없으시여 송수화기를 들어 김철경을 찾으시였다.

《려단장 김철경 전화받습니다.》

김철경의 웅글은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동무가 보낸 문건을 몇번이나 보았습니다.》

청두봉동무들까지 200그램이상 콩을 먹을수 있게 되었다니 동무네 렬단은 콩생산량이 제일 많은 부대로 확고히 인정된셈이요. 보오, 내 말했지. 정성과 열의만 있으면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콩사태가 쏠아진다고 말이요.》

《장군님께서 세세히 가르쳐주시고 좋은 종자를 보내주신 덕입니다.》

《아니요. 동무들이 피타게 노력한 결과요. 그곳 동무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오. 참, 어머니는 건강하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집에 모시고사는 어머니의 안부를 꼭꼭 물어주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예,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서인지 김철경이 말꼬리를 흐리였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소?》

장군님의 근심어린 물으심에 김철경이 주저주저 말씀드렸다.

《예.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직도 발강둥이로 강가에서 뛰어놀던 때의 철부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왜 음식을 남기느냐. 만들어준 보약은 왜 끼때마다 안하느냐. 잠을 왜 깊이 못 자느냐?) 이렇게 안해도 될 지청구를 자꾸 하니, 참...》

《인민군대의 장령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취급

한다! 하하하...》

호탕하신 장군님의 웃음소리가 송수화기의 진동판을 즈렁즈렁 울리였다.

늙은 어머니앞에 공손히 꿇어앉아 책망을 듣는 김철경의 허우대 큰 모습을 그려보시느라니 웃음을 참기 어려우시였다.

《려단장동무, 아무리 크게 성장했다 해도 어머니들의 눈에 어른으로 보이는 자식은 없다지 않소?!》

은연중 그이께서는 김철경이 몹시 부러워나시였다.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을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가!...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시를 바로하시며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작품(《혁명의 어머니》)이 모셔져있는 벽체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언제나 해빛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인자하신 눈길로 정차게 바라보시는 어머님...

그이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어보았으면 하는 애절한 생각에 목이 짹 메시였다.

절절한 그리움이 가슴속을 파고들적마다 어머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심중의 대화를 나누곤 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기쁜 일도, 피로운 일도 어머님께 먼저 아뢰이시였으며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조차 어머님께 문의하곤 하시였다.

며칠밤을 꼬박 밝히시며 피로가 몰리어 정 참기 어려우실 때에도 어머님의 모습을 우러르시였다.

언제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사랑과 정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을 담아 지어부르시던 노래의 한구절이 문득 떠오르시였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

오늘따라 어머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홀어머니를 모시고사는 김철경려단장에 대한 부러움이 불러일으킨 애뜻한 그리움때문만이 아닌것 같았다.

언제나 마음쓰며 걱정하시곤 하였던 청두봉군인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그 기쁜 소식을 어머님께 제일먼저 알려드려야겠다는 간절한 생각때문인듯싶었다.

누구나 머리를 젖던 청두봉에서의 콩풍년!

이 소식을 어머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어머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는 너무도 어리신 때여서 이렇다하게 기쁨을 드릴만 한 일을 이루어놓지 못하신 아쉬움에 언제나 가슴아프시던 장군님이시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님을 우리러 심중속의 말씀을 올리시었다.

《어머님, 기뻐하십시오. 청두봉군인들도 이제는 매일 200그램이상씩의 콩을 먹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린 다심하고 사려깊으신 눈길을 새삼스럽게 감촉하시는 순간 어머님께서 금시 가까이 다가오시는듯 한 환각에 소스라쳐놀라신 장군님께서서는 저도 모르게 목매여 부르시었다.

《어머님!》

장군님의 그 절절하신 음성이 송수화기를 통해 흘러갔는지 김철경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려왔다.

《제가 철부지처럼 어머니얘기를 해서 장군님의 심중을 무겁게...》

《아니요. 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이젠 습관이 되어 그러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쩐지 어머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누만. 길지 않은 한생을 우리 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해서 깡그리 바치신 어머님이시였소. 어머님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했는데...》

하여튼 내 시간을 내서 인츰 내려가겠소. 참, 집에 계시는 어머니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자, 건강하기 바라오.》

《고맙습니다, 장군님. 부디...》

목이 짹 메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자, 오늘은 이만합니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아침 첫시간에 소집하기로 예견되어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할 문제들에 대하여 더듬어보시었다.

인민군대의 장비를 더 현대화하는 문제와 군인들의 후방생활을 개선하는 문제, 원군원민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

×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세계정치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부쉬행정부는 기어이 새로운 핵전쟁을 풀아오기 위해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공식발표하였으며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전략의 가장 중요

한 전방거점으로 선정하고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설과 《상용무기위협》설을 들고나오면서 미, 일, 남조선의 연합작전체계를 편성하고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새로운 병력을 남조선에 계속 증강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천연지대에 전진배치되었던 미군부대들을 한강건너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남을 시켜 상대를 때리게 하는 수법으로 자기에 날아올 주먹을 극력 피해보려는, 그러면서도 적수가 맥이 진했을 때 달려들어 손쉽게 《승리》를 달성해보려는 리기적인 타산에서 출발했을것이다. 그야말로 비겁한자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유치하고 비렬한 싸움방법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호자의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어깨 무거움을 느끼시며 온몸의 힘을 두주먹에 모아 억세게 틀어쥐시었다.

그러자 가슴속에 거대한 산악같은것이 우뚝 치솟으며 마음이 든든해지시였고 이 나라의 초소와 초소, 가는 곳마다에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보시던 병사들의 친근한 모습을 떠올리시었다.

최고사령관에게 가장 큰힘이 되고 군센 의지가 되어주는 그들이 왜서인지 준엄한 격전장을 함께 달려야 할 전우이기 전에 혈육의 피줄을 나눈 친자식으로 생각되시었다.

하늘의 별이라도 다 내리워 안겨주고싶도록 정이 가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못다 주신것이 있는듯 한 아쉬움으로 가슴 한구석이 허우룩해움을 느끼시며 그려보시는 모습들속에는 청두봉군인들의 검실검실하게 탄 얼굴들도 있었다.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신 장군님께서서는 급한 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서시었다.

아무리 바빠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청두봉초소에 가보고싶으시었다. 생활조건이 불리한 곳에서 사는 자식에게 더욱 마음쓰이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장군님께서서는 미끄러운 눈길로 야전차를 몰아가시었다.

구름 한점없이 파아란 12월의 하늘은 한층더 높아보이고 산과 들은 흰눈에 싸여있어 포근해보였으나 대기온도는 면도칼로 살을 에이는듯 차거웠다.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령길입구에서 기다리고있던 김철경의 얼굴은 장군님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으로 하여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김철경과 함께 대대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서는 최정광의 영정보고를 받으시기 바쁘게 콩창고로 향하시었다.

창고에는 콩마대가 천정에 닿을 정도로 빼곡이

쌓여져있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시였다.

《정말 굉장하구만. 응,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수 있을것 같소.》

그이의 음성은 청신한 대기를 찼찼 울리며 유쾌하게 울리였다.

《대대장동무, 병사들이 좋아하오?》

장군님께서서는 공연한 질문인줄 아시면서도 병사들의 행복감을 더욱 절절히 느끼고싶으시여 기쁨이 한껏 실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예. 병사들이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두들 이런 콩사태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다고 하고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다!... 대대장동무, 혹시 내가 와서 콩창고를 본 다음에 먹이겠다구 지금껏 구경만 시킨건 아니요?》

장군님께서서는 짐짓 엄하싯듯 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최정광이 필쩍 놀라며 황급히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탈곡하는 날부터 매일 먹이고있습니다.》

《허허... 내가 너무 기쁨김에 통을 좀 한거요. 전번에 어느 부대에 가보니까 술한 공수를 들여 갖가지 음식감을 다 차려놔더군. 정말 고양이뿔을 내놓고는 다 있는것 같았소. 그런데 알아보니 이 최고사령관을 기쁘게 한다면서 부랴부랴 구해들인 판상용이 아니겠소. 그래서 병사들에게 먹을 주지도 못하는 허례허식과 걸치레, 눈속임을 당장 걸어치우라고 단단히 일러주었소. 우리 지휘관들은 최고사령관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거요. 병사들의 마음속깊이에 자리잡지 못한 지휘관들을 나는 인정하고싶지 않소. 그래 콩으로 어떤 음식들을 해먹이오?》

《두부와 비지, 썩장과 콩고기 그리고 콩나물을 길러 먹입니다.》

《콩밥은 안해 먹이오?》

《...》

《콩밥도 해먹이시오. 다른 콩음식은 매일 먹으면 인차 물릴수 있지만 콩밥은 절대로 물리지 않소. 내가 집에서 쌀과 콩의 비율을 여러번 변경시키면서 밥을 지어보았는데 8 대 2로 할 때가 제일 맛있었소. 콩을 불쿠었던 물은 다 밥물로 잡아야 밥이 구수하고 영양가도 높아지오.》

《알았습니다.》 최정광이 목메인 소리로 대답올렸다.

《대대장동무, 내가 품고있는 소원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오?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에게 매일, 매끼 푸짐한 음식상을 내 손으로 직접 챙겨주고 그

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싶은것ियो. 동무들이 나를 대신해주길 바라오.》

《장군님...》

최정광의 걱정예 넘친 목소리를 들으며 김철경은 가슴속에 무엇인가 쿵- 하는 빠근한 충격을 느끼였다.

아, 얼마나 군인들의 식생활을 두고 마음쓰시였으면...

어머니의 다심하고 세심하고 인정미 흐르는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여러가지 맛좋은 음식을 차려주느라 밤을 지새우고도 피곤한 기색을 감추느라 환하게 짓던 그 웃음.

맛있게 먹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것이 더없는 행복인듯 밥상머리에 앉아 점도록 지켜보던 정겨운 그 눈빛.

자식을 위해 새파란 시절부터 칠순이 넘도록 바쳐온 정성 크고크런만 아직도 무엇인가 모자라는것 같아 언제한번 시름놓은적 없던 어머니...

그 누가 말했던가.

아름답던 어머니의 얼굴예 생긴 주름은 이 아들이 걸어온 자욱이고 탐스럽던 검은 머리에 내린 흰서리는 이 자식을 위해 마음써온 흔적이라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수 없다. 하였던만 어머니들의 그 폭진한 정성을 초월하는것이 병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지칠줄 모르는 헌신이 아니겠는가...

이때 장군님께서 창고 한켠예 나지막하게 따로 쌓여져있는 마대무지를 가리키시며 물으시였다.

《가만, 그런데 저건 왜 따로 쌓아놓았소?》

최정광이 기다리길라도 한것처럼 썩썩하게 말쑥올렸다.

《옛, 저건 절약한 량곡입니다.》

《절약한 량곡이라니?》

장군님께서서는 김철경이쪽으로 의문질은 시선을 돌리시였다.

《예. 콩이 출고되는만큼씩 량곡을 절약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적지 않은 량이 축적되었습니다. 전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자랑조로 올리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아예 끊어지고말았다.

장군님께서 안색을 흐리셨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서운함과 노여움이 실린 시선으로 김철경과 최정광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창고앞을 거니시였다.

군인생활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것으로

하여 특별히 정이 가고 사랑이 가던 이 러단장에 대한 믿음과 기대의 큰 언덕이 줄지에 허물어지는 듯 하였고 병사들과 자신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는듯 하여 가슴이 아프시었다.

외파로 쌓여져있는 랑곡마대들을 다시 보시려 했으나 시야가 뿌옇하게 흐려와 초점을 맞추어낼수가 없으시었다. 문득 김철경을 처음으로 아시게 되던 때의 일을 상기하시었다.

언제였는가? 우리 민족사에 피눈물의 해로 기록된 바로 그해였어.

…수령님의 서거 100일중앙추모행사준비로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던 장군님께서는 인민무력부에서 보내온 한통의 문건을 받아보시었다. 문건에는 콩부업을 잘하여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김철경소속부대의 긍정자료가 실려있었다.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으시었다.

(철경동무, 고맙소.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위해 주는 참된 지휘관을 또 한사람 알게 되어 정말 기쁘구만.)

장군님께서는 몇번이나 심중숙으로 뇌이시었다.

한번도 만나보신적 없는 그였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친숙해온 구면지기처럼 생각되시었다.

장군님께 있어서 병사들은 곧 총대였고 조국이었다. 그이께서는 병사들의 세계속에서만 자신께서 계심을 의식하시었다. 그래서 병사들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지휘관들을 알게 될 때가 제일 기쁘시었다.

100일중앙추모행사가 진행된 후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장군님께서는 김철경을 만나주시고 그의 경험담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었다.

김철경은 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을 드세치게 밀고나가면서도 콩생산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며 노력했던지 콩재배와 관련한 기술적문제들에 막히는것이 없었다.

《철경동무, 농업부문으로 적을 아예 옮기는것이 어떨소?》

뜻밖의 물음속에 김철경의 너부죽한 얼굴과 큰 몸집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

《허허… 진짜로 직무를 옮겨놓을가봐 걱정되는 모양이지?…》

《예. 가슴이 철렁했습시다.》

《마음놓소. 난 인민군대에 동무와 같이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지휘관들이 많기를 바라는 사람ियो. 대원들앞에 〈돌격 앞으로!〉의 청높은 구령을 내리기 전에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명령을 자기의 마음속에 먼저 내릴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휘관이거던.》

《명심하겠습니다.》

김철경이 긴장으로 굳어졌던 얼굴에 화색을 띄우며 자기자신에게 명령하듯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날에 다진 약속을 지켜 군인들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흘리는 성실한 땀을 소중히 여기시여 장령의 군사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뜻깊은 선물까지 보내주신 장군님이시었다.

모든 면에서 마음놓이는 지휘관이라고 늘쌍 대견한 마음으로 상기하군 했던 김철경이 그가 어찌면 이런 일을?!…

침묵, 침묵…

주위의 모든것이 얼어붙은듯 한 정적속에서 장군님의 무거우신 발자욱소리만이 가슴저리게 들려왔다. 침중한 사색에 잠기시여 옮기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엇인가 말씀하실듯 하시다가 그만두신 장군님께서는 샘물터로 향하시었다.

그 누구도 위안의 말씀을 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천근만근으로 느껴지는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는 김철경의 마음은 울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올해가을 례년에 없는 콩대풍을 마련한 구분대들에서 콩을 급식하는 랑만큼 랑곡을 절약하겠다는 제기가 들어왔을 때 김철경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장군님께 보고를 드릴 생각까지 하였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것은 좋은 일인줄 뻔히 알면서도 꼭 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여러모로 귀한 식량을 절약할수 있는것 하는것이 이 나라의 만자식으로서의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아직 어려운 조건인데 스스로 찾아해야 할 이런 일까지 보고드려 결론받으려한 자신의 처사가 좋은 일을 하겠으니 부디 알아달라고 아버지앞에 생색을 내는 철부지의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유익한 일이라는 확신이 생긴 이상 스스로 결심하고 내밀어야 한다. 김철경은 이 문제를 부대적인 문제로 확대시키고 하루도 빠짐없이 절약미를 차곡차곡 축적하도록 하여왔었다.

그런데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줄 알았던 이 문제가 오히려…

가슴속에 까맣게 재가 앉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 이르신 곳은 지난해 가을 오셨던 샘물터였다. 하얀 조약돌사이로 보석같은 모래알들을



일고 또 일어번지며 끝없이 솟구치는 샘물.

어떻게 되어 여기로 오지게 되었는지 자신께서도 종잡기 어려우시였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한 샘물이라도 식히고싶으시여?!...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으시였다.

삼라만상이 흰눈속에 덮이고 모든것이 평평 얼어붙은 지금절기에 이 샘물은 오히려 허연 김을 피워올리며 따스한 온기를 풍기고있지 않는가.

더운 계절에는 얼음박은 탕수처럼 시원하고 추운 계절에는 덥혀낸 물처럼 따스함을 더해주는 이 샘물의 속성이 어찌면 일생토록 자식들을 위해 진심과 진정을 깡그리 바치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꼭 같을까?...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이 이런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병사들을 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향집 친어머니를 대신하여 병사들의 생활을 돌봐주어야 한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뼈에 새기고있는 문제일텐데 어찌하여 그것이 아직도 보고서나 토론문에 오르는 미사려구의 범주, 개념이나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것일가.

그래서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생겨났는가...

정가로운 샘물을 보시노라니 문득 김정숙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르시였다.

남을 위해서만 태어나신듯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샘을 안으시고 항일전의 나날에나 해방후의 나날에나 동지들을 위해, 군인들을 위해,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길지 않은 생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어머니.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성이 아직 모자라신듯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시던 어머니.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군인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길 바라시여 뜻깊은 어머니의 탄생일에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겨주시였는데...

아,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장군님께서서는 눈곱에 축축히 젖어드는 물기를 느끼시자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장군님, 저를,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제가 장군님앞에 큰 죄를...》

김철경의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를 아득한 꿈속에서처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낮으나 준절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앞에 죄를 지은것이 아니라 병사들앞에, 그들의 어머니들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최고사령관과 동무들을 믿고 자기의 귀한 자식들을 서슴없이 떠맡긴 어머니들에게 말입니다. 생각해보시오. 식찬

이 좀 풍성해졌다고 해서 자식의 밥그릇을 뭉청 털어내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불리 먹지 못한 군인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리다못해 터지는것만 같은데 어찌면 동무들이 그럴수 있습니까?...》

《...》

끓어오르는 의분으로 격하신 그이의 말씀은 마디마다에 천만근의 무게가 실리어있었다.

《동무들은 말끝마다 최고사령관을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하군 하는데 병사들의 친어머니가 되지 못한 지휘관에게는 그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군님...》

김철경과 최정광은 너무도 큰 충격과 자책으로 떨군 머리를 들념조차 하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수백수천마디의 뉘우침을 느끼시자 목소리를 낮추시였다.

《내가 늘쌍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조국통일대전을 치르어야 할 직접적담당자는 병사들이며 우리가 제일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현대적 무장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병사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마음속 구호가 체질화되자면 지휘관들의 가슴속에서는 병사들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사랑과 헌신의 구호가 심장의 박동처럼 매 순간순간 울려나와야 합니다.》

장군님의 절절하신 음성은 아담한 샘터의 풍경과 신비한 조화를 이루며 지휘성원들의 혈맥속에 융암처럼 흘러들었다.

하늘가에 떠가던 햇살같은 흰구름도 감동이 되어 숙연히 머리를 숙이는듯싶었다.

이때 장령복을 입은 수행일군이 다가와 장군님께 조용히 보고드리였다.

《군인들의 점심식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취사장을 향하여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사들이 콩음식을 어떻게 해먹는지 직접 보고싶으시여 점심식사준비가 다되면 알려달라고 미리 부탁해두셨던것이다.

뿐만 김이 서려도는 취사장안에는 구수하고 열근하고 들큰한 음식냄새가 짙 차있었는데 배식탁우에는 푸짐한 찬그릇들이 줄지어 놓여있었다.

두부지지개, 콩나물무침, 콩고기와 썩장이 기름기를 번지르르하게 내뿜으며 구미를 바싹 돋구게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의미한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소설은 상식적인것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사람의 예상을 뒤집는 맛이 있어야 하며 새롭고 특색 있는 생활의 굴곡이 이루어져있어야 한다.

소설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는것이다.》

《작가가 수필을 출시하여서는 안된다. 수필을 아담하게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오히려 사람들 더 울릴수 있다.》

집을 느끼시며 국가마쪽으로 가시였다.

몸이 좋아 등실한 얼굴이 불깃불깃한데다가 흰 취사복이 터질듯 팽팽해보이는 한 병사가 국자를 얼른 들더니 가마속의 비지국을 정히 떠 식기에 담아올렸다.

《맨 비지만 끓였구만. 비지에는 시래기를 좀 넣어야 맛이 있소. 영양가도 더 높아지고…

병사동무, 집에 있을 때 콩음식을 얼마나 먹어보았소?》

《많이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 한끼도 번지지 않고 실컷 먹어봅시다.》

《그래, 그 소식을 고향의 어머니에게 알렸나?》

《예, 콩살이 오른 기념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써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회답편지에 <이 어머니도 네가 좋아하는 콩음식을 마음껏 먹이지 못했는데 장군님께서 실컷 먹이도록 해주셨구나. 장군님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말구 군사복무를 잘하거라.> 라고 절절한 당부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어찌 내 덕이겠나. 동무들자신이 애써 노력한 덕이지.》

그이께서는 지휘성원들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콩이 제일이라는것은 지난 기간 우리가 찾은 귀중한 경험이며 결론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콩부업을 더 잘하여 모든 병사들의 몸에 콩살이 부쩍 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생산한 콩을 전량 다 조건없이

급식시켜야 합니다. 하루 할당량이 300그램이 아니라 그 이상되어도 무방합니다. 어떻소, 려단장동무?》

《병사들이 정말 좋아할겁니다. 그리고 고향의 어머니들도… 이제 머지않아 군인들의 식생활은 결승선에 이르게 될것 같습니다.》

《아니, 결승선이라니?! 병사들을 위한 지휘관들의 마음에 출발선은 있어도 결승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생토록 자식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마라손을 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결승선이 없는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힘이 세거나 강한 기질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자기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샘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쉬임없이 솟아올라있기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마르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는 웅덩이를 안고서는 지휘관구실을 바로할수 없으며 최고사령관과 함께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

김철경과 최정광은 무엇인가 말씀드리려 했으나 불덩어리같은것이 목구멍을 꽉 채우는 바람에 도무지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귀구멍까지 멍해질 정도로 가슴벽을 들때리는 크나큰 걱정을 뼈근하게 느끼며 그이를 우려를뿐이었다.

김철경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샘줄기들이 장군님의 심중속에서 하나로 합쳐져 큰 바다로 출렁임을 거대한 중량감으로 감수하였다. 그 뜨거운 사랑의 샘이 김철경이며 최정광이들을 통하여 병사들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흘러드는것을 확신성있게 그려보았다.

# 승리의 길이어

박 정 애

천리 또 천리  
화선고지와 고지들을 지나  
쏟아지는 불비속을 뚫고온  
수령님의 야전승용차  
일순 발동을 멈춘 곳은

불타버린 나무배  
끓어져나간 부교  
터지는 포탄화광에 비친  
밤물결 거세찬 림진강기슭

한초가 천년갈으신 수령님  
복구할 때까지 기다릴수 있으랴  
뒤돌아설수 있으랴  
단호히 내리시는 결심  
철교우로 지나가자고

한낮도 아닌 깊어가는 밤  
철교우로 그 어이 가신단 말인가  
떼지어 날아드는 적비행기  
끝없는 맹폭격에 터지는 폭음소리  
철교아래로는  
검붉은 빛으로 사뭇치는 강물소리

흰 천을 높이 들어 신호하는 부판도  
조향륜 틀어진 운전사도  
심장이 녹아내리는가

온몸은 땀이 아닌  
피로 젖는듯

허나 수령님앞에는 마주오고있었다  
불타는 고지  
피흘리며 싸우는 용사들이  
폭격에 무너진 거리와 마을  
집을 잃은 아이들과 녀인들이

한치한치 그 레루우로  
수령님의 승용차만 나갔던가  
싸우는 고지와 고지  
이 나라의 후방과 후방  
하나로 이어진 이 철교우로  
생사를 판가리하며 전진하고있었다

전쟁의 운명  
조국의 운명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오직 한분만이 열어야 했던  
최고사령관의 돌격로여

승용차를 불비 쏟아지는 철교우로!  
강철의 령장 절세의 애국자  
우리 수령님  
축포성 높이 올릴 전승광장으로 나아가시던  
오, 승리의 길이었어라

## 0 시 30 분

정 두 국

온 나라 가정들이  
거리와 마을들이  
하늘의 별들조차  
잠들었던 그 시각

치르지 않으면 안될  
정의의 전쟁을 앞에 두시고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  
최후작전도를 마주하시였다

만장약된 강철포신들을 추켜들고  
명령을 기다리는 철의 군단들  
그 미더운 병사들의 모습  
작전도에서 찾으시는가

하늘과 땅 바다  
전전선을 한가슴에 안으신 그이  
그이의 안팎에서 인민은 보았다

우리의 승리 조선의 승리를

홀려 60여년세월  
분렬의 비극은 끝장나라라  
항복서에 수표할 놈도  
이 지구상에 더는 없으리라

조선을 모르는 전쟁부나비들  
미쳐 날새도 없이 불태워버리고  
통일된 3천리조국을  
한가슴에 껴안으실 그이

백두산호랑이의  
서리발시선을 던지시며  
지도의 한지점  
미제의 본거지를 짓밟고서신 그이

0시 30분  
조국통일이 설계되고  
설계된 그 최후의 작전도가

세계앞에 공개되던 그때

우리는 계산한다  
미제라는 악의 대명사  
미제의 본거지를  
력사와 지구상에서  
총대로 쓸어 썰개칠 그날을

0시 30분  
바로 그 시각부터  
우리는 미제의 남은 잔명을  
달력장의 날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

통일될 3천리 내 조국이어  
전승기록장에 새겨넣으라  
2013년 3월 29일  
지구상에서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언한  
0시 30분을!

## 분노한 봄들판에서

김 경 석

발같이 나선 프락포르도  
적진 향해 돌입하는 땅크만 같다  
보기 좋게 뒤집어지는 흙이랑처럼  
백악판도 보습날로 단숨에 뒤엎을듯

어디 움쩍만 해봐라 미제놈들이  
우리가 뿌리는 씨앗 한알한알이  
천만발의 총탄되어 숨통을 꿰뚫으리  
분조원들 일손엔 불이 이는데  
저기 방풍나래 엮어가는 분조원들 모습은  
원썬들의 목줄을 으스러지게 조이는듯

오, 존엄높은 이 나라  
목숨처럼 소중한 이 벌에  
핵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는 무리들과  
최후결산을 할 때는 왔다고  
수로의 물줄기도 칼날같이 번뜩이거니

우리 눈앞에 보여온다  
무적강군의 불소나기에 날아나는  
침략자들의 본거지들과 군사기지들

재가루로 흩날리는 비행기와 함선들

김매기명수 풀베기명수  
우리도 숨쉴 보여줄테다  
이 땅에서 제국주의무리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벌초해버릴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령도따라  
절대로 놓칠수 없는 이 기회에  
조국통일대전을 승리로 맺을  
가슴벅찬 환희에 우리 벌써 살거니  
분노와 함께 증오와 함께  
천백배의 승리의 신심 차넘치는 지금이다

원썬무리 깨끗이 쓸어버린 땅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하제일강국을  
쌀로써 영원히 빛내갈 우리  
농민의 본분을 다해가는 싸움이  
그렇다 바로 어제를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거다

## 《백두산호랑이》의 시적발견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다시 펼치고—

리 동 수

혁명시인 조기천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수령형상문학창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데 적극 이바지한 한사람으로서 혁명적인 현대조선시가의 창창한 앞날을 선도한 기수로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추억깊이 남아있다.

서사시 《백두산》이 세계적인 명작으로 완성되어 오늘까지도 항구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뿌릴수 있는것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수령형상작품으로서 세계적인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조기천이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기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지 못하고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훌륭한 명작으로 완성할수 없었을것입니다.》

혁명시인 조기천은 일찌기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승천입지의 전범으로 놈들의 아성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아오신 빨찌산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의 거룩한 위인상에 매혹되어있었으며 그때부터 심장속깊이 간직해온 심중의 열망을 해방된 조국땅에서 만천하에 소리높이 구가하려는 욕망으로 가슴불태우고있었다.

이런 열정의 의욕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순간 강렬한 창작적충격을 불러일으켜 마침내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훌륭한 걸작으로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게 하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훌륭한 명작으로 완성하는데서 시인이 이룩한 특출한 창작적기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의 종자를 독창적으로 찾아낸데 있다.

시인은 작품을 구상하면서 먼저 무엇을 작품의 핵으로 하여 시상을 펼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모색하였다. 성공의 비결은 형상의 날개를 펼쳐

줄 작품의 종자를 독창적으로 잡아쥐는데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시인의 머리속에는 상상의 불꽃이 번뜩이였다.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의 모태 김속에서 찾아낸것이 바로 《백두산호랑이》였다.

바로 이것을 작품의 영원한 생명력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될 종자로 잡아쥐였다.

전설적영웅 백두의 주인공의 신비론 영상을 승엄한 정서속에 련상케 하는 특출한 종자, 예리한 시적감각과 창조적환상력이 집약되고 응축된 이 독창적인 종자의 발견이야말로 기성의 관례와 관념을 뒤집어놓은 특출한 발견이며 시인의 창작적재능과 열정과 사색의 정화로 얻어진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이였다.

《백두산호랑이》! 백두의 높고낮은 산발을 타고 휘파람속에 출몰하며 노호하는 용맹한 기상, 《따—웅—》 산골을 깨치며 산천을 뒤집어떨치는 장수의 위엄이 빨찌산의 전설적영웅 백두산장군의 위용으로 용용히 굽이쳐왔다.

이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잡아진것으로 하여 시인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시줄을 내달릴수 있었다.

쉬—위—

바위우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뻘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쳐부시련듯 톱을 들어

《따—웅—》

그리곤 휘파람속에 감추인다

바위 호을로 솟아

이끼에 바람만 스치여도

호랑이는 그 바위에 서고있는듯

내 정신 가다듬어 들노라—

다시금 휘파람소리 들릴지

산천을 뒤집어 떨치는

그 노호소리 다시금 들릴지!

천하를 거머쥐고 산천을 떨치는 백두산호랑이의 장대하고 날렵하고 위엄있는 기상이 얼마나 방불하게 안겨오는가.

이 시의 종자에는 서사시에 펼쳐지게 될 생활바탕이 체현되어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게 될 형상요소들이, 지어는 작품의 양상까지도 룹적으로 암시되고있다.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그렇기때문에 종자는 사상적으로뿐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공감되게 되어야 한다. 작가의 머리를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격동시켜 시상을 안겨줄뿐아니라 시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공감시킬 때라야 명실공히 종자다운 종자라고 말할수 있다.

《백두산호랑이》라는 이 시의 종자는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을 예상하게 할뿐아니라 깊이있는 사상과 함께 감정과 정서까지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종자는 우선 작품의 사상과 정서를 안고있는 《백두산호랑이》-백두의 주인공의 성격을 선명하게 현상시켜주고있다.

항일대전의 전장이며 성지인 백두산, 그 산악을 타고앉아 바람처럼 출몰하며 위엄을 떨치는 신비스런 호랑이의 기상, 이는 일체의 아성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전설적영웅 백두령장의 비범한 위인상 그대로이다.

이 독창적인 종자를 잡아챈것으로 하여 일제《토벌》대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치신 빨찌산청년장군의 절출한 위인상을 그렇듯 생동한 모습으로 형상해낼수 있었다.

산비탈바위우에  
청년 하나이 버쩍 올라선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흰 두루마기자락이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거센 나뉘같이 퍼덕이는데  
온몸과 팔과 다리-  
모두다 약진의 서술에 불붙고  
서리발칼날의 시선으로  
싸움터를 단번에 쭈- 가르며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부르짖었다  
...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며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장백을 쥐락펴락하는  
태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  
동서에 번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는  
축지법을 쓴다고-  
북천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풀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백두산 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벌벌 떠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백두산호랑이의 위엄에 상징된 빨찌산 김대장의 형상이야말로 시인이 심장깊이 모대기며 사색에 사색을 모아 상상속에 펼친 전설적위인, 절세의 애국자의 숭엄한 영상이다.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백두에서 한나가지 우러러 떠받드는 전설적위인, 2천만겨레의 머리우에 재생의 백광 뿌리며 3천리를 굽어떨치는 용장의 모습이 백두산호랑이의 기상에 그대로 어려있다.

《백두산호랑이》의 시적발견이야말로 인적드문 천고의 밀림, 백두산발을 헤쳐넘으며 간고한 체험의 나날을 이어온 시인의 정력과 탐구와 사색의 고뇌가 안아온 귀중한 열매가 아닐수 없다.

바로 이 종자를 잡아챈것으로 하여 백두의 주인공의 위인상이 그렇듯 생동한 모습으로 부각되게 되었으며 도란에 빠진 조선의 운명의 구원자는 누구인가라는 기본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작품의 기본선이 그어지고 구성과 인간관계, 감정정서와 함께 격동적이며 즐거운 호흡과 양상까지도 예상되게 되었다.

주체35(1946)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인 조기천을 부르시여 밤늦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전기와는 달리 작가의 허구와 과장이 필수적인것이다. 문학적인허구가 없어야 소설이나 연극 등 작품이 어떻게 구상되겠는가. 그러므로 작가들은 창작적환상을 대담하게 펼치고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학적인허구나 파장 역시 생활에 기초한 것이어야지 전혀 허황한것으로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

시인 조기천이 후에 《백두산호랑이》라는 종자를 잡아칠수 있는것은 수령님께서 이날 들려주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았기때문이었다.

이날 밤늦도록 열정에 넘치시여 빨찌산투쟁사적을 들려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감격에 목매여 우러르면서 번뜩이는 충격속에 시상을 잡아쥐며 시인은 심장으로 웨치였다.

그렇다! 서사시의 제목은 《백두산》, 이야기는 보천보전투로 되어야 한다.

그때로부터 탐구와 사색을 이어오면서 백두산에 대한 현지답사와 빨찌산투사들을 찾아 련속적인 취재와 문헌사적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마침내는 환상의 나래를 펼쳐 백두의 주인공의 위인상을 《백두산호랑이》라는 위엄있는 기상에 상징하여 무게있는 독창적인 종자로 잡아쥐게 된것이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뻘치고 남쪽하늘을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치며 노호하는 산중호랑이의 위엄있는 기상을 보라.

조선의 호랑이, 전통적인 친근감을 불러내는 용맹과 위엄의 상징, 근엄하고 침중하고 지칠줄 모르는 날렵한 기상이 백두산호랑이의 모습에 어려여있다.

전설적영웅 빨찌산 김대장의 위용을 《백두산호랑이》로 노래한것이야말로 참으로 대담하고 기발한 비교이며 발견이 깃든 뜻깊은 상징이다.

작품의 종자는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작품에 그려지게 될 성격적면모와 함께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와 그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는 작품의 사상을 규제한다.

작품의 사상은 종자의 구현과정을 통하여 밝히려는 작가의 주장이며 화폭으로 펼쳐지는 생활에 대한 평가이며 인물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결론이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밝히려는 사상은 도탄에 든 조선의 운명을 구원할 진정한 애국자는 오직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뿐이시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백두의 령장 **김일성**장군에 의하여서만 숨져가던 조선의 운명은 구원될수 있었다는것이 《백두산》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사상이며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 작가의 결론이다.

이렇게 작품의 사상은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며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이런 사상이 바로 보천보의 밤하늘을 불태우며 충천하는 불길속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웨치시는 김대장의 연설장면에 집약화되어 펼쳐지고있다.

...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짚고 웨치는 김대장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췌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이 장면은 서사시의 절정을 장식하면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의하여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조국해방의 서광은 기어이 밝아올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작품의 종자는 작품에 그려지게 될 형상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표상을 료괄적으로 그려주며 모든 형상요소는 종자를 꽃피우는데 한결같이 맞물려지면서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을 이룬다.

《백두산호랑이》의 시적발견은 작품에 펼쳐지게 될 생활무대와 정황, 양상까지도 예상시켜 준다.

백두의 절정과 천지의 푸른 물줄기, 눈보라 우짖는 무변광대한 벌판과 천고의 밀림, 눈우에 찍힌 발자욱, 나뭇기는 붉은기와 원췌치러 나아가는 멸적의 빨찌산대오, 총소리, 작탄소리, 기관총소리, 놈들의 아우성소리...

이렇듯 작품의 종자는 격동으로 들끓는 격렬한 정황과 칼바람 몰아치는 백설광야를 헤쳐가는 빨찌산대오의 활동무대를 펼쳐보여주면서 기세차고 맹렬하고 즐기찬 작품의 양상까지도 예상시켜준다.

절벽이 창공을 치뿜으는 천지의 절정에 올라 산골을 깨치는 노호소리를 들으며 언듯 휘파람속에 감추이는 백호의 웅자를 상상속에 그리며 발견해낸 《백두산호랑이》!

이것은 예리한 시적감각, 나래치는 상상력과 심장에서 충격된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충정과 절대적인 경모심이 반들어올린 필연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온몸과 온넛으로 찾아낸 종자이기에 《백두산호랑이》는 그렇듯 무게있고 깊이있는 종자, 그렇듯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 작품의 료괄전체를 련상시켜주는 종자중의 종자로 빛을 뿌리고있다.



# 크나큰 행운

—한 비전향장기수동지의 노래—

박 철

이런 크나큰 행운을  
내 안고살자고  
80고개를 넘긴것은 아닙니까  
남반부에선 죽음을 눌러딘고  
조국에선 청춘의 활기에 넘쳐

사람이 살아 한생  
한분의 위인만 모시여도  
그 삶은 복된 삶이라 했거늘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온 생애에  
경애하는 원수님 또 모시었으니

마음은 내내 벽차오릅니다  
피어린 옥중투쟁 수십년세월  
수령님영상을 간직하고산 이 몸이  
젊으신 장군님영상을 뵈옵던 날  
대전교도소의 그날처럼

그날의 감방은 감방이 아닌듯  
내 그분을 모시고 오른  
승엄한 정일봉이었습니다  
철창새로 바라본 하늘은  
그분의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조선의 기상 그 정일봉이  
오늘도 변함없이 가슴에 솟아있고  
그 미소가 넘쳐나던 하늘이  
나의 운명에 영원히 푸른것은  
원수님이 계시기때문 아닙니까

가 사

## 바다로 가네

채 근 수

시내물 흘러흘러 가는 곳 어디나  
쉽없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  
이 땅우의 모든 내물 안아주는 품  
아 우리 마음 안겨드는 사랑의 바다  
그 품은 넓고넓은 원수님의 품

시내물 흐르는 길 험난하여도  
그 품이 은혜로워 판길 모르네  
가시덤불 험한 바위 앞을 막아도

전화의 그날엔 군복을 입고  
원썬들 감옥에선 목숨을 내대고  
총대로 신념으로 지켜온 조국  
수령님 장군님의 나라를 책임지신  
철세의 위인 **김정은**원수!

오늘 그이의 자애론 품은  
인생고목에 봄비를 뿌려주는  
나의 사랑의 하늘  
오늘 **김정은** 그 빛나는 존함은  
우주를 정복한 내 조국의 존엄

세상에 없는 이 행운을 지녀  
다시 원썬들의 철창속에 산다 해도  
의지는 더욱 굳세어질것입니다  
심장에 붉은 피로 새겨넣은 공화국기발  
더 자랑차게 휘날릴것입니다

아, 당대에 한분만 모셔도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인 천출위인  
내 인생에 세분을 모시었으니  
한생을 바쳐 열망한 통일강성국가  
그 붉은 노을 가슴에 찬란합니다

대를 이어 세월을 이어 누려가는  
수령복 장군복 대행운이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그이를 모셔 그이를 받들어  
오, 쏟고쏟는 감격의 눈물  
백발의 이 몸 행복에 젖고젖습니다

아 우리 마음 안겨드는 사랑의 바다  
그 품은 넓고넓은 원수님의 품

내 나라 시내물은 갈래 많아도  
모두다 하나같이 그 품을 찾네  
천만줄기 모여 뭉쳐 대하가 되어  
아 우리 마음 안겨드는 사랑의 바다  
그 품은 넓고넓은 원수님의 품

# 나의 시는 결전에 달린다

방금석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시인  
밭갈이노래 구성지게 울리는 들판에서  
순박한 농민들과 땀을 흠뻑 적시며  
사색의 이랑을 번져갈 때에도

아들애의 쿵당쿵소리 정겨이 울리는  
강변의 유보도길에서  
그 애의 밝은 미래를 흐뭇이 그려보며  
조용히 시상을 모으던 휴식날에도

나는 바랬다  
나의 소박한 시어들이  
이 나라 가정들에 밝은 웃음 더해주고  
포전머리에서 기대결에서  
한없이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로동의 희열로 행복의 노래로 울려퍼지기를

하건만  
미제가 불을 단 침략의 도화선이  
시시각각 타들며  
조국의 운명을 위협하는  
준엄한 이 시각  
미제와 남조선피괴패당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하여  
나의 시는 결전으로 달린다

평화로운 이 땅  
어딜 가나 형제처럼 다정한 사람들이  
조국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서로서로 흥금을 더놓는  
그 정찬 가슴들을

가사

## 그리움입니다 사랑입니다

김은희

저도 몰래 찾아오는 그리움 그리움  
날을 따라 깊어가는 그리움 그리움  
혈전만리 헤치시여 조국해방 안아오신  
수령님모습으로 안겨오는 영상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은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낮도 없고 밤도 없는 그리움 그리움  
세월따라 더해가는 그리움 그리움  
수령님혁명위업 빛내여가시던  
장군님모습으로 안겨오는 영상

포연으로 질식시키려는 미제!

나의 심장속에  
그림처럼 자리잡은 거리와 마을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의 갈피갈피들을  
영원히 불사르려는  
가증스런 악의 소굴을 그대로 두고선  
더는 이제 더는 참을수 없거니

조국이어  
나에게도 총을 달라  
미제에 의해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모든 조선사람들의 이름으로  
나는 미국의 아성들에  
멸적의 총탄으로 시를 쓰련다

세기를 이어 웅어리진  
한을 풀 때는 왔다  
아! 이제 더는  
미제가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거니

위대한 령장들의 슬하에서  
우리 허리띠를 조이며 장만한  
우리의 생명이며 국보인  
자위적핵무기들이  
이제 미제의 아성으로 사정없이 날아가리라  
미국이 없는 세계에서  
조선의 장쾌한 축포가 오르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오, 나의 멸적의 시는 결전에 나섰다!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은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수령님사랑으로 그리움 그리움  
장군님모습으로 그리움 그리움  
해와 별 찬란한 주체의 우리 조국  
강성국가 미래로 안겨오는 영상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은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평안남도 순천시)



리 룡 운

아름다운 꽃이나 향기롭고 알찬 열매도 모든것이  
애어린 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싹을 귀중히 여긴다.

그 싹에 미래를 엮는다.

그 연연한 싹이 줄기쳐자라고 열매주렁질 앞날  
을 기대하며...

조국땅 서북변의 먼곳, 두메산골 외진 곳에 자리  
잡은 한 광산마을에도 사심없는 수고를 바쳐가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진동렬은 앞에 놓인 건물설계도면을 거의 한시간  
가까이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도면은 이곳 광산에  
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교의 총설계도이다. 동렬  
이 이곳 광산 지배인으로 부임되어온지도 몇해 되  
지만 생산에 다몰리고 여러가지 실무사업이 코메  
트 하여 언제부터 버려져오면서도 아직 손대지 못  
하고있던 일이다.

광산설립 초창기에 세워진 분교는 이제 건물이  
낡았다. 게다가 최근에 광산이 확장되면서 종업원  
들이 늘어나고 학생수까지 불어나다보니 이모저모  
로 교실좁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있었다.

원래 분교는 광산종업원들의 자녀가 대다수이  
다. 그래서 동렬은 자신이 한개 광산의 지배인이  
기 전에 종업원자녀들이 공부하는 분교의 학부형  
위원장부터 응당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사는

터였다.

제판에는 분교사업에 관심을 돌린다면 장마철 지  
붕수리나 모자라는 책걸상보충도 해주느라 하지만  
어쩐지 그것이 자기의 면무식이나 하기 위한 미봉  
책으로 여겨지었다.

요전에 나가보았을 때 만났던 분교장이 하던 말  
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였다.

《...미안합니다. 지배인동지, 광산에서랑 이렇게  
많은 관심을 돌려주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미처 따  
라서지 못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달마다 진행되는 학과경연  
에서 분교의 평균성적이 전달보다 좀 더 떨어졌으  
며 본교의 같은 학년학생들에 비해봐도 형편없다  
는것이였다. 그 말을 하면서 눈언저리가 불그레해  
지던 리영옥분교장의 모습은 지금 생각하여도 마음  
이 언짢아진다.

척 보기에는 다른 녀인들에 비해 키도 크고 체  
대도 실향 마음 또한 헌결찰것 같은 리영옥분교장  
이 얼마나 눈물이 헤픈 녀성인가는 동렬이 잘 알  
고있다.

광산에 처음 왔을 때 설비갱신문제로 며칠 출장  
을 갔다가 밤늦어 돌아오며 있는 일이다.

광산을 가까이한 승용차가 립산사업소앞도로에  
들어서자 전조등에 환히 비쳐진 길가녁으로 웬 녀  
인이 걸어가는데 행동거지가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차를 세우오.》

동렬은 차문을 열어잡고 그냥 지나치려는 녀인을 불러세웠다. 주춤거리며 가까이 다가선 녀인의 얼굴이 환히 켄 차실내등에 비쳐지자 뒤에서 껴끼여 내다보던 젊은 운전사가 속삭이듯 알려주었다.

《우리 광산 금강분교 분교장선생입니다.》

동시에 광산지배인을 알아본 영옥분교장 역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얼핏 불빛에 비쳐진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었다.

동렬지배인이 녀인을 끌어올리자 차는 곧 떠났다.

차가 인적드문 산골길을 한참 달리고 무슨 일로인지 격해졌던 녀인의 마음이 좀 진정되었다고 생각될쯤에 동렬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조용히 물었다.

《이 밤중에 분교장선생이 무슨 일입니까?》

영옥분교장은 이윽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천천히 사연을 얘기하였다.

당시 리영옥은 분교장사업을 맡고있으면서도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학급을 담임하고있었는데 학급의 한 학생네 부모가 찾아와 계속 전학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근 20리 가까운 본교를 내놓고 아근에 다른 학교는 없는 것이고 어디로 보내려는가고 물으니 시부모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원인은 다르게 아니고 늘그막에 적적하게 살고있는 시부모들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쩐지 석연치 않게 들리었다. 그래 영옥선생은 그 학생을 따로 불러 조용히 그 원인을 물어보았다.

역시 거짓을 모르고 순진한것이 아이인지라 그 학생은 선생님의 물음에 솔직히 대답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시내에 보내서 공부시키겠습니다. 거기 가야 더 많이 잘 배운다구...》

아이의 말을 들으며 부모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차오르는 노여움을 금할수 없었다.

교육강령은 우리 나라 어느곳에서나 똑같은것이 아닌가. 물론 보다 이채롭고 변화한 시내환경이 자라나는 자식의 지능발전에 더 크고 빠른 영향을 줄수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산이 확장되면서 타지방에서 자진해온 이곳 사람들이 모두 이렇 내기를 한다면 본교가 필요없게 되고 도시와 산간지대 교육의 차이를 인정하는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이 광산의 미래가 없어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물며 몇명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비행기가 날

고 배나 빠스가 달리고 다리가 세워지는 우리 나라가 아닌가.

그리하여 영옥분교장은 찾아오는 학생의 부모들을 좋은 말로 타일러 보내군 하였다.

여러차례 걸음끝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학생의 어머니는 드디어 본교의 교장선생을 찾아가 이 문제를 상정시키었다.

교장선생이 부른다는 본교의 연락이 왔다.

본교에 내려간 영옥분교장은 교장선생앞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려 하지 않았다.

《...조국애의 기초가 무엇이라느거야 저보다 교장선생님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모르는 어린이에게 앞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교육사업에 오랜 년한이 있고 경험도 많은 교장선생이였지만 결국 영옥분교장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영옥분교장을 바래주며 교장선생은 그의 두손을 꼭 쥐고 말하였다.

《어쨌든 동무같은 이악한 분교장이 있어 금강분교일은 마음을 놓겠소.》

하지만 홀로 본교를 향해 올라오는 영옥분교장의 마음은 편안치 않았다. 자식을 귀중히 여기는것, 특히 그 자식의 장래를 두고 남보다 훌륭히 키우려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기울이는거야 어느 부모들을 막론하고 공통된 심리가 아닌가.

자기부터도 두 남매를 슬하에 둔 어머니이고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 하여도 벌써부터 그 애들의 장래문제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데 황차 다른 부모들임에랴...

그러나 그렇게야 어떻게... 어떻게...

이러한 모순된 감정이 영옥분교장의 가슴속에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것이 내가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이지, 그래서 학생들도 날 떠나 다른데로 가려고 하구...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그 어떤 아지 못할 설움 같은것이 북받쳐올랐다.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느라니 생각도 걸음도 허둥허둥하여 혼자 근 20리되는 밤길을 줄곧 걸어온것이였다.

묵묵히 영옥분교장의 이야기를 듣던 동렬지배인이 느닷없이 물었다.

《전학을 시키겠다는 그 학생은 어떤 애입니까?》

지배인의 물음에 영옥분교장은 그때까지도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을 훔치며 한결 개운해진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글쎄, 어떻다고 해야 할지. 이름이 리철범이라고 실력은 잘 모르겠는데 좀 엉뚱한데가 있는 애

입니다.》

그러면서 어느날엔가 있는 일화를 이야기 하였다.

그날 과외복습시간에 영옥은 신입생들의 지능정도를 타진해보느라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

《학생동무들, 사랑이라는게 무슨 뜻일까요?》

뜻뜻이 편 팔들이 사방에서 솟아올랐다. 대답은 각이했다.

엄마가 꼭 껴안고자며 머리를 쓸어주는것이라는등, 식사때면 할머니가 자기 밥을 덜어주는것이라는등 또 퇴근해들어온 아버지가 곱다고 목마를 태워주는것이라는등...

제마끔 입술을 나풀거리며 나름대로의 소견을 표현해보느라 재깍거리는 애들을 정찬 눈길로 둘러보던 영옥은 어느 한 애에게서 눈길을 멈추었다.

얼굴이 부얼부얼하고 귀방울이 두툼한게 평소와 다른 애들처럼 별로 까불지도 않고 항상 뭔가 생각하는듯 한 인상을 주는 학생이었다.

《철범학생, 학생이 한번 대답해봐요. 사랑이란 뭐나요?》

철범이라는 그 애는 일어나서 별로 생각해보는것 같지 않게 눈을 내려깔고 단마디로 대답했다.

《엄마가 형에게 사랑 세알을 먹으라고 줬을 때 두알은 나 주구 한알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겁니다.》

온 교실에 깔깔거리는 웃음이 터졌다. 영옥이도 그만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배를 그러전체 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거나말거나 철범이라는 그 애는 사방을 두릿두릿 살피다가 자리에 앉아버렸다.

영옥분교장의 말에 차안에도 폭소가 터졌다. 원체 생김새가 칼칼하고 웃음마저 드물어 좀 차갑다는 말을 듣는 동렬지배인이지만 이 말을 듣고는 웃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아이구, 이거야 우스워서 차를 몰수가 있나. 지배인동지, 잠깐 세워서 다 웃고 가야지 이러다 사고나겠습니까.》

운전사가 조향륜에 가슴을 바싹 붙이며 아부재기를 쳤다. 잠시 길가에 멎어섰던 차안에는 한동안 웃음이 그칠줄 몰랐다.

《그런데 그 애의 형이 그렇게 안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떠나는 차안에서 동렬지배인은 채 미소를 거두지 못하며 물었다.

《아닙니다. 후에 하는 말이 형이 자기를 골려주고 약을 올려주노라고 우정 그러군 한답니다.》

웃음어린 영옥분교장의 말에 차를 몰던 운전사가 한마디 하였다.

《어쨌든 선생님은 늙지 않겠습니다. 그런 재미스런 장난군들과 함께 있으니 말입니다. 한테 이제 는 왜 울었습니까.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화들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마음도 가벼워질텐데요.

혹시 차를 세워보느라고 우야 우는척 해보신건 아니겠지요?》

운전사의 능청에 차안에는 또다시 가벼운 웃음이 돌았다.

하나 이 순간 동렬의 생각은 깊어졌다.

녀자들은 눈물이 헤프다. 바로 그 눈물로 가슴속 피로움을 씻고 더욱 강해진다는것을 이 젊은 운전사가 어찌 알것인가. 그래서 녀성의 눈물은 아름답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이 순간 동렬지배인은 초면의 이 녀성이 얼마나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가 높고 큰가를 깨달았다.

설비, 설비도 문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놓치고있었다는것을 동렬은 절감하였다.

그리고 이 시각부터 자기가 한개 광산을 책임진 지배인만이 아닌 종업원자녀들의 학부형위원장까지 겸임해야 하리라는 자격지심이 들었다.

자기도 역시 두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가 아닌가.

그 이후로 동렬은 당위원회와의 연계밑에 분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렸다.

그렇지만 생활이란 역시 결심대로만 되는것이 아니어서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와 잦은 출장에 쫓기다나면 아차 하고 허를 깨물 때가 드문한데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이번 출장길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것이어서 떠나기 전부터 한주일나마 그 준비로 바빴다. 자기가 없는 기간에 예견되는 있을수 있는 일들을 빈틈없이 맞물려놓고도 재삼 확인하고 또 따져보았다.

그러느라니 낮시간에 예견되었던 출장길도 어두운 밤에야 부랴부랴 떠났다. 떠난 용무자체도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산과 연계를 맺으면서도 분교문제만은 따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출장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며 기업소정문이 보일 때에야 비로소 분교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분교가 보이는 곳에서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내렸다. 분교에 찾아가며 그는 언제한번 차를 타고 들어선적이 없었던것이다.

마침 오후 복습중의 휴식시간인지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뛰어놀고있었다.

《지배인아저씨—》

어느새 그를 알아본 아이들이 얼지른 바구니의 능금알들 구울듯 와— 몰려왔다. 그리고는 서로마끔 그의 곁에 서겠다고 비비적거리며 몸싸움을 했다.

애들이란 거짓을 모르는만큼 가식도 모른다.

오직 진정만이 아이들을 끌어당기고 감동시킨다.

《아저씨, 이거.》

몰려선 애들의 번두리에서 한 애가 고개를 잔뜩 젖히고 팔을 힘껏 뻗었는데 꼭 움켜쥔 주먹틈사리로 빨락지에 쓴 사랑알들이 비죽비죽 보인다.

철범이녀석이다.

이 분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해준 녀석이어서인지 별로 더 정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다. 동렬지배인도 팔을 뻗쳐 너털알되는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다른 애들도 저저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데 어떤 애들은 시새움에 찬 눈길을 철범이에게 보내기도 한다. 그런 애들을 겨우 떼어놓고 학교에 들어서니 마침 교원실에 영옥분교장이 혼자 앉아 두툼하게 쌓인 아이들의 학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교원들은 분교에서 회의가 있어 모두 내려가고 분교장이 혼자 직일 겸 떨어져 그간 애들이 쓴 일기장을 검열하고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표현능력과 문장구사능력을 키워주느라고 일기를 쓸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반가와 일어서는 영옥분교장을 만류하여 앉힌 동렬은 그간의 문안인사를 건네며 방금 철범이에게서 받은 사랑알들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철범이녀석이 나한테 빚을 지워놓더군요.》

그러면서 눈에 뜨이는데로 일기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동글동글하게 제법 글씨가 여문것이 정남희라는 처녀애의것이였다.

《…내옆에 앉는 김순덕동무는 놀부같은 심술쟁이이다. 국어시간에 나때문에 글이 찌그러졌다고 하면서 내 학습장에 연필로 벽벽 그어놓았다. 내가 우정 그런것이 아니라는데두 막무가내이다.

…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텔레비에서 보니 컴퓨터랑 투영기랑 설치된 멋있는 교실들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공부를 잘하면 꼭 저런데서 공부할수 있다고 하였다.》

일기장의 그 대목을 한동안 음미해보던 동렬지배인은 영옥분교장을 이윽히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분교가… 이젠 좀 낡았지요?》

잠시 주저하듯 하던 영옥분교장이 사정을 터놓았다. 늘어난 학생수에 따라 본교나 상급기관에서도 대책을 따라세우느라 하지만 분교문제가 주머니에

서 뭘 꺼내듯 척척 해결되는것이 아니어서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숨김없이 말하였다.

《…모든게 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미리 예견해서 대책을 해놓았어야 하는건데…》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동렬지배인의 눈앞에는 그사이 별로 수척해진듯싶은 영옥분교장의 모습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들고 해당 부서를 찾아 그간 생산실적을 알아보았다.

여전히 자기 수준을 유지하고있었다.

잠시 뭔가 생각에 잠겼던 동렬지배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다.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공부를 잘못하는 자식들을 두고 그 애의 부모들이 어떻게 말은 일에 정력을 다 쏟을수 있겠는가.)

다시 전화를 든 동렬지배인은 광산설계실장을 불렀다.

그와 마주앉은 동렬은 분교를 빠른 시일내에 건설하려는 자기 결심을 말하면서 그새 짬나는대로 생각해두었던 분교구조를 종이우에 그려놓고 의논에 붙이었다. 실장과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자 지배인은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완성해주시요. 그리고 한껏 욕심도 내보고…》

이들만에 완성된 설계가 지배인의 책상우에 놓였다.

그래서 동렬지배인은 지금 이렇게 점 하나, 선 하나를 따져가며 미흡한데가 없는가를 따져보는데 머리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댘돌고있었다.

작지 않은 광산의 일이 따진 옷 갑옷 그렇게 쉽지 않다.

기업소에서는 운수기재가 늘어난 조건에 맞게 차고를 크게 지으려 계획하고있다. 동시에 봉사시설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려고 한다.

여기에 맞는 로력조직은 이미 되어있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건설로력은?…

이렇게 머리속으로 부지런히 생각을 굴리는데 때아닌 때 갑자기 아침출근전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가 막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데 곁에서 거들어주던 안해가 불쑥 묻는것이였다.

《참, 분교를 새로 지으려 한대지요?》

결혼하여 15여년을 함께 살면서 언제한번 남편의 일에 참견해본적이 없는 안해이다.

아마 분교설계를 새로 한다는 소문이 광산마을에 퍼진 모양이다.

《모르겠어요, 당신이 애들 분교를 지어준다는 게. 언제부터 철신이가 부탁하는 비둘기장도 못 만들어주면서...》

집안일에 대해 너무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악의없는 힐난이었다. 아들 철신이가 언제부터 비둘기 한쌍을 얻어다 빈 닭우리에 가두어놓고 아버지와 멋진 비둘기장 하나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날려보낸 연기로 남아 있다.

부지중 집식구들 특히 안해에게 미안스런 생각이 밀려들었다.

처음 결혼을 약속할 땐 그럴것 같지 않았는데...

...그들은 한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렇다고 동창생은 아니고 안해인 리금경이 한해 상급반이었다. 군대에서 제대된 진동렬이 한두해 사회생활까지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도에 있는 재정경제단과대학(당시)을 다녔는데 서로의 집이 한고장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직접 마주설 기회는 없었다.

우선은 비록 한해차이일지라도 상급생선배들에 대해 작용하게 되는 무조건적인 도덕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렬에게 드문히 있군 하던 어머니의 훈시때문이었다.

《너자들과 하는 쓸데없는 말은 사내들이 제 금새를 떨구는 첫번째 바보짓이다.》

당시 대학생처녀 리금경은 쪽 빠진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못지 않게 활달한 성격으로 하여 대학에서 시선을 모으고있었다. 게다가 학과실력까지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사실 한창나이의 진동렬이도 처녀에 대한 호기심이 없지 않았으나 그 어떤 무조건적인 자존심과 어머니의 엄한 훈계가 그것을 철저히 얹어대놓았다.

생활은 계기가 마련해준다는 말이 있다.

어느해 겨울철방학이었다.

한렬차를 타고 한역에 내린 그들은 일정한 구간을 한방향으로 걸었다. 두사람이 길 양편으로 갈라져 걷는데 남이 보면 마치 한바탕 싸우거나 생판 모르는 사이 같았다.

날이 몹시 찌웠다. 사람들이 봄비는 공업품상점앞을 지나가는데 돌연히 자지러진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에서 터져올랐다.

둘이 거의 동시에 눈길을 돌렸는데 너털살쥌 나보이는 어린 처녀애가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 엄마 울고있었다. 술한 사람들속에 부대끼다 어떻게 엄마를 잃은 모양이었다.

두 대학생이 함께 달려갔는데 처녀가 다짜고짜

자기의 솜옷을 벗더니 어린애를 와락 감싸 번쩍 안아들었다. 곁에 있던 동렬이 자기의 솜옷도 뒤미처 벗어들었다. 잠시 어쩔가 망설이던 동렬은 손에 든 자기의 솜옷을 처녀의 어깨우에 미안스런 낯빛으로 그러나 거역할수 없는 태도로 씌워주었다.

처녀는 얼핏 눈길을 돌려 동렬을 바라보기만 했을뿐 여전히 초조한 표정으로 애어머니를 찾고있었다.

얼마후 애어머니가 허둥지둥 황망히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동렬의 얼굴이 추위에 퍼렇게 질려있었다.

《고마왔어요.》

그때까지도 등에 걸쳐져있는 남자용솜옷을 벗어주며 처녀가 처음으로 한 말이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때가 바로 처녀가 졸업을 몇달후로 바라보던 때였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못사람들의 선망어린 눈길속에 결혼을 하고 두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보냈다.

그 나날 동렬은 여가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어떻게 되어 이런 훌륭한 녀자를 사랑하게 되었는가고...

내가 혹 미모에 반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렬은 그 생각을 굳이 부정해왔다.

혹한속에 울고있는 어린애를 위해 서슴없이 자기의 솜옷을 벗어드는 헌신성, 여기에 바로 한 처녀의 참다운 인간적미가 있는것이 아닌가.

한방울의 물에 세계가 비낀다고 한다.

《이 친구 생김과는 달리 내숭스럽거던. 저런 처녀라면야 혹한에 솜옷뿐이겠나? 얼음물에라도 뛰어들지.》

그의 결혼담을 아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악의없이 놀려주곤 한다. 그런들 어떠리. 아들딸 거느리고 행복하게 잘살고있는데야.

예까지 이른 진동렬지배인은 자신의 부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련듯 주먹으로 이마를 툭툭 치며 다시 도면에 눈길을 박았다.

로력, 로력이 문제다. 그렇다고 이미 기업소에서 계획한 공사도 미룰수 없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가만, 우리 참모부서인원이 몇이더라... 더 길게 타산해볼것도 없다.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하자.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곧장 당위원회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다음날부터 새 분교건설이 시작되었다.



## 기사장 김정철의 이야기

난 사실 뭐랄까, 거 영화나 소설을 비유해 말한다면 부정인물이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말한다면 분교건설문제를 두고 지배인동무와 나는 처음부터 의견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분교터전을 잡는 문제부터였지요.

원래 분교가 있던 자리에서 조금 더 돌아가면 평퍼짐하고 알맞춤한게 새 분교자리로선 팬찮은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는 그게 아니라 좀더 광산가까이로 끌어오자는게 아니겠습니까. 기업소사무실에서 뻥히 보여야 더 관심하게 된다니요.

일리는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리 봐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봤지요.

그런데 글썄 어떤데였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뻥히 보이긴 해두 비탈이 심하구 돌투성이여서 아무리 광산마을의 중심이라든 빈 공지로 남겨놓은 땅이었습시다.

어이없는 속에서도 작업토량을 대강 추산해봤습시다. 엄청난 수자였지요.

이 수자를 지배인동무가 모를리 없겠는데. 광산에선 지배인동무를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배인동무의 머리칼 한오리한오리가 모두 수학공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지배인동무의 리론은 명백합니다.

《경제사업은 물감장사처럼 하라.》

우리 수령님의 교시이지요.

바로 그런 일꾼이기에 이렇게 기업소앞에 부과된 인민경제계획은 매달 넘쳐하면서도 광산의 건물들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산하의 갯들모두가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받았습시다.

자랑같지만 우리 광산 광부들은 여기서 일하는 공지가 큼니다.

어쨌든 그런 지배인동무가 분교터를 꼭 그곳으로 고집하니 의아할수밖에요.

제 먼저 바위우에 걸터앉아 지배인동무가 날 당겨앉히더니 담배 한대를 권하더군요. 공개된 비밀인데 이젠 지배인동무가 상대를 납득시키기 위한 첫 공정입니다.

난 그저 이제 또 시작되겠구나 하고 덤덤히 앉아있었지요.

안할 말로 나야 기업소라는 큰 기계의 매 부분품들마다 빠짐없이 장악하고 세간살이를 돌봐야 할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니 좀 짜증이 날수밖에요. 한데 지배인동무의 말을 들으니 절로 그의 말

에 공감이 가더군요.

우리 광산에서 내려다보면 아득히 끝짜기들을 따라 뻗어간 큰길이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든 길이지요.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이끄시던 사적지가 있구요.

그때 지배인동무의 말이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길을 따라 꼭 한번 오신다는겁니다.

그렇게 오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길옆에 있는 우리 광산을 보시고 저 기업소에 가봅시다 하고 말씀하실텐데 오시면 학교에도 들리실게 아닌가,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광산의 유축에 자리잡고있는걸 보시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는가고 말할 때 난 할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배인동무와 난 자치동갑이어서 단둘이 있을 땐 무렵없이 속의 말도 하는데 총체적으로 감탄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배인동무가 하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보우, 기사장동무. 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처음 맞으시던 새해 첫 설날 아침 다박술초소를 찾으시여 병사들에게 설맞이공연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뒤에 두고 왔다고, 애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말이요.

그 이후에도 장군님께서 한 번도 애들과 함께 설을 쇠지 못하셨지.

난 그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의 그 나날에 사랑 한알 변변히 먹이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마음속 아픔이 아닐가 하구 생각하오. 그래서 늘쌍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을 조금이라도 대신해서 아이들을 위해주고싶을뿐이요!》

우리 지배인동무 이런 사람이지요. 그것으로 분교터전문제는 락착되구요.

그날 오후부터 팡장했습니다.

총부지면적이 이천여평방미터인데 거기다 운동장면적만도 근 천삼백여평방미터이고 하여튼 우리 지배인은 어벌이나 욕심이 여간 아니라는걸 난 그때 알았습니다. 날라다 쌓은 성토량만도 거의 천오백립방에 깎아낸 절토량은 천백여립방이니 우리 기업소능력으로선 평시에 엄두도 못낼 일이었지요. 건설목표는 한달.

누구나 입을 딱 벌렸지요. 그런데 하긴 해내더군요. 그것도 다른 공사들을 동시에 내밀면서 말입니다.

난 자작된 대중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걸 그때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당정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얹혀있다는 장군님의 명언을 폐부로부터 절감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온 광산이 달라붙었지요. 네일내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킬 새 분교라니 갱에서 교대를 마치고 나오던 광부들, 가두의 녀맹원들, 지어는 늙은이들도 펼쳐나서는데 굉장했습니다.

분교인 부흥고급중학교에서 지원이 올라오고 상급단위에서 지도사업을 내려왔던 일군들도 질통을 지고 뛰어들었으니까요.

하루는 군당책임일군이 올라왔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몇번이고 인사하더군요. 한가득 준비해온 지원물자까지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지배인동무가 미래를 위한 일에 무슨 네일내일이 따로 있는가고 사양하더군요.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벽체쌓기를 다 끝내고 막 지붕골조를 올리는데 건설반장이 울상을 하고 지배인동무를 찾더군요. 그때 그 사람넌 차고건설을 맡아 호상 경쟁을 하다 싫어 했습니다.

일인즉 아침에 출근해보니 밤새 조립해놓고 들어간 지붕골조가 없어졌다는요.

뻔하지요. 분교건설은 주야로 이어졌으니 야간에 작업하던 사람들이 벽체를 다 쌓고는 우르르 몰려가 조립해놓은 지붕골조를 들어다놨지요. 결국 분교지붕에 올라가있는 저 골조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걸 어찌겠소. 그렇다구 일껏 지붕에 올려놓은걸 다시 내리겠소. 자재부에 가서 다른 강재를 가져다 조립해쓰도록 하오. 내 자재부에 지시를 주겠소.》

랑해를 구하듯 하는 지배인의 말에 건설반장은 더 난색을 짓더군요. 자재부에 갔었는데 이달 건설분으로 실어온 강재는 다 나가고 다음달분은 이제 실어와야 한다더라나요. 그러구보니 어제 밤에 여가 지원나왔던 사람들이 자재부녀석들이었습니다. 자재재고량을 뻔히 아니까 그런짓을 했지요.

《지배인동지, 인차 중앙기관 보여주기사업도 예정되는데 차고건설부터 선행시키는게 아닙니까.》

그 말에 곁에 있던 3갱장이 버럭 역증을 쓰더군요.

《말갈잡은 소리 하지두 말아. 분교지붕 벗겨다 뭘 어찌보겠다는게 우리 광산사람이 맞긴 맞아? 우리 3갱에 올라가봐. 전사해둔게 있으니.》

지배인동무랑 모두가 3갱장을 쳐다보며 놀라더군요. 그도 그럴것이 광산적으로 제일 갱본위주의가 센게 3갱장이었으니까요.

《있으면 있다고 미리 말할게지 받는 소처럼 소

래긴 왜 질러?》

건설반장이 맞대거리하자 3갱장이 코방귀를 불더군요.

《갈잡은 소리. 학교지붕만 아니라면 내가 절 왜 줘?》

온 건설장이 웃음판이 되었지요. 이게 바로 우리 광산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서 새 분교건설은 계획한 날자에 끝났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사는 맛이 나고 배운것도 많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부정인물치고는 긍정적인 부정인물이지요. 하하하...

## 광산녀맹원 장순옥의 이야기

전 그저 우리 아들에게 좀 하고싶습니다. 우리 여자들한테야 자식자랑만큼 신나는 자랑이 있나요.

저의 아들이 바로 리철범이랍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학급장도 한하는데 솔직한 말로 어릴 땐 무척 속을 태웠답니다.

얼마나 세차고 뿔머리 사나운지 어떤 때는 제 자식이라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으니까요.

호호...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그 애가 네살인가 났을 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한번은 머리가 너무 자랐길래 리발소에 데려갔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무작정 안 가겠다고 생떼를 쓰는것이었습니다. 얼려도 보고 위협도 해보고 마지막엔 매까지 들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 제가 지고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숯밤송이같은 머리를 그냥 둘수는 없어 제 손으로 깎아주었는데 사흘동안 깎았더니깐요. 잠버릇 사나운 그 애가 디굴디굴 굴며 잘 때마다 깎지 못한 부위를 따라가며 깎아준다는게 사흘이 걸렸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학교엔 갔지만 어디 공부를 하나요.

하루는 너무 안타까와 불러앉히고 다그쳤더니 그 애가 글썽 《엄마, 우리가 사는 군이름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나?》 하고 왕청같은 질문을 하겠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바라만 보는데 그 애가 제켄에서 되려 《구름이 지나가다 걸리는 산이 너무 많아 그렇게 부른대요.》하지 않겠나요. 어이없기도 하고 그 애가 하자는 뒤말이 너무도 명백한것 같아 더 말이 나가지 않더군요.

한편 노는게 너무 엉뚱스러워 남편과 의논하고 그 애만은 시부모님들이 계시는 시내로 내보내려 했지요.

그런데 분교장선생이 어디 말을 들어주나요. 교

육학적원칙에서 두 자식은 철저히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옳다는걸 인정은 하면서 두 어머니된 욕심은 또 그렇지 않더군요.

하루는 점심녁엔가 분교장선생이 얼굴이 질려서 달려왔지요.

철범이가 집에 오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속이 덜컥하더군요. 아침에 학교간다고 나간 애가 집에 있을리 있나요.

분교장선생의 말이 그 애 말고도 뉘명이 더 보이지 않는데 필경 어디 가서 놀음에 정신이 팔려있는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광산은 폐갱도 여러곳에 있고 수시로 발파도 있어 아이들의 고삐를 늦추었다간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했습니다. 속이 새까맣서 분교장선생이랑 찾는데 어디 보이나요. 그런 참에 지배인동지의 차가 집앞에 와뒀는데 글썽 거기서 우리 철범이랑 지금껏 찾던 애들이 우르르 내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을 알리 없는 애들은 지배인아저씨 차를 타고왔다고 좋아하는데 지배인동지말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큰길에서 어물거리는걸 태워왔는지 않겠나요.

그때 분교장선생이랑 저랑 애들을 붙잡고 어디 갔됐는가고 물으니 한반의 애들을 휘둥해서 큰길을 따라 가면 무엇이 있겠나 하고 가봤다더군요. 말하자면 세상구경인셈이지요.

우린 너무 어이가 없어 멀거니 바라만 보는데 지배인동지는 무릎을 꿇고 그 애들앞에 앉아 《그래, 뭘 봤니?》하고 묻더군요.

그러자 철부지애들은 《큰 학교를 봤습니다. 아저씨, 우리두 그렇게 큰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하는게 아니겠나요. 본교까지 거의 20리나 되는 길을 애들이 갔더라 말입니다.

그때 뭔가 심중히 생각하던 지배인동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말이 난김에 지배인동지가 처음 여기 부임되어오셨을 때 솔직히 말하면 썩 시원치 않게 봤습니다.

이건 아마 제 혼자생각이 아니라 우리 광산 대다수녀인들의 생각이었을겁니다. 모여앉으면 입방아를 곤잘 찢는게 우리 아낙네들이 아니냐요.

그래도 한개 기업소를 책임진 간부라면 우선 틀부터가 커야했는데 우리 지배인동진 얼굴도 가름하고 모든게 여자처럼 곱살한게 몸매마저도 무용수처럼 나긋나긋해보였습니다. 산이 커야 그림자도 크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광산 녀인들이 지배인동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것은 어느해인가 있는 녀맹원들의 평양견학때였습니다.

평양으로 갈 때부터 시작해서 견학일정문제, 숙소문제와 지어는 올 때의 버스문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세세히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해놓았는지 며칠간의 견학기간을 정말 아무런 불편없이 보냈답니다. 오죽했으면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에그, 지배인동지같은 남자와 사는 녀자는 얼마나 좋을가. 나두 때만 지나지 않았다면 그런 남자를 골라보는건데.》 해서 웃음판을 만들어놨겠나요. 지금도 지배인동지는 명절날이나 특히 녀성들의 기념일날엔 꼭꼭 참가하곤 한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 분교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낙네들도 사기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새 교사인데 왜 그렇지 않겠나요.

그때 보니 지배인동지는 노상 분교건설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더군요. 지배인동지가 여기 부임되어오신 후에 일하다가 심하게 다친적이 있다는건 광산사람들 누구나 알지요. 그래 자주 안정해야 한다는것두요.

어느 하루 건설장에 나갔던 제가 혼석을 나르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저의 남편이 삼을 들고 슬그머니 일판에 끼여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앞으로 지배인동지가 다가가는게 아닙니까.

《일범동무, 실례의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이부자리를 누가 거두었소?》

《예?!》

어정쩡해진 남편은 얼른 저부터 돌아보더군요. 망칙스런 말이지만 사실 저의 남편은 새벽잠이 좀 많아 잠자리우에서 밥상을 받는 때가 드문하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어느덧 습관때버리구요.

그런데 지배인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은근히 눈을 부라리는 남편앞에 지배인동지는 소리내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은 생활의 거울이요. 요전에 철범이의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요?》

〈나도 빨리 커서 아버지가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불도 안 개기때문이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지고 저도 부끄러워 돌아섰는데 곁에서 듣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무들, 사실 이젠 누굴 망신이나 시키자고 한 말이 아니요. 다시말하지만 애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은 세상의 전부요. 썩은 어려서부터 잘 자래워야 하는거요. 일만 바쁘다고 하지 말고 애들의 학습장도 봐주고 속마음도 나눠보는것은 자식

들의 성장에서 무시할수 없게 중요한 생활의 한 고리요.》

정색해서 하는 지배인동지의 말은 듣던 사람모두에게 심각한 교훈을 준것 같았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이 가정교육이라는걸 알면서도 저부터 왕왕 잊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후부터 마을에서는 자식들의 생활이나 학과성적을 두고 은근히 학부형들간에 승벽이 생겼습니다. 그 풍을 타고 애들의 실력은 자연히 올라갔구요.

말썽군이던 우리 철범이도 저절로 공부에 취미를 붙이더군요.

3학년이 다니는 지금부터도 벌써 몇개의 외국어를 소유해서 앞으로 세계를 내다본다나요. 한마디로 지배인동지에게 광산사람들모두가 붙이는 《우리》라는 호칭을 무심히 듣지 마십시오.

참, 이거 아들자랑을 한다는게 우리 지배인동지 자랑이 되고말았군요. 제대로 된셈입니다. 호호...

### 금강분교장 리영옥의 이야기

처녀시절엔 참 꿈이 컸습니다. 그렇지 않은 녀성이 어디 있으랴만 변화한 읍거리에서 자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한적한 산골분교에 배치받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사람은 정으로 산다.》는 말의 참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광산에서 순직한 후에도 부모들이 계시는 읍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산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갯안에서 광산의 오늘을 창조하고 저녁에는 집안에서 광산의 래일을 가꾼다.》

모르고 듣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잘 모를테지만 누구든 한번 와보면 머리가 끄덕여질겁니다.

장난꾸러기들, 참 어떤 뎨 머리가 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활의 재미라는것을 전 압니다. 왜냐면 이 외진 산골에, 이곳 사람들에게 아니, 여기 아이들에게 정이 들었으니까요.

참, 새 분교가 마음에 드는가고 물으셨지요?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는게 더 나을겁니다. 애들은 거짓을 모르니까요.

이 새 분교는 착공해서 꼭 한달만에 이곳 사람들의 손끝에서 정말 꿈처럼 일떠섰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넣었던 물건을 척 꺼내듯 했습니다.

애들은 분교가 완성되자마자 새 교사에서 공부하자고 졸랐습니다. 저도 그러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동지를 만난 어느 기회에 애들의 심정과 제 마음을 합쳐 조용히 비친적이 있었습니다.

지배인동지는 한참 뭔가 생각하더니 《분교장선생, 애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주오, 조금만.》 하더군요.

부잡스런 애들과 씨름해야 하는 제가 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말인데 그때 지배인동지는 하루에도 여러차례 완공된 분교에 나와보았다고 합니다. 미흡한 점이 없는가, 애들의 마음에 들겠는가, 구석구석 살피면서 말입니다. 천정의 저 수지장식판이며 청소실에 말쑥하게 일식으로 입힌 타일, 학교울타리의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도 새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렇게 생긴것들입니다.

사람을 결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지배인동지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싸늘하고 매정해보이는 그 외모속에 그렇게 세심하고 뜨거운 인정과 사랑이 있다고야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컴퓨터실에 가보셨지요? 교실마다 놓인 최신형텔레비존을 보셨지요?

학생들이 늦도록 집에 갈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 처음엔 분교로 애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들의 걸음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들이 집보다 학교에 더 마음을 붙였다구 좋아합니다.

그제서야 저도 지배인동지가 조금만, 조금만 하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금만이... 조금만이 우리 지배인동지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길줄은...

청천벽력같이 우리 장군님을 잃고 누구나 비애에 차고 경황이 없던 그 나날이었습나다.

어느날 밤 늦어서 새 분교앞을 지나는데 교사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봤습니다.

뜻밖에도 지배인동지가 불빛 환한 복도 한가운데 박힌듯 서있는것이였습니다.

제 발자욱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지배인동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눈물이 끝없이 흐르고있었습니다. 뉘얼넘도 앓더군요.

《내가... 내가 왜 좀더 미리 새 분교를 지을 생각을 못했겠소. 아, 생각이 부족한 이 진동렬이...》

그리고는 목이 꺾 메이더군요. 그것은 그야말로 회오와 자책에 잠긴 몸부림이였습니다. 순간 저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잠시후 자신을 다잡은 지배인동지는 짙 잠긴 목소리로 띠엌띠엌 말하더군요.

《분교장선생, 준공식은 오는 2월 16일에 합시다. 군당파도... 그렇게... 토의해주오.》

## 미래가 태어나는 품

문 동 식

세월은 멀리 흘러가도  
나는 잊지 못하리  
꽃봉오리 우리 소년단원들이  
축원의 꽃바다로 끝없이 물결치던  
2012년 6.6절 력사의 그날을

해빛같은 미소를 환히 지으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대회장에  
몸소 나오신 **김정은**원수님  
아이들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시며  
축하연설하시던 자애로운 모습

그날 자애로운 손길로  
소년단원들의 두볼도 다독여주시고  
머리도 살뜰히 쓸어주시고  
온몸에 매여달리는 아이들속에 잠겨  
함께 웃으시며 말씀하실 때

나는 생각했노라  
어쩌면 저리도 인자하실가  
어쩌면 저리도 정겨우실가  
이 나라 어느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도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했으리

들우에도 꽃을 피우고  
 고목에도 새싹이 움트게 하는  
 열렬하고 순결무구한 그이의 사랑  
 꽃봉우리바다의 해빛이 되었거니

나는 걱정애 넘쳐 바라보았노라  
애어린 소년들이 세월을 앞질러  
어느새 어른처럼 숙성해지느것을  
그들의 지혜와 슬기 총정으로 더 푸른  
앞날의 창창한 하늘이  
내앞에 펼쳐져 빛을 뿌리는것을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백화만발하는 미래의 무릉도원  
그 꿈같은 세월의 꽃방석에 앉아  
백발이 다시 검어지는  
청춘의 랑만도 누려보았거니

그날은 6.6절 그날은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동터오른  
 천하제일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온 나라의 그 누구나  
 환희속에 맞이한 대경사의 날

아, 그날  
나는 심장으로 절감했노라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과 덕망을 다 지니신  
사랑의 태양 **김정온**원수님  
그이는 영원히 온 나라의 소년들을  
한품에 다 안아 꽃피워주시는  
조선의 끝없이 밝고 찬찬한 미래라는것을!

그렇게 되어 새 분교는 완공된지 석달만에야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초급방비서동지랑 군당일군들도 준공시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날 지배인동지가 학생들과 모여 온 학부형들앞에서 격식없이 하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 새 교사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동무들에게 남기고 가신 사랑이고 은정입  
니다.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의 념원입니다.

길게 할말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동지

들에게 호소합니다.

혁명의 후계자들인 이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따르는 앞날의 영웅들로 키우는  
데 우리모두 힘과 지혜를 합쳐나갑니다!»

이것은 개교사이기 전에 우리 지배인동지의 소박하고도 진실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전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이 분교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깊고깊은 두메의 산간오지에서도 강성조선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있다.

시 초

## 나는 강선의 용해 공이다

리 명 학

### 쇠물을 광광 부어라

출강을 앞두고  
마지막슬라크를 걷어내는데  
가증한 원쑤의 상통이 저기 보인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미제의 가련한 물결이

죽은 늑은 걷어내고  
산 늑은 또 처넣으라  
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지구상에 평화가 깃들지 않는다

얼마나 미제놈들 미웠으면  
어제 밤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애가  
텔레비존을 보며  
— 할아버지, 미국놈을 아예  
쇠물가마에 처넣으랴요! 했으랴

그저 천진한 손녀의 심정만이 아니다  
이 땅에 세기를 두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썩워온 미제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며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을 짓밟으려 하거늘

안된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불을 즐기는 전쟁미치광이들  
저 펄펄 끓는 쇠물속에 처넣고말리라

쇠장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불뿔은 전기로의 화염을 맞받아나가는 이 심정  
원쑤격멸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른다

누구든 이 전기로앞에 서보라  
그러면 마음은 든든해진다  
이글거리는 저 쇠물빛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보라

그러면 승엄한 마음에 안겨온다  
미제와 그 련합세력들이  
떼지어 달려드는 이 시각  
세계정치정세를 한손에 거머쥐시고 주도해가시는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두의 담력과 기상이

그러면 배심은 끝없이 든든하고  
승리의 신심은 드높거니  
출강이다  
어서 로를 통채로 기울여  
이 땅을 감히 노리는 원쑤의 머리우에  
쇠물을 광광 쏟아부어라

### 쇠물빛에 대한 생각

붉은색이라고 보기에  
흰빛이 감돌고  
희다고 말하기에는  
붉은빛이 짙은 쇠물

출강을 앞두고  
우연중 오가는 말  
연한 감색이라고 할가  
붉다못해 하얀색이라고 불가

타래쳐오르는 화염은  
검붉은색을 많이 띠지만  
부글부글 끓는 쇠물은

흰빛을 띤다  
전극을 가까이 할수록 밝은 푸른색이 보인다

한마디로 짝어말하기 힘들어  
서로 제나름인데  
당세포비서아바이는 한마디로 말한다  
— 여보게 쇠물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

옳다 쇠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은 쇠물빛에 어려있거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1만톤의 강재를 더 생산하라고 하신 과업을

받아안고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내었던  
1950년대 그 용해공의 자손들이 그때 그날처럼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증산과제를 받아안고  
한없는 그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해갈

불타는 열의로 충만되어있다

그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이 어려  
쇠물은 붉고 흰것이다  
대를 이어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강선의 그 정신이 어려  
쇠물은 저렇듯 밝고 붉은것이다

## 출강구를 더쳐라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장  
구내에 계시된 직관선전물주위에도  
어둠은 소리없이 깃들고  
밤은 퍼그나 깊었는데

—반장동지 로가 멋있습시다  
교대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었던  
작업반막내 철남이가 다급히 일어나며 하는 말

학교를 졸업하고  
로에 온지 엇그제같은데  
너도 이젠 용해공이 다되었구나  
—철남이 걱정말고 눈을 좀 붙이라구  
지금 원료장입시간이야  
그제서야 다시 눕는 철남이

얼마나 기특한가  
전기로의 호광소리 기증기소리

련속조피기에서 랭각수 뽑는 소리  
각종 소음이 들리는 속에서도  
용해공들은 자기 전기로의 숨결을 듣는다

오히려 전기로의 동음을 들어야  
잠을 잘수 있는 저 어린 마음  
동음이 멎으면 잠을 깨는 용해공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당이 준 증산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마음편히 잘수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백옥같은 충정

밤은 깊어가고  
쇠물은 끓는다  
꿈속에서도 출강구를 더쳐라  
또 한차지 쇠물을 뽑자

## 쇠물은 사품치며 돈다

쇠물은 돌고있다  
전극을 열싸안고 쇠물은 돈다  
얼핏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쇠물  
그러나 쇠물은 사품치며 돌고있다

그 무슨 지향이 있어 도는가  
펄펄 끓는 쇠물과 말하고싶구나  
너 쇠물이어  
무엇을 갈망하느냐

출강구는 어디고  
출강시간은 언제이나  
안타까워 돌고도는 너의 모습  
한차지 또 한차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승리의 그날을 향해 달리는  
이 마음과 꼭같구나

## 나는 강선의 용해공이다

펄펄 끓는 쇠물빛에  
더욱 붉게 물드는 나의 방열복  
그 쇠물 나의 방열복만 물들이던가  
내 마음도 붉게 물들이는 쇠물  
그럴 때면 가슴속 심장이 웨치는 말

—나는 강선의 용해공이다

한차지 또 한차지 쇠물을 뽑으며  
이제는 나의 신념이 된 그 말이  
오늘은 왜 이다지도 나의 마음에



억척의 기둥을 세워주며 울리는것이나

원썬들이 몰아오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이 쇠물로 흘날려보낼 나의 신념  
원썬들의 핵탄과 악의 소굴  
이 쇠물로 모조리 불태워버릴  
나의 위치를 깨우쳐주는 심장의 웨침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으며  
가장 어려울 때마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불러준  
대원수님들의 믿음을  
우리는 언제나 강철로 받아들여왔거니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쇠물과 떨어저선 못사는 내 마음

한밤에 잠을 들어도  
아침에 잠을 깨어도 마음은  
화광이 충천하는 로앞에 서있는  
나는 강선의 용해공

들을수록 정답고 힘이 솟는  
전기로의 힘찬 동음은  
비약하는 내 조국의 숨결  
땅이 무겁도록 쏟아지는 쇠물폭포는  
나날이 흥해가는 내 조국의 모습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도 강철로 쌓고  
조국의 부강번영의 길도 강철로 열  
변심없는 나의 신념  
용암처럼 끓어 사품치고  
보석처럼 굳어 빛을 뿌려갈  
아, 나는 강선의 용해공이다

## 한생에 대한 생각

조 석 영

인생의 한생을  
백년을 더 바라라  
천년을 더 바라라  
짧아도 한생  
길어도 한생

인생은  
세월따라 오고가는  
계절도 아닌것  
인생은  
계절따라 피고지는 꽃도 아닌것

인생은  
한번 피운 삶의 꽃을  
한생을 바쳐 가꾸는 삶  
그 꽃 영생의 언덕에 활짝 피어  
세월의 비바람에도 지지 않고  
조국의 기억속에 오래오래 필 때  
그의 한생은 영생

너무도 애젊은 나이에  
우리결을 떠났어도  
생을 바쳐 피운 꽃이  
삶의 향기를 풍기고있지 않느냐  
영생의 언덕 주작봉마루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항일투사들

오, 그 누가 한생을  
짧다고 말할수 있으랴  
혁명을 위해 바친 한생은  
영생의 삶 만대로 누리나니  
한생의 길이는 재일수 없는  
삶의 가치

인생이 가는 길엔  
가시밭길 깊은 강 험한 준령  
절해고도가 앞길에 막아선다 해도  
신념의 끈은 길로 곧바로 걸을 때  
그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거니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그토록 못 잊으시던  
주작봉마루의 항일선렬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무명전사들의 참된 삶을 더듬어보라

그 한생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칠 때  
인간의 한생 짧다 해도  
무궁세월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리!



장 기 성

삶의 길우에 력연한 흔적을 남겨준 그런 인간에 대한 추억은 무시로 더듬어지며 마음속에 못내 그리움을 자아내게 한다.

나에게는 한 당일군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이 있다.

1

전쟁이 끝난지 한해가 지났으나 미국놈폭격에 아버지를 잃고 병약한 홀어머니슬하에 울망줄망한 여섯자식이 붙어사는 우리 집 생활형편은 여전히 어려웠다.

식량도 나라에서 주는 대여곡을 받아야 했고 땀나무도 동리어른들의 손을 빌어 해야만 했다.

어머니와 동생들 옷주제 또한 말이 아니었다.

나만은 그래도 말이이고 중학생이라고 아버지가 남기고간 가름옷을 줄여주어 비교적 성한것을 입고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부터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 모르게 자주 울었다.

내가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저리게 띄어본것은 중학교졸업을 앞둔 어느날 밤 잠자리에서였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꿰진 문창호지구멍으로 흘러들어 외로가로 누워자는 우리 형제들을 은은히 어루비쳐주던 그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치락거리었다.

상급학교진학문제가 제기되어 동창생들 대다수가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으로 흥떠있는 때에 그 축에 섞일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서글퍼서였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미국놈이 가증스러웠고 손우가 없이 만이로 태어난것이 또한 한스러웠다.

그렇게 속을 태우다가 어슴푸레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떨어지는것이 느껴졌

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얼굴을 문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그 찰나 머리맡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시선이 맞부딪쳤다.

어머니는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아, 그 눈물방울! 말로 표현할수 없는 그 눈길...

나는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급히 모로 돌아누웠다.

서러움이 와락 복받쳐오른것은 그다음이었다.

그밤에 나는 상급학교진학에 대한 한가닥 미련을 끊어버리고말았다.

다음날부터 나는 학습의욕을 잃어버리었다. 공부시간에 멍청히 앉아있기가 일쑤였고 집에 돌아오면 책보를 방구석에 던지고 나무하러 앞산으로 오르곤 했다.

그때는 졸업시험을 며칠 앞둔 때였다. 하지만 시험을 잘 쳐서 무엇하랴.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니는 가슴 꺼지는듯 한 한숨을 지었울뿐 달래는 말은 하지 못했다. 나를 도소재지로 보내여 공부시킬만 한 힘이 없는 어머니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두번째 수업시간이었다.

종소리가 울려 교실에 들어가니 맨 뒤자리에 어론 한분이 앉아있었다. 검은 눈썹이 유난히 수북하고 등이 휜사 한 40대의 그는 달포전에 새로 부임되어온 리당위원장 박동진이었다.

그는 오른다리를 약간 저는 영예군인이었다.

그는 미소어린 눈길로 우리 졸업반학생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는가 하면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으며 수첩에 무엇인가 적기도 했다.

그는 한껏내내 우리와 함께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교실을 떠나갔다.

그가 가자 우리는 리당위원장이 왜 우리 교실에 와서 세시간동안이나 수업을 받았을가 하고 제 나름으로 추측을 하며 떠들어댔다.

그러나 누구 하나 리당위원장의 속내를 알아맞힐수는 없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알아보러 왔겠으리라는것이 그래도 제일 그럴사한 판단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어느때보다 좀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에없이 얼굴이 밝아보였다.

《명현아, 너도 졸업시험을 잘 치고 상급학교에 갈 준비를 하거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이였다.

(?...)

나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잘못 들은상싶었다.

《이제 협동조합을 못는다더라. 이웃끼리 함께 일해서 일한것만큼 나누어먹는데. 나라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로력자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같은 집도 살아갈수 있다더라. 그러니 넌 상급학교에 가거라.》

《어머니, 누가 그래요?!》

《리당위원장이네이 발에 날 찾아와서 그러더라. 너처럼 머리가 좋은 애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면서...》

《그게 정말이에요? 야!》

나의 입에서는 부지중 환성이 터져나왔다. 가슴이 대뜸 부풀어올랐다.

우리 집뒤에는 그리 높지 않은 동산이 솟아있었다.

나는 무작정 동산으로 치달아올라갔다. 저도 의식하지 못한채 경충경충 뿔뿔기를 했다. 저 하늘에 떠오르는 노을비긴 흰구름우에 뛰어올라 훨훨 날고 싶은 심정이였다.

## 2

나는 도소재지에 있는 사범전문학교에 가기로 했다.

교육자가 되고싶은 꿈이 있어 택한 학교는 아니였다.

그때 사범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어 나는 홀어머니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그 학교를 지망한것이였다. 졸업시험을 전과목 최우등으로 쳤고 상급학교 입학시험준비도 밤을 패며 직심스럽게 했다. 전문학교입학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능히 합격할것만 같았다.

내가 도소재지로 입학시험을 치러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다.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 다시 썩썩하게

흐려졌다. 나를 떠나보낼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옷은 빨아 다렸으니 퇴색한대로 입을만 했고 왕복로차는 어머니가 25리 광산마을장마당에 몇행보하면서 고비며, 송이, 취따위 산나물을 팔아 번 돈으로 빠듯이 났듯 했다. 제일 문제는 신발이였다. 엄지발가락이 쑥 나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도소재지로 상급학교입학시험을 치러 간다는 것은 아무리 신발이 귀한 그때였어도 차마 못 나설 일이였다.

새 신발을 사신을 돈도 없었지만 내 발에 맞을만한 신발이 당장 눈에 띄우지도 않았다. 하는수없이 꿰진 신발을 기워신고 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석유등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며 나에게 말했다.

《어서 자거라. 그래야 새벽에 떠나지.》

심심산골인 우리 마을에서 도소재지로 가려면 25리밖 광산에 내려가 8시에 떠나는 첫 버스를 타야 했다. 그 버스로 100리길을 달려 읍에 들렀다가 다시 250리를 더 가 광산역에 이르러 기차를 타야 하는것이였다.

광산마을에서 오후 3시에 떠나는 두번째 버스는 읍에까지밖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 도소재지로 가려면 우리 집에서 새벽 5시에는 떠나야 했다.

나서 처음 먼길을 떠나게 되는 흥분으로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한여름밤은 길지 않았다.

문밖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온밤 부엌에서 망질도 하고 또 무엇인가 한듯 했다. 나를 떠나보낼 준비인것이다.

아직 정신없이 자고있는 동생들 머리맡을 지나 부엌으로 나가는 사이문을 열려던 나는 그만 무릎 굳어지고말았다.

장난 세찬 동생들에 의하여 승승 꿰진 문창호지 짚으로 울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눈에 띄었기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아궁앞에서 엄지발가락이 나가는 내 온색운동화에 검정색천쪼박을 덧대 기우며 소리없이 붉은 눈물을 짓고있었다.

순간 나의 가슴은 찢릿했다. 코마루가 시큰해나고 눈앞이 확 흐려졌다. 아, 나때문에 어머니는 또 우시는구나. 전번날에는 날 상급학교에 못 보내는 안타까움에 우시더니 오늘은 번듯하게 차려입혀보내지 못해 또 우시누나. 아, 어머니! 웬 눈물이 그리 해피요. 우지 마세요. 남이 보고 비웃은들 뭐래요. 난 일없어요. 꿰진 신발이 아니라 맨발로라도 공부만 할수 있으면 돼요. 어머니가 우시면 나도 눈물이 나요. 나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우시면 난 학교를 그만두겠어요. 어머니—

나는 발끝을 돌려 소리없이 앞문으로 나가 굴뚝

모퉁이에서 한식경이나 멍하니 서있었다.

그 새벽에 나는 어머니가 재간껏 기워준 운동화를 신고 밤도와 만들어준 찰강냉이떡을 도중식사로 배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을 나섰다.

《명현아, 꼭 합격하고 오너라.》

어머니는 내 발끝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갈린 낮은 음성으로 당부했다.

《예, 갔다오겠어요.》

나는 이 한마디를 가까스로 남기고 획 돌아서 강냉이대가 우거진 좁은 길로 부지런히 내걸었다.

《형, 잘 갔다와— 아—》 하는 동생들의 인사말에는 응대도 않고 큰길쪽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어머니마음이 더 아프지 않게 어서 빨리 어머니 시야에서 사라지려는 생각에서였다.

큰길에 나서서야 나는 걸음발을 늦추었다.

여러날째 가물어 행길우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서인지 나의 눈길은 저절로 발치에로 갔다. 그러자 검정색천조박을 동그랗게 오려 덧대기운 퇴색한 끈색운동화가 눈뿌리를 자극했다. 실밥 한뼘 안 보이게 공들여 기운것이었어서 그토록 눈길을 안놓는지 몰랐다.

어느새 먼지발이 뿌옇게 오르기 시작한 신발우에 눈물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히 어려왔다. 이어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뒤편 더 먹고싶어하는 다섯동생들의 얼굴이 한데 어울려 떠올랐다.

아, 나까지 없으면 어머니를 누가 도와줄까. 어머니가 앓을 땐 누가 돌봐주고 동생들 때식은 누가 끊어주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목이 짹 메오며 더는 발걸음이 나가지 않았다.

뜨직뜨직 걸음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길 한복판에 멎어서버리고말았다.

보이지 않는 누구의 아귀센 손이 뒤덜미를 잡아당기는듯 했다.

한편 꼭 합격하고 오라고 당부하던 어머니의 목갈린 음성이 귀전에 울려왔다.

어떻게 할까? 갈까? 돌아설까?

얼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멍청히 서있던 나는 저도 모르는새 길아래편으로 흐르는 개울가예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키높이 자란 나무숲에 싸여 흐르는 맑고 시원한 고향의 내물—두무천에는 군데군데 방아확처럼 패여 소를 이룬 곳이 있었다.

내가 가닿은 곳은 마을에서 퍼그나 떨어져있어 간혹 어른들이나 해염치러 오는 외진 드레소였다.

나는 물가에 퍼더버리고앉아 버들치떼가 유유히 해염치는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판판한 돌등에 벌렁 누워 비취색하늘에 걸려있는 흰구름장우로 마음 달리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날씨가 더워지자 나는 흘러당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흔

자서 해염을 치고 기슭에 나와 해조임을 하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고...

외기러기놀음이라 흥이 나지 않았다.

이로써 나의 상급학교진학의 길은 끝나고말았다.

날이 저물어서야 나는 무슨 죄라도 지은것처럼 동리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타나자 한창 저녁쌀을 일고있던 어머니의 손놀림은 무뎌 굳어져버렸다.

《빠스를 못 탔어요.》

어머니가 묻기 전에 나는 본의 아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내 목소리를 듣고 사이문을 열어제치는 다섯 동생들에게 낮에 먹다가 우정 남긴 찰강냉이떡보자기를 던져주었다.

《노나먹어.》

어머니는 어쩌서 빠스를 못 탔는가 캐어묻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 표정, 행동거지에서 벌써 모든것을 간파한듯싶었다.

어머니는 쌀을 마저 일어 술에 안치더니 그제야 아궁앞에 쭈그리고앉아 설나무가지를 꺾어놓고 있는 나에게 눈을 주며 묻기 배인 음성으로 한마디 했다.

《리당위원장이 너를 꼭 공부시키라고 했겠는데...》

### 3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할 결심을 한 나였지만 싹뚝 호미를 들고 띄약벌아래 나서게 되지는 않았다.

어머니 역시 아직 애젊은 나에게 농쟁기를 들려주고싶지 않아했다.

《날도 무더운데 집이나 보면서 얼마간 놀아라. 이제 일을 시작하면 한평생 해야겠는데...》

나는 어머니말을 좇아 집일이나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어느날 한낮이었다.

점심식사뒤의 식곤이 물려와 나는 토방에 멍석을 펴고 벌렁 드러누웠다.

인차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던지...

그 무엇이 코등을 자꾸 간지럽혀 나의 단잠을 깨게 했다.

나는 눈을 뜨지 못한채 필경 개미가 기어오르는 상싹은 코마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잡히는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손을 떼니 여전히 코등이 간질거렸다.

참아보기도 하고 다시 손으로 코등어리를 탁 때

려보기도 하고... 그러느라니 잠은 멀리로 달아나 버리고말았다.

나는 아쉽게 생각하며 스르시 눈을 떴다.

다음순간 나는 어리벙벙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리당위원장 박동진이 내 머리말에 와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의 오른 손에는 내 코등을 간지럽히던 연한 풀대가 여전히 들려있었다.

《허허, 팔자가 늘어졌군그래.》

리당위원장은 껄껄 웃으며 멍석우에 물러앉았다.

벌떡 일어나앉은 나는 멧적어져서 공연히 뒤더수기로 손을 가져갔다.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겠다는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대낮에 잠이나 자서야 곡식이 자라겠나.》

리당위원장은 여전히 얼굴에 웃음발을 띠고있었으나 빈정대는 투로 말을 건네왔다.

《...》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목덜미를 붉히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일을 꽤 해낼것 같아?》

그 소리는 나를 앞잡아 시까스르는 기미가 력연한것이였다.

슬며시 기분이 언짢아올랐다. 피, 남 다 하는 농사일을 나라고 못할가 하는 반발심이 솟아올랐다.

《요즘 공부는 뭘 하나?》

리당위원장이 또 물었다.

공부라니, 상급학교를 단념하였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 묻노니 대답 궁한 소리만이여서 나는 여전히 입을 봉한채로 있었다.

《꿀떡은 병어린걸 보니 책하군 담을 쌓은 모양이지. 난 그래도 전문학교를 지망했다기에 명현이한테 어떤 뜻이 있는가 했는데 이제 보니 고무풍선이였구만.》

그 고무풍선이라는 소리에 약이 올랐다.

모욕감이 온몸을 지지였다. 그러면서도 반발할 소리가 없는게 더 화가 났다.

아무 소리든 한마디 내쏘아야 속이 내려갈것 같았다.

《일을 해도 공불 해도 내 마음 먹기에 달린건데 괜한 참견 마십시오.》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솟는것이였다.

그러나 입밖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마을에 온지 오래지 않은 리당위원장과 단 둘이 마주앉아 이야기해보기도 처음인데다가 리당위원장이라는 그 직제가 자못 엄엄하게 느껴지기때문인듯 했다.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훈장을 많이 탄 군관이며 영예군인이라는데서 품어온 존경심이 또 한 나의 반발을 억제한듯싶었다. 리당위원장이 나

를 공부시키라고 우리 어머니를 설복시켰었다는 인식이 나의 감정을 달랬는지도 몰랐다.

리당위원장은 나에게서 무슨 대답을 기다리듯 지긋게 나를 마주보았다. 그 눈길에 놀리워 나는 눈을 들수 없었다.

그때 리당위원장의 두눈은 웃고있었지만 모욕감으로 열이 오른 나는 그것을 알수 없었다.

이윽하여 리당위원장은 자리를 일어 우리 집 허청간이며 나무난가리주위를 말없이 돌아보았다.

그런 다음 떠나가며 이런 말을 남겼다.

《에, 말할 재미가 없어 가겠다. 학교선생이 명현이한테 글짓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책도 많이 읽고 말도 잘하는가 했더니 영 아니로군.》

나의 부아를 한층더 돋궈주는 소리였다.

나는 리당위원장의 고르지 못한 발자국소리가 저쪽으로 찾아든지 오래도록 토방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 4

나에게 약을 바싹 올려준 리당위원장의 말마디들 특히 그가 우리 집을 떠나면서 남긴— 나에게 글짓는 재능이 있다고 한 소리는 서서히 뇌리에 새겨져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사실 나는 학교과정에 문학에 취미를 두고있었다. 학교도서실책을 적지 않게 읽었고 글짓기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곤 했었다.

이에 대하여 리당위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던진 말은 나에게 자신의 취미를 되새기게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학수업을 해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리당위원장이 다녀간 그 이튿날에 우리 집으로 학교 문학선생님이 찾아왔다.

선생님은 책을 여러권 가지고왔는데 주로 작가수기들과 문학청년들을 위한 참고서, 소설, 희곡집들이였다.

선생님은 생활이 창작의 어머니라는데 대하여, 농민출신의 어느 작가의 경험에 대하여, 내가 아직 읽지 못한 작품들에 대하여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해주었다.

선생님의 그 말과 그가 가져다준 책들의 내용은 나의 문학수업의욕을 한층더 북돋아주었다.

나는 다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학교도서실책을 한아름씩 빌려다가 밤을 패워가며 읽고 또 읽었다. 웬만한 부피의 중편소설은 하루에, 장편소설은 이틀에 한책씩 읽어치웠다. 소설, 시, 희곡, 평론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읽었다. 작품에 그려진 다양한 생활세계에, 각종 인물들의 매혹적인 성격에 심취될수록 나도 그런 작품을 써보고싶은 의욕이 솟구쳤다.

일이 될 때라 그무렵부터 리소비조합상점에서 위탁책매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상점에는 책임자이자 판매원으로 서영복이라는 아바이가 있었다.

그는 보름에 한번씩 소달구지를 끌고 읍으로 상품을 실으러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읍책방에 들러 새로 나온 책들을 받아다가 팔아주는 것이었다.

도서보급은 소비조합상점에서 할일이 아니며 책 몇권씩을 위탁판매하는데서 수입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학구심 있는 마을청년들을 위해 아바이스스로 그런 부담을 걸려진 듯 했다.

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책에 미치다나니 간혹 집일과 어머니를 돕겠다면 나의 결심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 악스레 마음을 건장군 했다.

교박 두달동안을 나는 책에 묻혀 살았다. 머리 깎는 것마저 잊고 더부룩해서 지내는 때가 드문했다.

가을걷이때에만 어쩔수없이 책을 놓아야 했다. 그때도 밤에는 등불밑에 책을 펴들었지만 피곤하여 몇줄 안팎에 었던채로 잠들고말았다.

집집에서 난알릴기가 속속 끝나가는 때에 우리 마을에도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우리 집은 선참으로 조합에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나의 이름도 조합원명부에 기입되었다.

아침마다 우리 집 뒤동산의 가래나무에 매단 포탄각지종이 땡땡 울리면 각이한 나이의 조합원들이 선전실앞마당에 모여들어 하루일을 의논한 후 밖으로 나가곤 했다.

나는 드문히 조합일에 결근을 했다.

새로 읽기 시작한 소설이 재미있어 손에서 놓기 싫을 때는 일을 나가지 않았다. 갓 일을 시작한 내가 측은하여 어머니는 기꺼이 승낙해주곤 했다. 동리 어른들도 내 또래 풋내기조합원들이 결석하는데 대해서는 관후하게 대하였다.

나는 학교도서관과 교원들의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읽는데 이어 25리밖 광산도서관에 찾아가 호소하여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다.

광산도서관에서는 규정상 한꺼번에 많은 책을 주지 않는터여서 한주일이나 열흘에 한번씩은 그곳을 다녀와야 했다.

왕복 50리길을 걸고나면 그 다음날 아침은 일어나기 빠근하여 늦잠을 잤다. 그리고는 온 하루 책을 읽었다.

그러나나 나는 열흘에 이틀씩, 때로 조합적인 휴식일이 끼인 때에는 사흘씩을 집에서 보냈다.

소한머리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민청초급단체총회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이미 보기 시작한 소설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선전실로 갔다.

우리 마을에는 청년들이 많았다. 갈노전 열장을 칸 작지 않은 선전실은 이미 민청원들로 꽉 차있는

데 키낮은 책상을 놓은 집행석에는 민청초급단체위원장과 함께 리당위원장이 앉아있었다.

총회안건은 조합의 첫 영농준비작업에서 민청원들이 앞장설데 대한 문제였다.

회의안건을 통과시킨데 이어 초급단체위원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조합을 무어 첫째농사를 잘 짓자면 무엇보다도 거름이며 소농기구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영농준비의 필요성과 의의를 언급한 초급단체위원장은 조합원에서 모범적인 민청원들의 이름을 들어 소개해나갔다.

회의장 한쪽구석에 앉은 나는 보고를 듣는동안 등 하며 희미한 등불에 비쳐 소설책을 계속 읽고있었다.

사춘기청년들의 우정과 사랑의 감정을 그린 중편소설이었다.

한마을 아래웃집에 살면서 서로 각별히 위해주고 때로 다투기도 하던 사이의 녀동무가 부모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처녀가 자기 가슴속에 얼마나 소중히 새겨졌는가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애젊은 청년의 허전하고 안타까운 심리가 짙게 그려져있었다.

나으로 보나 호상 감정적전제로 보나 사랑을 고백할 정도가 못되면서도 마음이 달떠 한밤중에 처녀의 집주위를 빙빙 돌고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내가 피씩 웃음을 지을 때였다.

문득 내 이름소리가 고막을 자극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회의참가자들의 눈길이 나에게 집중되고있는 속에 선전실 한가운데서 일어난 토론자가 나를 비판하고있었다.

토론자는 나보다 한해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는 선길이라는 민청원이었다. 그는 손세를 써가며 어성을 높이고있었다.

《...명현동무의 사고와 행동은 민청원답지 못합니다. 온 나라가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때에 일하기 싫어하면서 책만 끼고다니고... 건달군의 머리에 든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없습니다.》

(뭐라고, 일하기 싫어한다고? 내가 건달군이라고?...)

온몸의 피가 정수리로 치달아 물리는듯 했다.

나는 불이 이는 눈으로 선길이를 쏘아보았다.

나는 일하기 싫어서 조합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사정으로 상급학교에는 못 갔지만 어떻게나 공부를 하자고 한다, 네가 쿨쿨 자는 시간에도 나는 책과 씨름을 하고있다, 나는 건달군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치고싶었으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수도 입을 열수도 없었다. 선길이가 엄연한 사실을 말하고있기때문이었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집행석에 있는 리당위

원장에게로 향해갔다. 그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두둔해주는 말을 해줄듯싶어서였다. 나에게 문학적 소질이 있다는것을 깨우쳐주고 뜻있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귀뜸해준 사람이 바로 리당위원장이 아닌가.

하지만 리당위원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선길이의 토론을 긍정해주는듯 했다.

아, 나를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엇그제 중학교를 나온 애송이조합원의 남다른 지향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여기에 없다. 나는 민청회의가 어떻게 언제 끝났는지 몰랐다.

남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 나도 따라일어나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며 집으로 향했다.

분했다.

야속했다.

그밤 나는 잠들수 없었다.

## 5

나를 비판한 선길이에 대한 반발이, 나의 지향을 이해할줄 모르는 민청원들과 리당위원장에 대한 야속함이 나를 조합일에 분발시켰다.

민청회의가 있는 다음날부터 나는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

그러느라니 어디 앉으면 온몸이 노그라들고 자리에 눕기만 하면 인차 잠들어버렸다.

책을 불과 몇페이지 읽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더구나 문제로 되는것은 광산도서관에 갈수 없는것이였다.

그래 두루 궁리하다가 나는 광산마을에 가서 실어오는 진거름소달구지를 몰기로 작정했다.

나의 청에 작업반장은 일순 의아해했다. 아직 애송이청년인 나에게 황소를 부리게 하는것도 미덥지 못했지만 역한 냄새를 풍기는 진거름달구지를 끄는일이어서 시켜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일을 내가 자청했기때문이었다.

나의 타산은 이러했다. 광산마을까지 가는데 25리, 돌아오는데 25리니 왕복 50리길을 책을 읽으며 가고올수 있다. 그러니 온종일 독서할수 있는 시간을 얻어내는셈이다. 광산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 조직된 가내거름생산분조원들이 진거름을 실어주니 그 시간에 광산도서관에 다녀올수 있다. 진거름에서 나는 냄새는 달구지에서 좀 멀찌기 바람방향을 고려해서 걸으면 될것이고 광산마을에서는 소를 몰면서도 오가는 사람들속에 섞여 걸으면 누가 소달구지군인지 모를것이니 먼구스름움도 이겨낼수 있을것이다....

작업반장은 거듭 나의 결심정도를 타진해보고서야 소달구지를 넘겨받게 해주었다.

내가 소달구지를 몰고 광산마을로 떠날 때 앞쪽으로 삐죽 나온 황소의 뿔을 걱정스레 여겨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있었다.

산기슭 자드락밭을 에돌아 굵이굵이 뻗어간 신작로로 덜컥 소리를 내며 느적느적 굴러가는 소달구지 한옆에서 책에 온 정신을 팔며 걷고있는 애송이청년, 때로 돌부리에 걸쳐여 앞으로 꼬꾸라질번도 했지만 인차 몸을 가늠하고 다시 책줄에 눈길을 쏜다. 어떤 때는 소가 길가의 풀을 뜯느라 멈춰선것도 모르고 저 혼자 한참 내걸다가 무춤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어처구니없어 웃는 청년— 그는 나였다.

그렇게 한행보 하고나면 다리는 빠근했지만 웬간한 책 한권쯤은 능히 읽을수 있었으니 나는 그 일을 기꺼이 계속했다.

하루 또 하루...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나 조합적인 휴식일이 아니고서는 매일과 같이 소달구지를 몰고 광산마을을 다녀왔다.

진거름소달구지를 몰면서 제일 낮 뜨거울 때는 두가지 경우였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광산마을길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에 길을 띄여주기 위해 소고삐를 잡지 않을수 없는 때와 상급학교모표를 단 중학동창생들을 진거름달구지옆에서 만나는 때였다.

그 누가 멸시의 눈길을 보내는것도 아니고 값죽은 동정의 소리를 하는것도 아니였지만 어쨌든 못할 일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눈길들이기가 거북한것이였다.

한여름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하늘이 흐려드는것으로 보아 비가 내릴상싶었다.

소달구지를 몰고 광산마을을 벗어난 나는 《이랴! 이랴!》 소를 다몰아댔다. 우장을 준비해오지 못한터여서 큰 비가 쏟아지면 광산도서관에서 빌려가는 책들을 적실수 있었다. 내 몸뚱 젖는것은 녀려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보던 책을 마저 읽을 생각도 단념하고 축내야 할 앞길과 흐려드는 하늘을 번갈아 살피며 소를 재촉했다.

그렇게 뒤편장 걸었을 때였다.

늘 바람이 세차 재작뒤라고 부르는 굵인돌이를 돌아서는데 저 앞쪽에서 리당위원장이 상급학교에 간 나의 동창생들 3명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내려오는것이 눈에 띄였다.

나는 저도 모르는새 무춤 멈춰섰다.

마음이 당황해났다. 동창생들을 만나고싶지 않았다. 운두늬는 모자에 고급중학교모표를 단 그들의 처지가 부럽던 나머지 시샘이 나고 그만큼 내가 하

는 일이 천한것으로 느껴져 그랬던상싶다.

나는 섰지만 미물같은 소는 계속 전진했다.

됐다. 멈춰세우지 않는 한 소는 계속 갈것이다.

나는 강냉이밭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동창생들이 소달구지와 어겨 빨리 멀어질것을 바라며 나는 행길보다도 더 무더운 강냉이밭고랑으로 살금살금 전진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가뜰이나 땀에 떠있던 온몸이 물참봉이 되는듯 했다. 가슴이 후두둑거렸다.

내가 왜 이러나,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우리 집형편이 곤란한것이 뭐 죄인가. 머리들고 뿔뿔이 그들과 만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머저리짓을 해.

리성은 이렇게 꾸짖었으나 감성은 여전히 숨박꼭질을 계속하게 했다.

그렇게 한식경을 전진한 나는 그만하면 그들이 달구지와 어겨 굶은돌이로 사라졌으리라 생각하며 신작로가로 나섰다.

그런데 소달구지가 올라와있지 않았다. 강냉이밭속으로 내가 걸은 속도가 결코 소의 걸음보다 빠르지 못했은즉 소달구지는 이미 와있어야 했다.

얼마간 더 기다렸으나 소달구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놈의 소가 오는 도중 풀을 뜯고있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한걸음두걸음 되짚어내려갔다.

그때 《영싸! 여이싸!》 하는 여럿이 함께 힘쓰는 목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

불길한 예감이 대뜸 나의 온몸을 감쌌다. 몇걸음 더 내짚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고 말았다.

소달구지 한쪽바퀴가 길가 도랑창에 빠져 거의 뒤집혀진것을 리당위원장과 나의 동창생들이 뿔아내고있는중이었다.

벌써 어지간히 신고를 한듯 옷등을 벗어붙인 그들의 온몸은 땀에 떠 번들거려였다. 빠진쪽 바퀴앞석축은 이미 허물어져있었다.

《자, 다시 한번. 여이싸!》

리당위원장이 빠진쪽 달구지바퀴를 어깨로 떠밀며 소리를 쳤다.

《여이싸! 여이싸!》

동창생들이 리당위원장을 따라 안간힘을 쓰며 숨가쁜 소리를 내질렀다.

한명은 길우에 놓은 바퀴가 뒤로 굴지 않게 번치고 리당위원장과 다른 두명만이 빠진쪽을 떠밀다나니 무거운 진거름달구지는 쉬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이 모자랐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지 못하였다. 수치감과 죄의식이 내 발을 한자리에 못박히게 한듯싶었다.

일은 내가 저지르고 고생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그들을 훑쳐보고만 있는 나의 온몸에서도 진땀이 흘렀다.

얼마후 나는 강냉이밭속으로 다시 들어가 살금살금 도적고양이걸음으로 달구지 있는 곳을 향해 접근해갔다.

내가 그곳 바투로 다가갔을 때는 리당위원장과 동창생들이 이미 달구지를 길우에 밀어올리고 허물었던 도랑석축을 다시 쌓는중이었다.

《자, 그만 손들을 씻고 먼저 가보라구. 뺄스시간 늦겠소.》

리당위원장이 동창생들에게 거둬 권고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읊으로 나가는 오후 3시 뺄스를 타러가는 길이었던것이다.

《리당위원장동지는 안 가구요?》

《음, 내 인차 뒤따라가지. 자, 빨리!》

리당위원장이 다시 재촉했으나 동창생들은 도랑석축을 다 끝내고서야 일손을 털었다.

나는 그들에게 끝없이 미안했으나 여전히 나서지 못하였다.

어서 빨리 그들이 떠나주기만을 바랐다. 했으나 리당위원장은 동창생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소달구지옆에 남는것이였다. 소가 길옆의 풀을 뜯어먹다가 다시 달구지를 빠뜨릴가 넘어져여 못 떠나는듯 했다. 그는 소달구지의 주인을 찾는 모양아래우를 휘둘러보았다.

이제 좀더 그러다 가겠지. 뺄스시간이 박두해오니까.

나는 손목시계가 없었으나 룩감으로 오후 3시경이 다 돼오고있다는것을 가늠하며 리당위원장이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달구지옆을 떠날줄 몰랐다.

쉬이 떠날 기색이 아니였다.

리적으로 광산마을에 나드는 진거름소달구지가 몇대밖에 안되어 리당위원장은 소만 보고도 부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으리라는, 그러니 그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있다는데 생각이 닿자 나의 속은 더욱 송구하고 불안해났다.

에라, 이왕 일을 저지른바에야 끝까지 버텨보자, 나는 강냉이밭고랑에 궁둥이를 붙이고앉고말았다. 시간이 흘렀다. 강냉이잎사이로 올려다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져갔다.

비가 오리라는, 책이 젖으면 야단이라는 초조한마음이 자리를 뜨지 않는 리당위원장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으로 번져갔다.

끝내 내가 지고말았다. 3시가 이미 지난듯 한데도 리당위원장이 움직이지 않기때문이었다.

그는 뺄스타기를 단념하고 나를 기어이 만나려고 하는것이였다.

설상가상으로 비꽃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강냉이대를 헤치고 리당위원장앞으로 나



갔다.

이제 리당위원장이 무섭게 꾸짖으리라는 예감에서 나의 온 신경은 팽팽히 긴장되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으로 얼굴이 마구 뜨거워났다. 자연히 호흡이 가빠올랐다.

《...》

《...》

리당위원장은 침묵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의 눈빛이 어떠했는지 나는 마주보지를 못하였다.

《...》

《...》

침묵속에 비방울이 잦아졌다.

《자, 고삐를 받아.》

얼마후에야 그가 한 첫말이었다. 예상외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어딘가 갈린 소리인듯 했다.

내가 소고삐를 받아줘자 그는 말을 이었다.

《명현이, 그렇게 창피한 일을 왜 자진해말았나?》

《...》

《뜻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떳떳이 머리를 들고 사는 법이야. 주위를 굽어보며...》

《...》

《자기 생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 상급학교에 간 너희들은 공부만 하지만 나는 나서자란 고향땅을 땀흘려 가꾸면서 공부를 한다 하고 생각하라구.》

《...》

《그릇이 커야 담는것도 많은 법이야.》

그는 그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잠시 더 나를 바라보는듯 하더니 돌아서 광산쪽을 향해 걷는것이였다. 이제는 뺄스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는 읍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였다.

그의 불균형적인 발자욱소리가 멀리로 사라진지 이윽해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된비판을 예감하여 한껏 긴장해졌던 마음이 졸지에 쉽게 풀려서인지 온몸이 나른해났다.

그러자 느닷없이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며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나도 상급학교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진거름소달구지를 몰며 창피를 느끼지 않아도 될텐데...

아버지— 내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어머니한테는 말 못해요. 그러지 않아도 눈물이 헤론 어머니인데 내가 서글퍼하면 또 우실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흐흑!...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길우여서, 굵은 비발이 내 눈물을 가리워주어서 나는 꺼리낌없이 소리내어 울었다.

《이라!》

나는 눈물섞인 목소리로 소를 물었다. 울며 소를 물었다.

그런 속에서도 광산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젖을 가봐 겨드랑이에 꼭 끼고 걸었다.

## 6

며칠이 지나서였다.

작업반장이 나를 찾더니 진거름소달구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하는것이였다.

《건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썩 마음싸서 하는 일이 아니였지만 그 일을 자청할 때 의도한바가 있었으므로 선뜻 내놓고 싶지 않았다.

《그 일을 나이트 조합원으로 바꿔하게 하도록 리당에서 의견이 있었다.》

《리당에서요?》

불현듯 얼마전에 소달구지를 빠뜨렸던 일이 되생각키우며 내가 미덥지 않아 리당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주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광산도서관에 있는 보고싶은 책들을 다 본 다음에는 그 일을 더하라고 사정해도 그만둘 작정이였었지만 제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인식이 나의 속을 언짢게 했다.

《너같이 농사일을 갖 시작한 청년들은 나이트 사람들속에서 함께 일하며 착실히 배우라는 거다.》

작업반장의 그 말은 나의 기분을 더욱 흐리게 만 들었다.

흥, 언제인가는 나보고 뜻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더니 이제 와선 착실한 농사군으로 만들 생각밖에 없는 모양인가.

나는 리당위원장에 대한 고까운 감정을 어찌는수 없었다. 그 감정은 나날이 더 굳어져만 갔다.

그것은 민청초급단체의 월분공으로 내가 창작한 재담이 리당위원장한테서 부결되고 따라서 조직적 분공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비판을 받았기때문 이였다.

가을걷이전투를 다그쳐끝낼데 대한 재담창작분공을 나는 처음부터 달갑지 않게 접수했었다.

민청초급단체에서 창작분공을 주는 자체가 가당찮게 느껴졌고 또한 나는 남모르게 희곡을 한편 습작하고있는 때였다.

그러나 조직적분공이니 어찌는수 없어 이를밤 시간을 바쳐 재담을 써 제출했다.

초급단체위원장과 년초에 나를 비판한적있는 선길이란 몇몇 민청원들이 돌려보고 의견들을 제기하는것을 나는 별반 귀담아들지 않았다. 저들이 뭐아는게 있다고, 의견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저들이

쓸것이지, 나는 원고를 그대로 예술소조에서 형상 하든가 아니면 더 잘 쓸 능력이 나에겐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써우라고 주장했다.

그 재담원고가 리당위원장에게 가게 되고 그로부터 민청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다 옳은것 같으니 재담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나왔던것이였다.

울며 겨자먹기로 재담원고를 다시 쓰며 나는 속으로 리당위원장을 경원했다. 민청초급단체에서 주는 분공에까지 참견하여 나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창작분공을 받을 때부터 원고수정완성과정이 이러하였으므로 그후 재담이 공연되어 조합원들로부터 반영이 좋을 때에도 나는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였다.

재담때문에 보름나마 밤시간을 소비한 나는 희곡 창작을 계속했다.

시작할 때엔 단막으로 예견했던것이 써나가는 과정에 중막모양을 갖춰나갔다.

우리 고향의 두무덕이라는 해발고 높은 산상을 개척하여 수집정보의 부침표를 얻어내는 내용을 담은, 전적으로 꾸민 이야기였다.

나는 극적인 사건을 꾸며내느라고 그런 설정을 했고 한편 그 두무덕도 무용지대로 버려두지 말고 유용하게 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의 주장도 없지 않았다.

《여기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내 조국의 한 부분이요!》

이렇게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나는 소리쳤다.

그럭저럭 초고는 다 썼는데 한번 쪽 판통하여 정리하자니 사색을 지속할수 있는 통시간이 필요했다. 삼사흘만 통시간이 있으면 팬찮은 희곡으로 완성시킬상싶었다. 그다음에는 전국문예작품현상모집에 투고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마련할것인가.

아무런 리유없이 며칠간 일에서 빠지면 전처럼 또다시 문제가 설것이다.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결근하기는 량심이 꺼려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시간을 얻을것인가.

두루 궁리하던 나는 누구나 다 좋게 평가하는 작업반장의 후한 인정에 사실대로 호소하리라 작정했다.

그러나 마음 무던한 작업반장아바이도 나홀이라는 나의 요구에 선뜻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어떻게 한다?》

작업반장이 난감해하며 거듭 뇌이는 소리였다.

《...》

《조합규정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좋으면서도 매우 고지식한 반장이였다.

그는 한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말을 이었다.

《내 관리위원회에 가서 토론히 알려주지.》

반장과의 대화는 나를 실망케 했다.

조합관리위원회로 말하면 농사일을 책임지고 주관하는데인데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며칠씩 시간을 떼여줄리 만무하지 않는가.

밤잠을 안 자고 휴식일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서 원고를 정리하는 수밖에...

비라도 한 이를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 저녁이였다.

우리 집으로 찾아온 작업반장의 입에서는 뜻밖의 희소식이 울려나왔다.

《승인됐다. 래일부터 글을 써라. 그사이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많은 일을 했는데 쉬는셈치고...》

《?!》

나의 청이 관리위원회에서 선선히 수락된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의도가 실현되어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밤부터 나는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 7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사흘을 거의 뜬눈으로 지냈으나 원고는 절반도 정리되지 못하였다.

점차 흥분이 사그라져갔다.

주인공의 성격에 공감미가 덜해지고 초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선이 뻗어나가는 것이였다.

조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날자는 하루밖에 남지 않아 끝을 볼 가망이 없어져갔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였다. 팬히 소문만 내고 아무런 결실도 못 거두는것이 아닌가.

나는 답답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기분을 전환할 목적으로 밖으로 나섰다.

남들이 다 일하는 때에 조합원이 방안에 들어왔아 글을 쓰고있다는 미안한감이 나를 멀리로 나갈 수 없게 했다.

고작 마당가에 나가 섰는데 우리 집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산경사지밭에 거름을 저올리는 우리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나는 그들의 눈에 띄일까봐 저어하며 방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조합원들속에 끼여 두엄질통을 지고 있는 리당위원장의 모습을 일별하고 그 자리에 굳어졌다.

다리가 불편한 리당위원장이 두엄질통을 지다니, 평지도 아닌 경사지에서...

그러다 상한 다리가 말뼉을 일으키면 어찌자구, 조합원들은 왜 말리지 않을가.

나는 불시에 영예군인인 리당위원장에 대한 동정감을 금할수 없었다.

다음순간, 리당위원장이 내가 왜 일을 안 나오는

가에 대해 물으리라는데 생각이 가달았다.

대뜸 속이 켜기였다. 그가 지금 내 일을 안다면 조합원이 농사일에 안 나오고 글은 무슨 글이냐고 문제를 세울것 같았다. 그는 농사일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리의 리당위원장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요구하는것이 옹당하기도 하다. 아참, 그는 왜 나에게 불리한 때만 나타나는것일까.

나와 함께 지내는것이 아니지만 나의 일거일동, 생각에 이르기까지 늘 앞지르며 제약하는상 싫었다.

나는 쫓기듯 집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다시 마주앉았지만 좀처럼 작품의 세계에 잠기게 되지 않았다.

다리를 저는 리당위원장이 두엄짐을 지고 경사지 밭으로 오르는 모습이 원고지우에 어려오며 사색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렸다.

나는 애써 사색을 모으려 했지만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며칠간 시간을 받은것은 작업반장을 통해 관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은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했지만 가슴속에 불안은 더욱 짙어만 갔다.

《에이, 안되겠군.》

나는 제깅에 화를 내며 뒤로 벌렁 나가눕고말았다.

도배한지가 오래되어 시누렇게 황이 든 천정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렇게 누워있을 때였다.

《집에 누가 있나?》 하는 귀익은 목소리가 토방에서 울리었다.

문을 벌럭 열어보니 소비조합상점 책임자 서영복 아버지가 와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책이 몇권 들려있었다.

《야! 무슨 책입니까?》

나는 와락 달려나가며 책을 받아들었다. 《성구속담집》, 《희곡창작수업》, 또 한 책은 《종합평론집》이었다.

《모두 귀한 책들이구만요!》

《요즘 몹시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지. 책 사러도 움쩍 안하는걸 보니.》

《예, 저 좀,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난 당적분공을 수행하는것밖에 없네.》

《?》

《리당위원회에서 나에게 리내 주민들의 생활필수품과 함께 명현이네의 공부를 도와주라는 당적분공을 주었네. 그래서 책매대를 내왔지.》

《그래요?!》

《음, 어제 새책을 가지고와서 리당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 책들은 꼭 명현이한테 주라더

군.》

《?!》

그러니 소비조합상점에 책매대를 내온게 리당위원장이 시켜서 한 일이란 말인가. 리당위원장이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돌려줄까. 민청회의에서 내가 호된 비판을 받을 때 나의 지향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을 긍정해준 그가 아닌가. 진거름소달구지를 빠뜨렸다고 그 일에서마저 나를 떼게 하고... 오직 나를 일 잘하는 농민으로 만들려는것이 아니었던가...

어쨌든 새책을 볼수 있게 해준 그가 고맙게 느껴졌다.

리당위원장에 대한 상념이 꼬리를 물수록 그가 일에 안 나간 나를 두고 뭐라고 할것인가 하는 우려감이 더해만 갔다.

이 우려감을 더 굳혀준것은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온 어머니였다.

《리당위원장이 네가 농사일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묻더라.》

《...》

나는 웅대없이 어머니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리당위원장이 그 불편한 다리로 거름짐을 지는게 보기 딱하더라.》

그만두래도 듣지 않는구나. 본인은 일없다고 하지만 힘겨워하는것이 눈에 알려. 아마 조합적으로 우리 작업반 거름내기가 제일 떨어져 그러는가보다. 그래 우리는 여느때보다 더 부지런히 거름을 날랐다.》

어머니는 뭐라고 더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 나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점심식사를 하는등마는등 하고 작업반장을 찾아갔다.

《반장아버지, 난 오늘 오후부터 일 나가겠습니다.》

《아니, 벌써 다 끝냈나?》

《아니요, 아직 못 끝냈지만 밤에 짹짹 쓰겠어요. 조합원들한테 죄스러워서 글이 안돼요.》

《원, 사내자식이 속통이 그렇게 작아서 무슨 큰일을 치겠니. 다 토론이 있어 시간을 준건데 괜한 걱정을... 군말 말고 끝을 봐라.》

《아니, 일하겠어요. 리당위원장까지 와서 거름짐을 지는걸 보니 우리 작업반이 제일 뒤떨어진 모양인데 내가 지금 무슨 놀음을 하고있는지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에게 시간을 보장해준 반장아버지립장도 딱해지고요.》

《...》

작업반장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작업반이 제일 뒤떨어져서 리당위원장이

# 원호고개 싸리꽃

오 정 로

고개길 굽이굽이  
하얗게 핀 싸리꽃은  
싸움의 날 포탄상자 이고진 너인들  
위장풀 꽃앰던 그 모습 못 잊어  
푸른 숲이 수놓은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숲속에 흔들리는 꽃가지들은  
주먹밥 해이고  
깊은 밤 어둠헤쳐  
길을 열어 흔들던 그 흰수건인듯  
솔바람에 저렇게 나뭇기는것 아닌가요

오늘도 원군길 이어가는  
원군집 막내딸 나에게는  
숲속에 언뜻언뜻 보이는 저 싸리꽃이

준엄한 날 이 고개넘던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건뭇 불어오는 바람결에도  
목이 메게 풍겨오는 꽃향기는  
마을에서 초소까지  
오늘도 끊기면 숨지는 피줄기여서  
내 걸음에 박동을 더해주는  
50년대의 숨결입니다

아, 전화의 날 포화속에서  
그 이름 훈장처럼 달고솟은 《원호고개》  
고개길 따라 피어난 싸리꽃은  
내 가슴속에서  
한송이도 지지 않습니다

와서 일하는게 아니다. 너에게 글쓸 시간을 주도록  
의견을 준 사람도 바로 리당위원장이다.

조합일이 바빠도 명현이와 같은 청년들의 희망  
을 꽃피우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조합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현이대신 자기가 조합일을 해  
주겠다고 했다.

내가 만류했지. 명현이대신 일해주지 않아도 농  
사일이 틀려질것이 없으니 제발 그만두라고. 그러  
나 어디 듣더라구.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 당일군  
의 본분이니 본분대로 일하면서 명현이 뛴도 대신  
하겠노라지.

낮에는 그렇게 조합일에 참가하고 사무처리는 밤  
늦게까지 하는가보더라. 리당사무실에 새벽까지 불  
이 켜져있거던.》

(아!)

작업반장의 말마디들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  
려주었다.

아, 우리 리당위원장! 나의 취미를 제발시켜 뜻  
있게 살도록 추동해주고 말없이 뒤받침해주는 고  
마운 사람!

그제서야 나는 중학교졸업후 1년여의 내 생활을  
리당위원장과 톤판시켜 한줄로 꿰어보며 내 삶의  
길위에 찍혀진 뚜렷한 그의 자욱을 보게 되었다.

생활에 발을 붙이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속에  
성실한 인간이 되도록 나를 깨우쳐주고 땅냄새풍기  
는 실농군들속에서 살며 고향땅에 바쳐지는 그들  
의 말없는 진정을 글에 담을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

람—박동진리당위원장!

참으로 그는 농사일과 농민들의 생활만이 아니  
라 매 사람들의 꿈과 지향도 소중히 여기고 성공에  
로 이끌어주는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당조직의 참  
된 일군이였다.

내 가슴속 충격은 말할수없이 컸다.

나는 그 길로 오후 거름내기를 하게 될 분조발  
으로 나갔다.

질통은 우정 지고 나가지 않았다.

필경 오후에도 일하러 나을 리당위원장의 질통을  
빼앗아지기 위해서였다.

그후 나는 극작가로 자라났다.

산골중에서도 벽촌인 우리 고향에서 이름있는 예  
술인, 연구사, 의사 등 유능한 일군들이 많이 자  
랐다.

이들모두는 20여년을 우리 고향에서 리당비서로  
사업해온 박동진동지의 지지와 후원속에서 자기 재  
능의 싹을 자래워 활짝 꽃피운것이였다.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는 재능의 뒤에는 언제나  
이런 당일군들이 서있는것이 아닌가!

물론 고향사람들 대다수는 조상의 땅에 뿌리내리  
고 실농군이 되여 일하고있다. 그 시절 나를 비판  
하며 도와주던 선길이는 지금 관리위원장으로 사  
업하고있다.

주체77(1988).

# 무도는 영웅도

## 박 문 일

그 옛날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물과 멀리 떨어져있는 섬  
사람들 발걸음조차 먼곳이어서  
이름도 무도라 지었답니다

갈매기도  
깃들이기 외로워  
물로 훨훨 날아가는 섬에  
조국의 관문초소 섬을 지켜  
우리의 병사들이 산답니다

원수님 뵈고싶을 때면  
머나먼 평양하늘 우리러  
그리움의 노래 부르고부르던 병사들  
원수님을 뵈고싶고 모시고싶어도  
원썬놈들 지척인 이 섬으로 오시지 마시라  
원수님안녕을 바라는 노래가  
파도소리로 된 무도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힘한 파도를 헤치며  
병사들 있는 곳 그 어디이던  
최고사령관이 꼭 가보아야 한대시며  
사나운 8월의 배길을 열고  
사나운 3월의 풍랑을 헤쳐  
최고사령부의 지척인듯 오시였습니다

오시여선  
병사들 걷는 초소길도 걸어보시고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포병들도 만나 손도 따듯이 잡아주시고  
위훈세운 포도 만져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병사들의 위훈은  
원수님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  
병사들 날린 포탄은  
원수님 채워주신 멸적의 불벼락  
병사들이 다루는 포는  
원수님 안겨주신 선군의 보검

그날  
원수님께선 오시였습니다  
병사들의 위훈 빛내주시려  
병사들의 가슴에 멸적의 불을 안겨주시려  
병사들의 모습  
온 세상에 자랑높이 빛내주시려

그날  
원수님께선 주시였습니다  
어제날 이름없던 섬 무도를  
온 나라가 다 알게  
무도영웅방어대 값높은 칭호를  
영웅포의 빛나는 칭호를

아, 어제날 이 나라에 이름없던 섬  
오늘은 온 나라에 이름떨친 섬  
무도는 영웅도  
우리 조국 앞가슴에 번쩍이는  
금별메달인양 빛나고있습니다

# 건설자의 선언

## 전 수 철

또 한층 방금 총막을 덮은  
수도의 살림집건설전투장에  
격동된 방송원의 목소리  
성전으로 부르는 소식마냥  
분노의 포성인양 건설장에 울린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이가 갈린다  
치가 떨린다

실전핵타격연습도 모자라  
우리의 존엄 감히 해치려 날뛰는  
미제와 괴뢰역적무리들아

그때 건설자 우리가  
네놈들의 핵타격목표가 되자고  
하늘높이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만민의 념원 담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꾸린줄 아느냐

내 조국 그 어디나 성스런 기념비 세운줄 아느냐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러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은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 승리의 상징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이다

안된다  
태양의 성지에 심어 가꾼  
꽃 한송이 나무 한대도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 다듬어 깎  
하나의 돌도 다칠수 없거니

핵탄의 파괴력 아무리 크다 해도  
수령보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사는  
피끓는 우리 심장 천겹만겹 성벽이룬  
결사옹위 이 성새만은 허물지 못하리  
백두의 산악처럼 마음속에 뿌리내린  
수령승배 이 신념 꺾지 못하리

아,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민족의 뉘마저 빼앗으려 날뛰는  
침략자무리들 그대로 두고

주체년호와 더불어 무궁세월 번져갈  
일력장의 또 한페지를 우리 어찌  
이제 더 넘길수 있단 말인가

창조와 건설이 건설자 우리의 사명이건만  
살인과 략탈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만을 빚어내는  
악의 본거지 백악관과 청와대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리

만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가 추켜든 핵무기여  
무진막강한 우리 식 핵억제력이여  
원췌의 본거지를 향해 불소나기를 쏘을  
그날은 왔다  
조국통일 이룩할 시각은 왔다

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조국통일의 광장에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실 그날위해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태양칭송기념비 더 높이 세울 그날위해  
정의의 성전에 일떠선 조국과 함께  
우리는 판가리결전을 엄숙히 선언한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 이런 아침이었다

### 리 성 애

교실엔 숨소리마저 없고  
열려진 창가로는  
눈부신 해빛이  
따사로이 흘러드는데  
나는 까만 눈동자의 아이들을 본다

아이들아  
바로 이런 아침이었다  
우리의 용사들이 전화의 그날  
불타는 월미도에서  
조국과 마지막인사를 남긴것은  
그리고 또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려본것은

하늘의 해는 연기에 가리워  
피갈이 타고  
원췌들은 개무리마냥 달려드는데  
월미도의 용사들은  
총을 들고 수류탄을 품고  
적을 맞받아나아갔다

총창을 바위에 갈아 꽃았다  
수류탄의 고리를 뽑아 틀어쥐고  
성난 사자처럼 결전장에 나선 그들  
그들은 그 마지막순간에 바라보았다  
영원히 맑고 푸를 조국의 하늘을

영웅전사들의 숨결인가  
바람결은 이리도 맑고 부드럽고  
해빛은 한없이 따스하구나  
운동장의 하늘가엔 축구공이 솟고  
콩우유 싯고온 자동차의 경적소리  
정답게 울려가는 맑은 하늘

아이들아 잊지 말라  
청춘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불타는 월미도의 아침이 있어  
배움의 글소리 랑랑한  
오늘의 맑은 아침이 있음을  
불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이 있음을!

# 증오와 복수의 강의 외 1편

리 광 규

가슴터지는 울분을 안고  
떠나가는 사람  
못 잊어 다시 찾아오는 사람  
그 발걸음 세월을 잇고 세대를 잇는  
신천땅

전쟁로병들도  
머리희숙한 교단의 로박사들도  
조국의 북방에서 찾아온 로인들도  
머리숙여 추모하는  
신천의 102어린이묘앞에 서니  
가슴치는 생각

어찌하여  
걸음발도 채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조국의 넓은 대지를 밟으며  
한껏 삶을 누려야 할 그들이  
세기를 이어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되어 누워있는가

그들이 살아있다면  
나처럼 손자손녀 거느린 나이되었으련만  
누워있다  
에타게 바람벽을 허비다못해  
피흐르는 손가락을 젖처럼 빨며

엄마를 찾던 그 나이를 품고

그들이 고이 잠들어있다고  
영원히 고이 잠들고있다고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그 원한의 봉분밑에  
더 먹을수 없는 나이를 베고 누운  
신천의 어린 령혼들이 오늘도 웨치는 울부짖음이  
이 가슴을 허빈다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  
미제와 반통일패당이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오늘에  
더욱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의 나이를  
천만군민에게 더해주며

여기서는 증오란 무엇인지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애어린 그 나이로 웨치며  
영원히 끝날수 없는 증오와 복수의 강의를  
신천의 아이들은 하고있다

더는 이 땅에  
우리같은 아이들의 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안된다고!...

## 어 머 니

인생의 먼길을 가며  
어느덧 내 머리에 흰서리 내렸건만  
추억속의 어머니의 머리엔  
흰서리 없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이 자식에게 자기의 삶을 준  
그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한생을 못 잊을 사랑의 품으로

어머니 전쟁의 이듬해 겨울은  
몹시 춥고 엄혹도 하였지요  
미제놈들 던진 세균탄에  
내가 열병에 걸렸던 그해 겨울은

이 아들 전염병에 시달릴 때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내 머리에

찬물에 적신 수건도 없어주며  
몇십밤을 새우시던 어머니

자식에게서 병마를 쫓아내신 어머니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 아들이 병이 옳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부하며 숨을 거두신 어머니

아, 어머니의 희생으로 바꾼 내 삶  
내 삶은 미제에 대한 증오로 불타는 삶  
내 삶은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는 삶  
어머니는 복수자의 영원한 어머니거니

미제놈의 세균탄은 어머니를 앓아갔어도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날을 따라 내 마음 어머니님 찾아가는 그 길은  
이 땅에서 미제를 영원히 없애버릴 복수의 길입니다

시 초

## 수산땅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

권 오 준

### 먼저 찾은 곳

표창휴가 받고 고향에 온 병사  
내 지금  
어디에 서있는것이나  
전호속에서 언제나 그러보던  
어머니품 고향집뜨락을 밝기도 전에  
먼저 찾은 계급교양관이어

눈길들어 바라보면  
어깨동무 내 동무 노래하며 들어서던  
유치원마당도 예대로 있고  
배움의 나라려고 희망을 속삭이던  
교정의 창가도 예대로 번쩍이고...

한시바삐 만나보고싶구나  
력사를 배워주던 나의 담임선생님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계시는지  
학창시절 나의 동무들은  
벽찬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발을 맞추고있는지

선경으로 변모된 내 고향  
흥겨운 노래소리 그칠줄 모르던  
아담한 문화회관  
그 추억아래도 먼저 들어서고싶구나  
어린시절 추억이 제일 많이 어려있는  
저기 저 파수원에도 선잠 오르고싶구나

허나  
지난 세기 50년대 홀린

내 고향사람들의 피가  
아직도 숨배여흐르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미제와 계급적원썬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 계급교양관의 대문을 거치지 않고  
내 어찌 다른 곳을 밝을수 있으랴

미제!  
이 살인귀들은  
사랑하는 내 고향에  
얼마나 깊고깊은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것인가  
이 두발가진 승냥이들은  
얼마나 악착하게  
내 고향을 이발로 물어뜯은것이나

천백배로 받아내야 할 피값을  
아직도 못 받아낸 내 고향이기에  
미제와의 결산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못 치른 내 고향이기에  
분노로 울고있다  
증오로 끓고있다  
내 고향 수산리는

여기서 태를 묻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계급의 자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내 고향은 세워놓았다  
수산리계급교양관을!

### 녀인의 눈빛

단란한 가정을 잃은  
모진 아픔을 다 안고서도  
단 한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은  
수산리녀인이여  
이른새벽 집으로 달려든 야수들  
군화발로 남편의 목을 누를 때도  
밤나무기둥에 꺾꺾 뭍이운  
다섯자식이 휘발유에 불탈 때도  
너털웃음치는 야만들의 낯짝을 쏘아보는

녀인의 불타는 증오의 눈빛  
반세기 넘어 오늘까지도  
단 한번 흐트러진적 없었거니  
사람들이여  
그 눈빛앞에  
한점의 불씨만 던져보라  
최악의 덩어리-백악관이  
우직우직- 바짝 마른 가랑잎처럼 타리  
미국이 통채로 재가루로 흩날리리



# 교훈단시

×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  
저 봉분속에 있던가  
오, 복수를 다짐하며 찾는 사람들  
그 뱃속에 있어라

원쑤는 우리의  
총구앞에만 있던가  
잠시나마 환상을 가진다면  
원쑤의 총구는 벌써  
우리뒤에 있다

## 가자 나의 전호로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고  
홀러가는 꽃구름도 멈춰서는 곳  
보는것마다 듣는것마다  
서슬푸른 창검을 버려주는  
수산리계급교양판이여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이 가슴 뚫어버려  
잠시도 달래일길 없구나  
불 복수의 불이 타올라

표창휴가로 고향에 왔다고  
내 어찌 마음의 탕개를 늦추랴  
이 불을 그대로 안고  
나는 가리  
나의 전호로!

너무도 여린 꽃나이여  
이름조차 못 남기고 봉분에 묻힌  
수산리아이들 그 뱃과  
함께 가리

세월도 피에 젖은  
그 나날을 못 잊어  
20세기 50년대에 멈춰세운  
원한의 날과 날들이여  
내 너를 총알처럼 재우고 가리

원쑤를 기어이 갇아달라고  
오늘도 피터지게 당부하는  
억울하게 죽은이들의 뱃을  
복수자의 선언으로 안고 가리

함께 가리  
힘겨운 혼련길도  
깊은 밤 잠복근무도  
순간이나마 나의 삶에서  
수산땅을 떼여놓는다면  
무서워라 그것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겨냥한 총에서  
탄창을 뽑는것이기에

수산땅이여  
너는 그저 흙이 아니다  
미제와는 끝까지 맞서싸워야만 산다는  
력사에 남긴 피의 진리를  
세대와 세대앞에  
영원히 펼쳐준 계급의 교과서

아, 계급의 그 교과서  
내 피와 살로 새기며  
수산땅에 쌓이고쌓인  
그 원한 그 분노를 다 풀기 전에는  
수산리계급교양판이여  
내 마음 언제나  
너의 문을 나서지 않으리라

## 통일의 축로가 오르리라

장 명 길

우리의 존엄높은 공화국에  
《제재》와 압살을 부르짖는 미제  
끝끝내 전쟁도발의 포문을 열었다  
온 남녘땅에 질은 화약내 풍기며

미제는 단말마의 발악을 한다  
세계의 평화를 마구 유린해온

강권의 몽둥이가 꺾어진 오늘에도  
갈가리 찢긴 날개를 퍼덕거리며  
최후의 발광을 한다

멸망을 앞둔자들이  
눈앞의 말로를 알지 못한다  
제가 타죽을 불을

기어이 이 땅에 질러놓으려다

《B-52H》며 핵항공모함도  
피로 얼룩진 성조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정의가 부정의를 타승하는  
력사의 흐름을 돌려세우지 못한다

이 땅은  
반세기 넘어 쌓인 증오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으로 다져진 땅  
미제에게서 기어이 받아낼 피값을  
세대를 이어 물려온 땅  
우리의 결산은 달리 끝날수 없는것

오, 이제 세계는 보게 되리라  
영웅조선의 혁명강군  
용감한 우리 인민앞에  
미제의 운명이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우리 바다는  
침략자들을 통채로 수장시킬  
격노한 갈기를 추켜들었다  
천리방선엔 백두산불을 재운 강철포신들  
활주로엔 붉은 매들이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오라, 결전의 시각이여  
미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없어질것은 분계선  
얻을것은 오, 우리가 얻을것은  
꿈에도 바라는 통일  
온 겨레가 숙원하는 통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꿈결에도 안고사는 천만군민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서 승리 떨치리라  
사랑하는 이 땅 삼천리에  
조국통일의 축포가 터져오르리라

## 철산오빠에게

김 명 철

영웅오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그 발사에 성공한 과학자들이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축하해주신  
철산땅의 오빠

당보에 크게 실린  
오빠의 기념사진을 보며  
나도 너무 기뻐 기쁨의 눈물 흘리었어요  
원수님 가까이 선 오빠가 부러워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오빠도 알지요  
경애하는 원수님 눈길헤쳐 찾아주셨던  
철산땅 위성발사장처럼  
여기 내가 일하는 법랑철기공장도  
장군님 몇해전에 찾아주신 곳이라는걸

질 좋은 법랑그릇 더 많이 만들자고  
추운 겨울날에 찾아오신 장군님  
불길뿜는 소성로에 다가서시여  
로안을 살펴보시며  
더 많은 법랑그릇 만들어낼  
새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그길로  
내 들어선 이 공장  
하지만 내 할일이 많아요  
소성공처녀들의 이마에 맺히는  
그 땀을 없애주지 못하고있으니

오빠 나는 지금 기념사진을 보며  
듣고있어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경사를 맞이할수 있었다는  
오빠의 가슴속 진정의 그 말을

그래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시는데야  
어려울것이 그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마음먹고 달라붙기만 하면  
못해낼 일은 또 어디 있겠나요

나도 오빠처럼 탐구에 온념을 태워  
컴퓨터의 화면으로 불길을 지켜보고  
조종단추를 눌러 그릇들을 구워낼 때  
우리의 소성로도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으려니

아, 우리 원수님 환히 웃으시고  
우리 과학자들 환희에 휩싸인 기념사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이 뜻깊은 화폭속에  
오빠와 위성과학자들만 서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르심따라  
최첨단돌과전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군민을  
위성과학자들의 어깨너머 나는 보고있어요  
오빠와 나란히 나도 서있어요

#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한 김상오의 작품들

최 남 순

6월이 왔다.

미제원쑤들에 대한 증오가 세차게 불타오르고 외세가 없는 땅에 통일을 안아줄 숙원이 더 절절해지는 6월.

원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토로하며, 조국의 통일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심장의 노래를 불렀던가.

그중에는 시인 김상오의 작품들도 있다. 시인은 이 땅의 모든것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였기때문에 그것을 앗으려는 원쑤들을 누구보다 무자비하게 증오하였다.

김상오의 시들은 사랑과 증오, 기쁨과 아픔이 늘 함께 숨쉬는 유기체이다.

김상오의 시들에는 사랑이 강렬한만큼 증오가 격렬하며 증오가 세찬만큼 사랑이 뜨겁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위력은 높은 사상이 고상한 정서로 안받침되는데서 생겨난다. 사람은 어떤 사물현상을 보거나 대할 때 일정한 사상적견해와 함께 일정한 감정적대도를 표현하게 된다. 작가는 생활에 대한 인물의 견해와 태도에서 나타나는 긍정과 부정, 사랑과 증오, 옹호와 규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섬세하게 그려내야 한다.》

그의 시들에서 제기한 사랑과 증오의 철학은 무엇인가?

사랑과 증오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증오하였는가.

조국과 인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였고 원쑤를 증오했다.

사랑을 위하여 끝없는 증오가 불탔다.

하여 필자는 이러한 시들을 《증오의 시편》들이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작품이 《증오의 불길로써》(1950년)이다.

이 시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랑하는 그만큼 증

오한다》는것이다.

시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밖에 쓰여 있지 않지만 원쑤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함께 시인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우리의 국토》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깊이 느껴진다.

아름답고 신성한 그 모든것을 모욕한만큼 아니, 그 백배, 천배만큼 시인은 원쑤를 증오하며 규탄한다.

그 증오에는 거리의 한계가 없다.

그 증오에는 세월의 한계도 없다.

뿐더러 그 증오는 개인적인것이 아니다. 이미 죽어나버려진것조차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증오의 불길로써 그 더러운 시체를 태워버리겠다는 토로는 벌써 한 미국비행사에게 한 선언이 아니다. 멸망한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할 미제국주의, 이 땅의 모든 조선사람들의 분노로 하여 반드시 불살라질 미제국주의에게 내리는 철추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하여 끝과 한계를 모르는 증오》, 이것이 시에서 내세운 증오의 철학이다.

이와 같은 증오의 철학을 안고있는 시들로서는 《한 도시에서》, 《외파처치실에서》, 《끝수 없는 불길》, 《집》, 《다우쳐라, 죽여라》, 《영웅》, 《저기로》, 《나의 도시를》, 《나의 증오》 등이 있다.

《끝없는 복수》, 《끝없는 증오》의 문제는 펍이후시기에 창작한 작품들에서도 계속 제기되고있는바 그 대표적작품이 시 《우리는 다른 6월을 원치 않는다》(1984년)이다.

시인은 시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6월에 대한 시적묘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아득히 흘러간 세월의 한끝이건만

아, 어제런듯 생생한 그 6월의 기억

망각은 때로 인생의 미덕이라 하지만

그리도 가슴아픈 아침을 잊어버리기엔

내가 선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

《이 땅이 너무도 아름다》울수록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었던 원쑤에 대한 증오는 더욱 끝없이 솟구치고 기어이 평화를 사수하려는 철의 신념은 더욱 굳어진다.

김상오가 많은 시들에서 내세운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끝없는 증오》의 문제,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게 지녀야 할 투철한 계급적자각에 관한 문제이며 오로지 총대로 지켜지는 평화애호정신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는 자기의 시들에서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존재하고있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아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행복하고 기쁠수록 어찌 분열된 민족으로서 불행과 아픔을 잊을수 있겠는가?》하는 시대적인 문제가 시인의 많은 작품들속에서 제기된다.

시인이 주장하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아픔》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나라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조국통일문제이며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안고사는 조국의 운명문제, 그 운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 민족의 매 사람의 운명문제인것이다.

시인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아픔》을 함께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여러 시들에서 예리하게 제기하고 그 운명을 잊지 말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그러한 시들로서는 《소원》, 《평양역》, 《기다려다오》, 《바다가에서》, 《저주하노라》 등의 작품을 들수 있다.

김상오는 시집 《아름다운 기슭》(1959년)의 후지에서 시 《소원》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언젠가 한 평론가는 나의 시〈소원〉을 비평하면서 시인의 소원이 불과 반년이나 1년후에 벌써 이루어졌다는 리유로써 나를 비난한적이 있었다.

나는 깊은 만족감으로 그 비난을 읽었다. 시인의 소원이 (즉 인민의 소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반년이나 1년후에는 벌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현실속에 산다는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라! 그러한 나날, 그러한 시대에 시를 쓴다는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보람이라!...》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한 평론가는 시 《소원》과 시에 내려졌던 비평 그리고 그에 대한 시인의 만족감을 들고 이렇게 평하였다.

《과연 이 소원이 〈반년이나 1년후에〉 다 이루어질 그런것인가. 그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그런

소원을 가져야만 시인이 될수 있는것인가. 아니! 평론가는 물론 졸렬했지만 김상오도 너무 서둘러 만족해하였다. 이 소원들은 결코 반년이나 1년후에 다 실현되는 그런 평범한 소원만은 아니였다. 그것은 참된 인간이라면 한생을 두고 영원히 간직해야 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소원이며 그 하나하나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수 있는 가장 값지고 무거운것이였다.》

조국이 더욱 부강해지고 인민이 더욱 행복해지기 바라던 시인의 소원중에서 많은것이 현실로 되였으나 조국통일의 소원만은 의연히 민족의 아픈 소원으로 남아있다.

시는 《소원》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속에 인민의 행복상과 함께 그 행복이 커질수록 더욱 불타는 통일열원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시 《평양역》(1958년)에서 시인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평양역에서 나라의 모든 곳, 지어 세계의 곳곳으로 다 떠나가도 서울로 가는 열차만은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절감한다.

《떠나지 못하는 열차》가 울리는 《기적소리》는 《행복속에 조국의 분열을 잠시라도 잊은적이 없는가》고 동시대인들에게 격렬하게 묻고있는것이다.

시 《기다려다오》는 기양관개공사장에서 머지않아 생명수가 흘러갈 조국의 대지에 대하여 쓴 시이다.

시는 역시 한지맥으로 잇닿은 조국의 강토에서 환희의 생명수속에 젖은 대지와 억울하게 말라가는 대지를 함께 노래함으로써 남녘땅에도 반드시 행복을 안아가야 할 민족의 성스러운 의무를 호소하고있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는 작품들에 삶과 죽음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어떤것을 삶이라고 하고 어떤것을 죽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가 많은 작품들에서 제기되고있다.

김상오의 시문학에서 제기하고있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평화와 전쟁, 승리와 패배에 관한 문제이며 정의와 부정의, 자유와 굴종, 존엄과 수치에 관한 문제로 나뉜다.

승리와 평화, 자유와 정의는 다 참된 삶과 련결되며 전쟁과 패배, 부정의와 굴종, 수치는 죽음과 같다는것이다.

먼저 시인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평화와 전쟁, 승리와 패배의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피로써 쟁취한 평화와 승리에 관한 문제는 금지

롭고 영광스러운 조국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격조높이 노래한 시가 《평양이여 축복하노라》(1958년)이다.

미제는 지도우에서 평양이라는 도시를 없애버려려고 날뛰었다.

그러나 조선은, 평양은 불굴의 힘으로 일떠섰다.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악랄한 꾀변을 늘어놓는 원쑤들의 더러운 침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평양은 기적처럼 솟구쳐올랐다.

채더미를 털고 일어난 그것, 그것은 또 한차례의 자랑찬 승리였다.

시인은 이러한 력사의 산체험자로서 《파괴와 죽음을 이기고 선 삶》의 승리, 전쟁광신자들과 맞선 평화로운 조국의 힘의 승리를 목청껏 노래한것이다.

불굴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아  
위대한 사회주의사상의 산아들아  
죽음에 대한 삶의 승리의 신성한 교훈아  
오, 평양아 나의 도시야 영원히 번영하라  
축복하노라!

시인은 거세차게 고동치는 《공화국의 심장》—평양의 모습을 통하여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숨쉬는 삶을 보고있는것이다.

시에서는 조국과 삶이라는 무제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때문에 수도 평양, 죽음을 딛고선 도시는 《원쑤에 대한 전쟁에 대한》 공화국의 《훌륭한 대답》으로 되는것이며 《평화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민의 《아름다운 노래》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에 대한 평화의 승리, 죽음을 딛고 일어난 삶의 승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강의하고 역센 인민의 모습을 형상한 시들로서는 이외도 시 《평양이여 너를 건설하리라!》, 《나무들과의 이야기》, 《고향극장에서》, 《그들》 등과 같은 시들이 있다.

시인 김상오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작품들에서도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인민의 삶,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작품들로서는 시 《다리》(1951년), 《봄》(1952년), 《생명》(1952년) 등이 있다.

시 《다리》에서 원쑤들의 《그라망》이 날아오고 또 날아와 끊어놓는 다리를 복구하고 또 복구하는 인민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령토에서 자기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인민은 승리하고 남의 나라 령토에 쳐들어와 그 나라 인민의 삶을 유린하려는 원쑤는 바로 그것으로 하여 자멸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시 《생명》에서는 《폭음의 땅덩어리를 흔들고》 포성이 하늘을 찢으며 천지가 《생사의 결투속에서 요동치는》 전쟁의 밤에 어느 한 조선의 나지막한 집에서 태어나는 새생명이 노래되고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각에조차 싸우는 고지에서는 무명의 전사들이 생명을 바친다.

태어나는 생명—그것은 조국의 래일이다. 그 생명과 그 래일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즉 시에서는 성스러운 조국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전쟁과 평화, 승리와 패배에 관한 문제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조국과의 관계속에 부각시킨것으로 하여 김상오의 시문학은 철학적성격을 띤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정의와 부정의, 존엄과 수치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정의롭고 존엄높은것만이 참된 삶이며 부정의와 수치는 가련한 죽음과 같다는 심오한 문제를 여러 시들에서 제기하고있다.

시인은 해방후 자기의 첫 시 《그대들의 피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에서 정의로운 조국을 위하여 정의롭게 죽는 삶이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것이며 또 영원하다는것을 주장하였다.

력사의 진리와 조국의 존엄을 지킨 삶은 죽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학적으로 해명한 시들로서는 《하나의 소식이》(1961년), 《조그마한 무덤우에 바람은 불고》(1955년), 《비전향장기수의 말》(1991년), 《우려롭니다》(1993년), 《바다가에서》(1992년)와 같은 작품이 있다.

특히 시 《하나의 소식이》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생매장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시와 노래를 읊으면서 숨진 용감한 시인 강승한에 대한 작품이다.

김상오는 시인 강승한의 최후의 모습을 감동깊게 노래한데 뒤이어 《땅에 묻히면서 시를 읊은 시인》, 《땅속에 묻히면서 노래를 부른 당원》—강승한이 오늘도 《화불처럼》 다시 살아서 퇴격처럼 원쑤를 치고 나의 넋을 불붙이고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자유와 굴종, 통일과 분렬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로 특징지어진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진정한 삶이고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굴종은 비굴한 죽음이다.

# 옛 화선지 격수

홍 성 두

강가에 낚시대 드리운 로인  
알고보니 전쟁로병이였네  
앞가슴에 락장 가득한  
어제날 화선의 저격수

때론 깜박이는 깜부기도 잊은듯  
고요한 물결우에 추억의 노를 젓는다  
전투담을 청하는 젊은이들에게  
못 잊을 싸움의 그날도 펼쳐보이며...

...지그시 참호에 었디여  
미국놈 쏘다니는 길목을 지키느라니  
마침 키다리 두놈이 나타나겠지  
앞놈과 뒤놈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땅! 한방 먹었더니

두놈 다 허공을 그러안고 너부러지더군...

그리곤 전투의 설참에 그러했듯  
담배 한모금 깊숙이 들이키는 로인  
깜부기는 여전히 숨박꼭질하건만  
미끼에 매달린 잔고기따윈 관심밖인듯  
이제라도 총을 들면 양키 몇두름은 문제없다며  
불타는 저녁노을 바라보나니

나에겐 생각되누나  
로인이 드리운 낚시대는  
원췌를 겨누었던 그날의 보총인듯

미제국주의의 큰고기를 모두 낚고야말  
용감한 저격수의 총대인듯

...

원췌들은 몰랐으리라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있다는것을  
피로써도 바꿔야 하는  
자유가 있다는것을...

《마산이여, 우리는 너와 함께》중에서(1960년)

시인이 힘있게 주장하고있는바와 같이 《목숨보다 귀중한것》, 《피로써 바꿔야 하는것》은 자유이다. 자유가 삶이다.

이러한 주제의 작품들로서는 런시 《불길과 폭풍에 대한 노래》(1960년)중에 시 《서울에 대한 노래》, 《암흑의 땅의 별들》, 《피는 흘렀다》, 《자랑의 노래》와 정론시 《남녘땅의 청년학생들에게》, 시 《락엽》, 시 《망고의 숲 설레이는 곳에》(1961년) 등을 들수 있다.

우의 시들에서 시인은 자유와 민주를 위한 남녘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이 정의로운것이며 거기에 참다운 삶과 존엄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지지와 성원, 연대성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또한 김상오의 시들에서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가 통일과 분렬에 관한 문제로 제기된다.

민족이 하나의 산 유기체인것으로 하여 통일만이 삶이고 분렬 그자체는 민족의 죽음을 의미한다

는 철학적주장이 여러 시들에서 구체적인 생활정서 속에서 노래되고있다.

시인은 해방직후에 《고향의 바다를 향하여》(1949년)를 써서 통일과 단결문제를 민족의 생사존망문제로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하나로 어울리며 뛰노는 바다, 그속에 수억만의 푸른 파도는 갈라져살수 없는 민족성원들의 모습인것이다.

시 《유언》(1990년)에서는 통일이야말로 후대에겐 넘기지 말아야 할, 자기 대에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성업이라는것을 동시대인들에게 호소하고있으며 시 《그날이 오면》(1990년)에서는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임을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시인 김상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활적이고 첨예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평화와 전쟁, 승리와 패배라는 사상과 사상의 대결문제로, 또한 《정의와 부정의》, 《존엄과 수치》라는 신념과 신념의 대결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자유와 굴종》, 《통일과 단결》이라는 민족의 생사존망문제로 심각하게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오늘도 시인 김상오의 이러한 작품들은 원췌에 대한 격렬한 증오의 감정을 토로하고 조국통일성전에 온 민족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시 초

# 어머니는 광월이다

럼 형 미

## 생 명

한밤중에도  
꿈이 아닌 기쁨에  
가슴 울렁이며  
품속의 당원증  
어루쓸어볼 때면

어이하여 자꾸만  
떠오르는것일가  
세상을 향해  
우렁찬 첫울음 터치는  
아기의 모습이

내가 바로  
그 아기인듯  
비로소 세상을 알고  
두번다시 태어난듯  
아, 생명에 대한 끝없는 생각이여

부모가 준  
그 생명에 비기라  
마흔해나마 품어온 내 소원의 삶이  
환희의 고고성 울리며  
크나큰 어머니품에 불을 비비나니

그 생명이 그리도 소중해  
잠 못들며 나를 끌어주는 그 손길  
대견히도 나를 지켜보는 그 눈빛  
빛나는 새삶의 증표이런듯  
어머니가 안겨준 붉은 당원증

믿어지지 않노라  
외워도 외워도 눈물속에 흠어드는  
이 당원증번호가 정녕 나를 대신하는것인지

아, 당원이 되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누나  
하늘땅이 제일 넓은줄 알았건만  
그모두가 나처럼 그 품에 안겨있어  
눈을 떠도 감아도  
나에겐 온통 어머니모습뿐

불타는 기폭에 이 몸을 감싸주는  
당의 손길 잡고서 나는 알았노라  
당원의 심장을 지닐 때  
인간의 참된 삶이 더욱 빛나게 됨을

## 나의 광월로

늘 함께 일하며  
허물없던 사람들앞에  
내 처음 나선듯  
엄숙한 눈빛들앞에  
입당심의를 받던 날

찬성으로 높이 든  
고마운 손과 손들  
나에게 열다섯명의  
당원동지가 생긴것이다  
혈육보다 더 미더운  
열다섯명 식솔이 품어주는  
인생의 새집이 생긴것이다

아, 불처럼 타며

믿어의심치 않는  
열다섯쌍의 눈빛들에서  
나는 보노라  
내 한생애 못 잊을  
수많은 눈빛들을

소년시절 어린 녀에  
당원의 모습을 새겨준 아버지  
처녀시절 땀맛을 배워준  
강선의 로당원아바이  
룡남산의 뜻을 심어준  
대학시절 스승의 그 눈빛

금시 이 몸을 둘러싸는  
후더운 정의 숨결

등뒤에 뻗쳐주는  
든든한 믿음의 산악  
나의 한생을 보증하는  
당원들의 억센 힘이여

무엇이 두려우랴  
이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죽음을 맞받아간들  
죽음보다 더한 시련  
열백번 헤쳐간들

세포의 동지들 한명 한명  
모습과 성격  
입당한 날은 서로 달라도  
가슴에 품고사는

당원증은 하나같기에

나란히 선 그 대오  
뒤끝에 들어섰어도  
바다물에 시내물 합쳐지듯  
내 심장의 더운 피  
한순간에 그대들과 합쳐졌나니

사랑하는 나의 당세포여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나를 제일먼저 불러달라  
당원으로 키워준 수령앞에  
보답의 심장 바칠수 있도록  
나를 믿어준 로당원들앞에  
몇몇한 도리를 다할수 있도록!

## 빛의 노래

숨엄히 드리운 당기앞에서  
당원증을 수여받던 날  
벽차게 뛰는 나의 심장에  
지울수없이 새겨진  
우리 당 마크

하많은 생각으로  
우려했노라  
이 땅에서 자라난  
선군조선의 지식인  
나의 위치를 가리키는  
크나큰 빛을

마치와 낫을 든  
근로의 억센 손들과 함께  
성실한 량심과 사색을 고르며  
꿈에도 찾아쫓던 나의 빛  
손에 익어 언제나 가버렸건만

무거웁고나

당원이 되어 처음 쥐는 나의 빛  
끓어치는 심장의 피  
흠뻑 찍어 추켜드니  
마치 밤하늘에 황황 타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닮은듯

정녕 이제서야  
내 철이 들었는가  
기쁨도 슬픔도 빛과 나누며  
초리가 닳도록 쓰고 또 써도  
못다 쓸 내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  
많고도 많은줄 알았건만

아, 쉽없이 타는 주체의 봉화처럼  
내 한생 쓰고쓸 빛의 노래는  
오직 태양의 노래  
사랑하는 우리의 태양이 없다면  
더운 땀에 젖고젖을 마치와 낫  
창조의 뉘를 뿜을 빛도 없으리라

## 어머니는 광월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군복입고 떠나는 너를 바래우며  
어머니의 소원은 하나였더라  
조국보위의 전장에서  
부디 영웅이 되어 돌아오기를

리수복영웅처럼  
용감히 적화점앞에 나설 때  
눈앞에 떠오를 고향의 어머니

너의 장한 걸음 떠밀어줄  
당원의 모습으로 비끼고싶었건만

어머니는 당원이 아니었다  
맑은 네 눈동자에  
다심한 인정은 담아줄수 있었어도  
당원의 모습은 새겨줄수 없었기에  
늘 모자라고 허전하던 어머니사랑







최 학 명

1

학철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파아란 하늘에 덩이를 채 어  
물कु지 못한 흰구름 몇송이가 점점이 떠있었다.

(김희옥... 정말 그 희옥이란 말인가?)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들어왔다.

책상우에 놓여있던 종이 한장이 바람결에 실려  
봄나비처럼 가볍히 떠오르더니 팔랑팔랑 발치에 떨어  
져었다.

방금전 도에서 연구사를 내려보냈다는 전화를 받  
으며 무심결에 적어넣은 《김희옥》이라는 세 글  
자가 파고새긴 글처럼 그의 눈을 아프게 찌르고있  
었다.

불시에 눈앞이 뿌릿해지며 얼굴이 가름한 한 처  
녀의 모습이 점점 확대되어 또렷이 안겨온다.

촉촉한 긴 속눈썹아래 그윽한 웅달샘과도 같은  
까만 눈동자, 웃을적마다 곱게 패이는 보조개...

《그건 위선이요! 한갓 자기 변호에 불과하오!

고향은... 동무를 용서치 않을거요!》

그것은 추억속에서 울리는 학철의 절규였다.

《뭐라구요? 그건...》

젖은 머리칼이 흘러내린 희옥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릿해졌다.

처녀가 들고있던 우산이 물풍스러운 비바람에  
날려 길가에 나딩군다. 피로움과 아연함이 뒤엎킨  
처녀의 서글픈 눈빛...

《음...》 학철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종이를 쫓는 그의 이마우  
엔 어느새 식은땀이 내배었다.

정문앞 뽕뿌라나무들에선 때이르게 황이 든 잎  
사귀들이 푸르게 왕성했던 계절과 마지막작별이  
라도 하듯 허공을 빙빙 선회하며 떨어져내리고  
있었다.

(희옥이...)

학철의 추억은 아득히 흘러간 어린시절의 작은  
술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맑은 시내가 돌돌 흐르는 나지막한 산골짜기  
에 그림처럼 들어앉은 아담한 동네에서 그들의 시  
절은 흘러갔다.

깃을 찾는 한때의 새무리가 장미빛노을속으로 날  
아드는 저녁이면 토끼풀다래끼를 등에 걸맨 어린  
학철의 뒤로 쌍태머리를 곱게 땀은 처녀애가 그림  
자마냥 졸졸 묻어다니며 성화를 먹인다.

《가재 잡아달라! 가재...》

《가만있어! 내 이제 큰놈을 잡아주마!》

얼마후 허리를 꼬부장하니 구부린 곱슬머리총각  
애는 코밀을 뺧 문다지고나서 손더듬으로 살살 돌  
밀을 들추었다.

《잡았다!》

총각애의 환성과 동시에 희옥의 탄성이 튀어나왔  
다. 《야!-》

그런데 잠시후 희옥의 손바닥에서 엉금엉금 뒤걸  
음치던 가재란 놈이 위협적인 자세로 커다란 집게  
발을 쳐들었다.

《으-양!》

처녀애의 새된 울음소리는 골안의 정적을 깨치

며 울려갔다.

깜짝 놀란 학철은 없는 재간을 다 피워가며 희옥을 달래었다.

하지만 좀처럼 처녀애의 울음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희옥아! 요것 바라! 내 꽃을 줄게. 너 꽃을 제일 좋아하지?》

학철은 빨간물이 곱게 오르기 시작한 애기단풍가지를 내밀며 희옥을 얼리었다.

살쾅이 눈을 뜨던 희옥이가 금시 울음을 툽 그쳤다.

《야! 곱다!》

잔조롭히 뜯 두눈가에 비껴든 작은 단풍잎사귀들이 저녁해의 불그스레한 잔광을 받아 더욱 빨갛게 불타고있었다.

손에 든 작은 단풍잎을 뱅뱅 돌리던 희옥이가 언제 울었더나싶게 찡찡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단풍나무잎은 왜 새빨갳나?》

《쳇, 그것두 몰라? 그건...》

가슴팍을 내밀고 으시대던 학철은 갑자기 말을 갑자르더니 애꽃은 돌맹이만 걷어차며 시무룩이 웃었다.

《우린 아직 그런걸 안 배워준단다. 그걸 알려면 저... 중학교에 올라가야 해.》

뒤더수기를 슬슬 문지르며 웅색해하는 학철을 바라보며 희옥은 해해 웃음꾸레미를 풀었다.

《오빠! 난 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해줬거든.》

《그래 뭐라던?》

희옥은 또랑또랑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득히 먼 옛날에 우리 고장에 진달래, 복숭아, 단풍나무가 함께 살았대.

봄이 오자 진달래는 제일먼저 고운 꽃을 피워놓고 복숭아와 단풍나무앞에서 자랑했대.

여름엔 복숭아나무가 가지마다 크고 향기로운 열매를 가득 달고 진달래와 단풍나무앞에서 뽐냈대지 않니.

아무것도 자랑할것이 없는 단풍나무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해님에게 자기한테도 아름다운 꽃이나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소원을 담아 빌었대.

하도 간절한 소원이어서 해님은 단풍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들어주긴 하겠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다.

온 여름내 쨍쨍 내리쬐이는 내 불볕을 절대로 피

하지 말고 그냥 맞을수 있겠니?》

그래서 그날부터 단풍나무는 갈증과 무더위를 참아가며 온 여름내 불볕에 제 몸을 고스란히 태웠대. 그러는 동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

어느날 아침안개가 걷히자 잠을 깬 진달래와 복숭아나무는 그만 깜짝 놀라고말았어.

글쎄 단풍나무의 무성한 잎새들이 떠오르는 아침 해살을 받아 눈부시게 빨간 빛으로 물들어 설레고 있지 않겠니?!

그때부터 단풍은 사람들의 더없는 사랑을 받게 되였대!》

아기자기한 희옥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끌려 정신없이 듣고있던 학철은 별안간 히 코바람을 내 불었다.

《헉! 그건 옛말이로구나. 그건 거짓부리야!》

《거짓말이 아니야!》

새초롬해진 희옥이가 뻔뻔하게 내쏘았다.

《거짓말이야! 그건 음... 비... 그래... 비과학이야!》

뻔뻔하니 올려놓았던 학생모자를 뺀 돌려앉히며 학철은 사내싸게 고집을 세웠다.

처녀애는 그만에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설문을 하소하는듯 한 어린 울음소리는 골과 골을 잇달아 내닫으며 오래도록 울려갔다...

그것은 학철에게서 지울수 없는 유년시절의 감회로운 추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애써 잊어버리려 했던 처녀, 그가 제발로 고향에 다시 나타나다니...

목장기술부원이었던 희옥이가 고향을 떠나던 그때는 목장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해야 할 일이 산갈이 쌓이던 때였다.

아름찬 전망계획이 세워졌다.

야산을 개간하고, 습지를 메우고, 돼지마리수를 확보하고...

홍분에 열뜬 목소리들이 토론을 거듭할적마다 뒤구석에 앉은 희옥의 얼굴엔 때없이 시름겨운 표정이 떠오르곤 하였다. 가끔 실낱파도 같은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지친듯 한 그의 눈빛은 어딘지 알수 없는 먼 곳을 응시하는듯 하였다.

그러던 희옥이가 돌연 축산연구소의 소환장을 들고 나타났다.

하늘을 짝 메우며 떠돌던 무거운 암희색구름이

무엇에 껴질리우기라도 한듯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창살처럼 내리쬘히고있었다.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빨간 흙탕물이 제법 쉼-쉼 사품을 일구며 격류를 이루기 시작한 개울을 향해 뛰어든다.

물풍스러운 비바람을 피해 커다란 우산을 쓴 희옥이가 갈림길어귀에서 소낙비에 온몸이 화락하니 젖은 학철이에게 앞길을 막히운채 서있었다.

《그러니까 동무에겐 고향이 자기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갓 도중역에 불과했던 말이지...》

고향을 위해 한생 불타는 단풍처럼 살겠다면 동무의 그 말이 침발린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는걸 난 오늘 똑똑히 알았소!》

《뭐라구요? 그건... 그건 너무해요!》

가냘픈 비명파도 같은 희옥의 이 목소리마저 비바람소리에 삼키우고말았다.

젖은 머리칼이 흘러내린 희옥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해졌다.

《동문 언젠가는 오늘을 두고... 꼭 후회할 때가 있을거요!》

절교를 선언하는듯 한 이 말을 남긴채 학철은 돌아섰다.

희옥은 들고있던 우산이 비바람에 날려가는것조차 느끼지 못한채 망연히 서있었다.

희옥은 이렇게 떠나가버렸다.

그후 학철은 이를 악물고 고향땅을 꾸러나갔다.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고향땅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억척으로 일했으며 그속에서 파목해지고 진중해졌다.

그러나 지금도 때때로 추억의 물결에 실려오는 그 운명의 갈림길을 생각할 때면 어째서인지 불안해지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어째서... 왜, 왜? 이런 뺨흑하고도 신랄한 질문이 마치 메아리처럼 가슴을 들이칠적마다 학철은 희옥이가 비단 한 치너였을뿐아니라 자기 운명에서 잃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였음을 절감하곤 하였다.

그때 왜 희옥의 발걸음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함께 고향을 가꾸자고 설복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적마다 학철은 애써 도리머리를 저으며 모든것을 부정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무릇 상처입은 추억을 잊기란 칠판에 쓴 글을 지우는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그는 지나온 생활을 통해 깨달았다.

천암봉개간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었다. 질통과 마대마다 부식토와 흙을 가득 담은 청년들이 땀을 흠뻑 흘리며 달리고있을 때 웃켄에선 목장의 나이든축들과 녀자들이 배여버린 잡판목의 등걸을 뽐아내느라 역사질을 하고있었다.

누군가 우스개소리를 한마디 던졌는지 산판이 떠나갈듯 호아호아 웃음판이 터졌다.

학철은 매번 산에 오를적마다 느끼는바이지만 청신한 숲속에 들어서니 심신에 쌓였던 모든 피로가 단숨에 쪽 풀리는듯 한 느낌을 받으며 개간전투를 책임지고있는 광준반장을 찾았다.

《반장동무! 좀 쉬고 하세요!》

뒤이어 《휴식!》 하는 청년의 청높은 목소리가 골안에 울려갔다.

광준은 오락회를 하느라 우등불주위에 모여든 청년들의 모습을 느슨한 웃음을 짓고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또 나왔나? 천암봉개간은 걱정놓으라는데...》

광준은 여유작작한 웃음을 떠올렸다.

그는 학철이와 함께 돌격대시절을 마치고 고향땅에 돌아온 그날부터 고향을 위해, 목장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땀과 노력을 바쳐온 사람이였다.

비록 지금에 와서 부기사장과 반장이라는 직급상의 차이를 가져오긴 하였지만 아직도 단들이 마주했을 때면 서로 너나들이를 하며 옛일을 추억하곤 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기사장이 결원인 상태에서 목장의 생산을 맡아안은 학철은 목장의 계획수행을 담보하는 천암봉개간이라는 아름다운 파업을 서슴없이 맡아안은 광준에 대해 무척 고맙게 여기고있는터였다.

《그새 많은 일을 했구만.》

《뭐 생각보다 일자릴 내지 못했네!》

하지만 걱정놓으라구! 목장의 래일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날 믿게!》

《고답네.》

학철은 믿음어린 시선으로 광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희옥인... 아직 안 왔을테지?》

떠들썩한 웃음이 터지는 우등불쪽에 눈길을 주며 광준은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학철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제 학철은 배합먹이를 실으러 읍에 가는 광준에게 역에 들려 관리국에서 내려오는 연구사를 데려오라고 당부하였다.

그 연구사가 다름아닌 희옥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혈색 좋던 광준의 낯색이 대번에 퍼렇게 얼어들었다. 광준이는 희옥의 사촌오빠였던 것이다.

《아니, 안돼! 제가 무슨 낯으로...》

더 말할새없이 트랙포르에 훌쩍 뛰어오른 그는 탕탕탕— 연기를 내뿜으며 떠나갔었다.

정다운 고향땅과 학철이를 배반하고 훌쩍 떠나버린 희옥에 대한 고까움이 가슴에 웅이처럼 틀어박힌 광준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이 깊어 돌아온 트랙포르에서 광준은 맥없이 내려섰다.

《없더군. 마지막사람이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그 앤 종시 나타나지 않았어, 혹시나 해서 밤차까지 기다려봤지만...》

락심한 그의 어조에서 학철은 광준이 역시 희옥의 귀향을 더없이 기다리고있음을 느꼈다.

《하긴 그 애가 무슨 낯에 얼굴을 들고 고향땅에 나타날텐가? 돌아올 애라면... 애초에 떠나지부터 않았을걸세!》

광준은 문득 어설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구 내 언제부터 묻자던 말인데... 혹시 자넨 아직도 희옥이를 생각하고있는게 아닌가?》

그의 이 마지막말에 학철은 예리한것에 찔리운 사람처럼 낯색이 질렸다.

정녕 그랬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문을 열고 그 처녀를 기다리고있었던 것이다.

이때 랑불이 사과알처럼 빨강게 달아오른 회계원 처녀가 숨을 할딱거리며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이마엔 송골송골 땀이 내뿜었다.

《부기사장동지! 손님이 왔습니다.

저... 관리국 축산연구소 연구사라는지...》

아연해진 두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치며 굳어져버렸다.

《음...》 놀라움인지 피로움인지 모를 신음소리가 광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학철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갑시다!》

### 3

희옥의 출현은 마치도 잔잔한 수면우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학철의 정상적인 생활흐름을 뒤흔들어 놓았다.

《저... 제 방을 좀 바꾸어주세요!》

조용히 방에 들어선 희옥은 아닌밤중에 홍두깨내 밀듯 불쑥 이런 요구부터 했다.

학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도 그럴것이 연구사의 방은 사무실들가운데서도 그중 아늑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혹시 무슨 불편이라도...》

《예! 방도 비좁고 또 이것저것...》

희옥의 얼굴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듯 한 표정이 력력하였다.

그래서... 결국 학철은 자기 방을 내주었다.

방정리가 끝난 후 학철은 희옥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어떻소? 마음에 드오?》

처녀의 얼굴은 대번에 밝아졌다.

《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 방을 딱 점찍었더랬는데...》

신통히도 제 생각을 알아맞췄군요!》

학철은 고개를 외로 튼채 입을 다셨다.

(헛참, 미안해하는 기색이란 꼬말만큼두 없군.)

《부기사장동지, 이왕 방까지 내준바엔 이것도 마저 해결해주십시오!》

하얀 종이에 빼곡하게 씌여진 깨알같은 글자들을 내려다보던 학철은 저도 모르게 입을 항 벌렸다.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각이한 규격의 정밀부속품들이었던 것이다.

《평화먹이처리장치의 중요부속들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미생물발효처리로써도 분해할 수 없는 식물성섬유질도 모두 가공먹이로 리용할 수 있습니다...》

(헛참, 이 동무가 여길 무슨 기계공장으로 착각한게 아니야.)

학철은 종이를 도로 넘겨주려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처녀의 기대어린 눈길과 부딪치자 생각을 달리하고 차곡차곡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범꼬리를 쥐고 놓지 못하는 격이 되고만것 같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일찍 연구사방에 들렀던 학철은 입을 딱 벌리고말았다.

방 한가운데 놓았던 량수책상이 벽쪽으로 옮겨지고 한쪽벽에는 유리로 된 각종 실험기구들과 시약병, 배양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실험대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노트형컴퓨터가 펼쳐진채로 놓여있는 다른 책상에는 새로 나온 축산부문에 대한 기술원서들이 그득 쌓여있었다.

유묘하게 눈에 띄우는것은 한쪽벽면에 걸어놓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쓴 족자였다.

(잡도리가 만만치 않은걸, 웬만한 연구실 째

먹겠군!)

학철이 이런 생각을 하며 서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희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부기사장동지가?》

《밤을 패웠군요! 너무 무리하는게 아닙니까?》

학철은 희옥이의 피발이 선 눈을 차마 마주볼수 없어 눈길을 떨구고 책상우의 기술원서들을 뒤적거렸다.

《아니예요. 천암산에서 흘러내린 저 맑은 샘물에 얼굴을 씻었더니 피곤이 말짱 달아나버린것 같아요! 호호호!》

생각과는 달리 쾌활하고 생기에 넘친 희옥이를 보니 학철의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기분이 어느정도 풀리는것 같았다.

《부기사장동지! 오늘 아침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뜻밖의 물음에 학철은 약간 당황해졌다.

《그걸 어떻게?...》

《호호! 다 아는 수가 있지요!》

재미있다는듯 생글거리던 처녀는 학철을 창문앞으로 데리고갔다.

창문에서 척 내다보니 정문으로부터 종축사와 호동에 이르기까지 목장전경이 마치 손금보듯 한눈에 들었다.

그러니 방금전 정문을 지나면서 반장이상 관리성원들에게 협의회를 포치하는 광경을 보았을것이다.

(결국 방을 바꾸어달라고 고집한것은...)

《저,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도 그 회의에 참가시켜줄수 있습니까?》

학철의 속생각은 희옥의 당돌한 제의에 잘리워나갔다.

《동무가?》 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꽤히 승낙하였다. 《좋소! 연구사동무의 연구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야...》

하지만 학철의 예상은 회의마감에 이르러 완전히 뒤집혀졌다.

목장의 먹이확보를 위한 협의회는 이렇다할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채 내부예비를 더 찾아내고 사양공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예전과 다를바없이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때 뒤에 앉아있던 희옥이가 불쑥 일어섰다.

《전 목장의 종축돼지마리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장은 어디까지나 고기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만큼 비육돼지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현대 지금 목장에서는 병아리를 품는 암탉처럼 먹이단가가 높은 종축돼지만을 잔뜩 끼고있다보니 먹

이는 먹이대로 소비하면서 고기생산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목장일꾼들이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짜고들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던 방안에 금시 파문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예상치 않았던 타격이었던것이다.

아연해진 광준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건 안되오!

고난의 행군때 목장사람들은 풀뿌릴 씹으면서도 그 종축돼지만은 한마리도 건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종축돼지를 잡으라구...

그래 종축돼지의 마리수를 줄이면 목장의 확대재생산에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걸 생각해봤소?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잃는 격이 될거란 말이요!》

목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광준의 이 말에 대부분의 회의참가자들이 긍정하듯 머리를 끄떡이였다. 하지만 희옥은 침착하였다.

《그건 잘 모르는 말입니다.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축산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날 축산업의 세계적발전추세는 종축돼지의 마리수를 줄이는 대신 새끼낳이률을 높이고 비육돼지의 사육기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제가 초보적으로 계산해보니 종축돼지의 마리수를 줄이는 경우 먹이소비량을 8%까지 줄일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이나 열성만을 가지고서는 오늘의 벽찬 대고조진군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을뿐더러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희옥의 이 마지막말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세찬 충격을 안기였다.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것은 두말할것없이 학철이였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 저녁어스름이 깃들 때까지 깊은 생각에 잠겨 그냥 앉아있었다.

며칠후 학철의 방에 희옥이가 찾아왔다.

희옥은 책상우에 쌓인 문건들에 얼추 눈길을 주고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바쁘겠군요! 이 술한걸 보느라하면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겠군요! 그러니 언제 새 기술잡지 하나 들여다볼 시간도 안 생기겠지요?》

그제야 학철은 문건속에 파묻혔던 머리를 들고

희옥이를 바라보았다.

《부기사장동지, 저… 당분간 제가 저녁마다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맡았으면 해서요.》

희옥이가 목장에 온지 며칠후 어느날 학철은 그와 함께 축사를 돌아보다가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울려나오는 이상한 음향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을 열어보니 퇴근하지 않은 몇몇 청년들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록화물을 보는데 열중해있었다.

《과학기술지식보급을 맡은 기술원동무가 산전휴가를 받다보니…》

조용히 문을 닫으며 학철은 변명비슷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희옥이 아마 그때 일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승인해주시겠어요?》

학철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왜서인지 그는 요즘 희옥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감히 거절하지 못할 중압감을 느끼곤 한다. 희옥이나간 후 학철은 그의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그는 이전에 평범하고 레사롭게 흘러온 모든것이 점차 달라져가듯 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기술학습시간에는 예상외로 많은 종업원들이 참가했다.

물론 학철의 강조도 있었겠지만 보다는 새로 온 연구사처녀가 직접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온축들이 더 많았다.

무슨 모임에서든 언제나 이채를 띠는것은 청년들이였다.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한 속을 용케 뚫고들어온 한 청년이 제앞에 앉은 처녀들쪽을 건너다보며 우습강스레 한눈을 깜박이였다.

《순애동무, 기술학습을 한하는데 달린웃은 왜 입고왔소? 눈이 막 부시구만.》

와— 웃음이 터지자 입심이 센 순애라는 처녀가 발끈해나섰다.

《무슨 상관이예요? 그런데 동문 왜 왔어요? 영화구경도 아닌데…》

따벌처럼 푹 찌르는 처녀의 말에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이때 방문이 열리더니 희옥이가 들어섰다.

방금전까지 이죽거리던 청년은 자라목이 되어 씩 웃츠러들었다.

희옥은 탁우에 자그마한 수첩을 내려놓고 미처 끄지 못한 록화기앞으로 다가가 전원스위치를 눌러졌다.

다시 탁우로 돌아온 희옥은 장대를 쭉 일별하고 나서 첫 물음을 던졌다.

《영화를 좋아합니까?》

호기심을 잔뜩 돋구어 희옥에게 긴장한 시선을 모으고있던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듯 서로 마주보았다.

《어떤 영화가 제일 재미납니까?》

재차 이어지는 희옥의 물음에 청년들의 입이 벌린 조개처럼 헤벌어졌다.

방안은 금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속삭임소리가 물결치더니 벽쪽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 큰소리로 《군사물주제영화입니다.》하고 말했다.

《저… 전 애정류리주제영화도 좋습니다.》

다른 한 청년이 반박하듯 소리치는통에 다시 웃음판이 터졌다.

《연구사동진 무슨 영화를 좋아합니까?》

량불이 붉은 한 사양공처녀가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호호! 나도 군사물주제영화를 좋아합니다.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는…》

그의 대답에 여기저기서 공감인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왜 군사물주제영화를 좋아하는지 누가 좀 말해보세요.》

희옥이 다시 말했다.

모두가 생각을 굴리며 잠잠해있는데 아까 처녀들을 시까스르던 청년이 불쑥 일어서며 《아—거야… 싸움을 하니까요!》 하고는 험악한 웃음을 웃었다.

와— 웃음이 터졌다.

그 청년의 옆구리를 쥐어박으며 키득거리는 청년도 있었다.

한참 같이 따라웃던 희옥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군사물주제영화들을 보면 대체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반영한 작품들이 많은데 전쟁이라 하게 되면 계급이나 민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나라들사이의 싸움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각이한 계급이나 나라들간의 전쟁은 오늘날에 와서 과학기술전쟁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포함하고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치열한 과학기술전쟁의 소용돌이속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인재를 장악하는가, 누가 더 높은 첨

단기술을 개발하는가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마치 저들의 독점물이나 되는것처럼 으시대면서 첨단기술을 무기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도 있듯이 과학기술시대인 오늘날에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노예로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무들!

우리 청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은 곧 민족의 존엄이며 국력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창밖에 서있는 학철이에게는 마이크에서 울려오듯이 똑똑히 들리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후 생각에 잠겨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실 이즈음 그는 안개속을 헤치듯 방황하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다.

김희옥... 그는 분명 자기가 볼수 없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롭고도 아득한 그 무엇을 보고있는듯싶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결승선을 가까이한 마라손선수가 극한점에 이르러 자기의 뒤를 바짝 따르는 상대방에 대한 야릇한 공포감을 느끼며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것처럼 지긋지긋 그의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 4

《이건 굴러온 돌이 배긴 돌 뺨다구, 희옥이 그 애가 가는 곳마다 말썽이라니까. 아무래도 말 좀 해야겠어.》

방금전의 불쾌감이 가는지지 않은듯 광준의 낯색은 좋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학철은 오래간만에 나타난 광준을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물었다.

《헛참, 그 애가 천암봉에 올라간 젊은이들을 잔뜩 휘둥해가지고 몇년전에 우리가 자체로 만든 배합먹이공정을 전부 뜯어놓았다네. 뭐, <마누팍투라> 라나...》

학철의 얼굴은 구름이라도 낀듯 금시 어두워졌다.

《희옥동무가 그런 소릴 한단 말이지.》

사실 그 배합먹이공정은 몇해전에 꾸러놓은것으로서 크지 않은 세계의 발효탱크와 자그마한 분쇄실을 갖춘 공정이였다.

언제부터 현대화를 해본다고 하면서도 생산에 치우쳐 차일피일 미루어오던것인데 끝내는 희옥의 손에 걸려들고만것이다.

엇저녁에는 웬 청년들이 축사화구앞에서 어물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보니 백사십미리 구명탄화구를 백이십미리 구명탄을 쏠수 있게 개조한다고 벽적거리고있었다.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는 학철의 물음에 한 청년이 히죽 웃으며 연구사가 다 계산해본것이니 일없다고 하였다.

학철은 그 청년이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통을 맞던 청년임을 알아보았다.

《나라의 물적자원을 아껴야지요!

연구사동지가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의 지적자원이 조국의 물적자원을 대신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절 보구 풍력이나 태양열을 리용해서 아예 석탄을 쓰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라는게 아닙니까.》

종전에 들을수 없었던 제법 유식한 말이였다.

학철은 시간이 감에 따라 목장의 모든 사람들이 희옥이라는 이 처녀에게 완전히 끌리고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하다면 그 견인력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전번회의때도 그래... 이건 꿈보다 해몽이 더 그럴듯하다고 당장 생산이 바쁜 때 공연히 허파에 바람만 잔뜩 넣어주면서... 정말 야단일세.》

광준이 내뿔듯 말을 던지고 나간 후에도 학철은 점도록 방안의 한점을 응시하면서 앉아있었다.

그후 어둠이 슬며시 깃을 펴기 시작한 목장구내를 걸어가던 학철은 정문옆에 세워진 목장전망도앞에 서있는 희옥이를 보게 되었다. 그냥 지나칠가 망설이던 학철은 희옥의 곁으로 다가갔다.

《희옥동무!》

흠칫 놀라며 돌아선 희옥의 얼굴에 어설픈 미소가 비껴있었다.

《모든것이... 예전대로군요.》

처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우수에 젖은 가을하늘처럼 싸늘한 추억을 불러왔다.

...고향을 떠나기 얼마전이었다.

희옥은 학철이가 내다건 고향의 전망도앞에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학철동무! 제 보기에겐 전망도가 어쩐지 멀리 내



다보고 설계하지 못한것 같아요! 부침판면적이 제한된 우리 고장의 실정을 고려한것 같지도 않구요.》

《하하! 회옥동무가 소심해졌구만!

부지런한 농군에겐 나쁜 땅이 없다구 우린 벌써 목장을 추켜세운 경험이 있지 않소! 이제 주변의 야산들과 습지들까지 모두 개간하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년 땀땀기를 한 후 목장이 더 커지고 수요가 높아질 땐 도대체 어딜 개간하겠어요?

또 고향의 환경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보았어요? 여기에 어디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처녀의 실망에 젖은 목소리는 학철의 가슴에 마가울 첫서리처럼 차갑게 찾아들었다.

《그럼 동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학철의 언성이 높아졌다.

《제가 안타까운건… 나 자신도 바로 그 물음에 대답할수 없다는거예요! 마치 고향땅이 나에게 그것을 묻고있는것만 같은데… 전… 전…》

회옥의 얼굴에 한순간 서글퍼보이는듯 한 실낱같은 미소가 피곳 어렸다사라졌다.

그후 학철은… 회옥을 다시 볼수 없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랄가, 오늘 또다시 묘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회옥의 이야기를 듣게 될줄이야…

《제 생각엔 저 천암봉은 더 개간할것이 아니라 혼성림을 조성하는게 환경보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더 리익이 될것 같아요.

또 여기 아래쪽 메위버린 습지엔 소출이 적게 나는 강냉이대신 아예 널직한 못을 파는게 어떨가요? 여기서 기른 큰 단백풀은 먹이로 쓰고 돼지배설물로는 양어도 하자요!

그리고 해마다 파내는 수백톤의 양어장감탕으로는 좋은 유기질비료도 만들어 밭에 뿌려 소출을 높이지요!

축사는 2층, 3층으로 짓고 그옆엔 미생물발효저장고, 팽화먹이처리장, 유기질비료공장, 더 나아가서 고기가공공장 같은 현대적인 공장들을 쭉 세우는게 어때요? 한마디로 목장이라기보다 공장이라는 느낌이 들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 바라는 고리형순환식생산체제와 비알곡먹이에 의한 집단사육, 속성사육을 능히 실현하고 우리 목장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을거예요!》

학철은 열정에 넘쳐 손세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회옥이를 바라보며 문득 흘러간 나날의 한토막을 추억하였다.

언제였던가? 언제 저런 눈빛으로 회옥이가 자기를 바라보았던가?

…그때 고향에서는 회옥이를 비롯한 청년들이 이미 있던 낡은 축사를 헐어내고 새 축사를 일떠세우는 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어느날 저녁 학철은 곡괭이를 메고 산에 올랐다. 세멘트가 떨어져 공사가 중지되게 되었던것이다. 학철은 언젠가 돌격대시절 병실을 지을 때 석비레와 진흙, 석회석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세멘트를 대용했던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런데 석회석을 얻자면 멀리 이웃군에까지 가야 했다.

먹물을 풀어놓은듯 캄캄한 어둠속에 잠긴 숲속은 한치앞도 분간키 어려웠다. 한참 걷고있는데 탕— 탕— 탕— 어디선가 둔중한 곡괭이질소리가 들려왔다. 눈길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던 학철은 파고세운 말뚝처럼 떡 굳어져버렸다.

산중턱에서 전지불이 반짝이고있었다.

학철의 발걸음은 자석에라도 끌린듯 그곳으로 향해졌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곡괭이소리가 푹 그쳤다.

《누구예요?》 뜻밖에도 그것은 공포에 질린듯한 처녀의 목소리였다. 학철은 대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보았다.

(회옥이가 아닌가?)

가슴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했다.

《회옥동무!》

《아니?!》

한순간 놀란듯 한 처녀의 목소리, 학철은 너무 반가와 처녀에게 성큼 다가섰다.

어설픈 전지불빛에나마 곱게 번진 처녀의 모습이 안겨왔다.

세월은 새침하기 그지없던 어린 소녀를 아름답고 다감한 처녀로 변모시켜놓았다.

언제부터인가 학철은 몰라보게 변한 이 아릿다운 처녀앞에 자기가 더는 철부지 그 시절처럼 《회옥이.》하고 부를수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무얼 하오?》 학철은 전지불로 금방 파헤친 곳을 비쳤다.

《저… 석회석을 찾아볼가 해서…》

마르고 툴 처녀의 입술에 알릴듯말듯 한 미소가 어렸다.

《석회석?!》 되묻는 학철의 눈길에 처녀는 대충 감싼 봉대오리사이로 빨갛게 피가 스며배어나온 손등을 뒤로 슬그머니 감추었다.

학철은 흥벽이 쿵 울리는듯 한 충격을 느끼며 처

너의 손에서 곡괭이를 뺏아들었다.

《씩 내려가오! 그대 동무만… 동무만 고향을 사랑하는것 같소? 다른건 몰라도 이런 일이야 왜 동무 혼자서 애를 쓰는지요?》

땀젖은 머리칼을 비다듬어올리는 희옥의 두눈엔 맑은것이 소리없이 고여올랐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심정을… 리해해주세요.

전 지금껏 나 자신이 남들 못지 않게 고향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 낡은 축사들을 바라볼 때면 죄스러워지군 해요!

파연 고향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일가요?

그건 고향땅의 오늘만이 아닌 래일에 대한 불타는 사랑, 그 래일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이 아닐가요? 그런데 전 여직껏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학철은 세차게 곡괭이를 휘둘렀다.

(희옥동무, 내가 너무했소!)

동천하늘이 희뵈히 들릴무렵 그들은 드디어 천암봉서쪽 후미진 곳에서 석회석매장지를 찾아내고야말았다.

때여낸 석회석조각을 보물처럼 감싸쥔 처녀의 두눈은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주위에선 떠오르는 아침해살에 단풍나무잎새들이 빨강게 타고있었다.

《아이, 굿네!》

황홀한 명상에 잠긴듯 희옥이 빨간 단풍잎 하나를 따들었다.

《음, 정말 굿구만! 생각나오, 그때 이 단풍나무이야기때문에… 내가 동무를 울리던 일이 말이요!》

추억에 젖은듯 한 학철의 말이였다.

《아이참, 난 벌써 잊어버렸는걸요! 호호》

희옥에게서 기쁨으로 가득찬 랑랑한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비록 화려한 꽃도, 탐스런 열매도 없건만 봄내, 여름내 제 한몸을 태워 환희로운 가을을 맞이하는듯 한 단풍나무!

정녕 그것은 고향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깎그리 불태우는 깨끗하고 불같은 저 처녀의 모습이 아닐가?

그후 학철은 희옥이와 함께 이악하게 고향땅을 꾸려나갔다.

고난의 행군 흔적이 력력한 낡은 축사를 하나둘 헐어내고 현대적이고 아담한 축사들을 일떠세우기 시작하였다. 산자드락에 널린 뽕기밭들을 시원스럽게 밀어낸 포전마다에 가을이면 팔뚝같은 이삭들이 무겁게 실리군 하였다.

고향땅은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그 나날 학철의 가슴속에는 희옥에 대한 남다른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줄기 시내물처럼 한곳으로 흘러갈줄 알았던 그들의 인생길이 뜻하지 않던 암벽에 부딪쳐 두갈래로 갈라질줄이야…

전망도앞에서 희옥이와 헤어진 학철은 길잃은 사람처럼 허둥허둥 걸어갔다. 한곳에 이르러 문득 결음을 멈춘 그는 자기가 어린시절의 소중했던 추억이 깃들고 가슴부푸는 사랑의 꿈을 엿어보던 그 단풍나무아래에 서있음을 깨달았다.

가벼운 바람결에 키높이 자란 단풍나무에서 무수한 잎새들이 그 무엇인가를 속삭이듯 끝없이 살랑거리고있었다.

## 5

밤낮이 따로없는 개간전투의 결과 천암봉기슭에는 상당한 면적의 빗질해놓은듯 한 밭이랑이 물결쳐갔다.

며칠후 닭의 벋쳐럼 도드라져오른 산의 정점에서 광준반장과 희옥이 사이엔 뜻하지 않던 충돌이 일어났다.

《넌 제일이나 할게지 웬 참견이냐? 어서 물러서질 못하겠니?》

광준의 얼굴은 험상궂게 이즈러졌다.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이란 말이에요?》

목장의 래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고집스레 뇌이는 희옥의 말이였다.

《목장의 래일?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을 하랬니? 넌 우리가 이 개간전투장에 얼마나 많은 땀을 바쳤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때… 넌 어디 가있었니?》

잠시 동안을 두었던 희옥은 또박또박 짝어내듯 말했다.

《저도 바로 그 피땀이 소중하고 귀중하기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그대 오빠의 눈엔 오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실사 천암봉을 다 개간한다구 치자요!

그다음에 혹시 잔솔밖에 없는 이 천암골짜기에 장마라도 지면 그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디마디에는 부인할수도 뿌리칠수도 없는 진실이 깃들어있었다.

《넌 마치도 래일이라도 당장 사태가 날것처럼 말하누나! 하지만 난 너를 모르겠다. 왜 코코에 휘방을 놓는지…》

광준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뺨 돌아서버렸다.  
광준에게서 사연의 전말을 전해들으며 학철은 이  
윅토록 말이 없었다.

사실 어제 저녁 희옥이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  
었다.

희옥은 부탁했던 팽화떡이장치의 부속품이 어떻  
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학철은 언젠가 그의 부탁대  
로 군안의 공장들에 들렸던 일이 생각났다.

《아, 그것 말이요?》

군에 들러 두루 알아보니 거기 설비를 가지고서  
는 동무가 요구하는 그런 정밀도를 보장하기 어렵  
다오! 그래서...》

《그냥 돌아섰단 말이지요?》

희옥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할수 없지 않소? 사정이 그런걸...》

《정말 섭섭하군요. 사실 전 여기로 내려올 때  
부기사장동지나 오빠가 적극 도와줄것이라고 믿었  
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진 부기사장동지나  
오빠가 당면한 오늘에서 발을 뺄지 못하고 래일을  
내다볼줄 모르는거예요!》

희옥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할듯 하더니 그만 발걸  
음을 돌려버렸다.

지금도 학철에게는 희옥의 그 날카로운 말마디들  
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있었다. 하지만 학철은 생  
각할수록 마음이 아팠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  
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목장이 시련을 겪을 때 도리머리를 저으며 아예  
목장을 없애자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철이와 광준이를 비롯한 목장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 손끝에 피가 지도록 새땅을 일구고  
축사도 새롭게 일떠세웠다.

그래 이것이 희옥이에게는 그토록 보잘것 없는것  
으로 보인단 말인가?

《부기사장동지!—》

벌칙 문이 열리더니 회계원처녀가 뛰어들어왔다.

《사급니다, 사고!》

《뭐요!》

깜짝 놀란 두사람이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가까스로 숨을 돌린 처녀는 2호동쪽을 가리켰다.

《돼지들이... 똥땅 쓰러졌어요!》

학철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들이 달려갔을 땐 벌써 호동이 터질듯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대고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얼굴이 검검하게 질린 광준은 허둥대며 서있는  
사양공처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전 사실... 연구사동지가 준것밖에는...》

낮색이 하얗게 질린 처녀는 금시 울상이 되어버  
렸다.

《아니, 왜들 그러니까?》

등뒤에서 희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돼지에게 다  
가가 침착하니 들여다보던 희옥은 가볍게 웃음지  
으며 말했다.

《이걸 보고들 그렇게 놀랐군요!》

걱정놓으세요! 이젠 새로운 속성발효떡이첨가제  
인데... 처음 먹이면 돼지들이 마치 취한것처럼 쓰  
러져 쿵쿨 잠만 잡니다. 아마 지금쯤 깨여날 때가  
되었을겁니다.》

희옥의 말을 듣기라도 한듯 기척없이 누웠던 돼  
지들이 부시럭거리기 시작한다.

《거 정말 신통하구만.》

누군가 허를 차며 감탄했다.

불과 몇분새에 돼지들이 몸을 푸시시 떨며 모두  
일어섰다.

《그러니 알긴 알아야 하겠구만.》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소동에 놀란 일이 우스워  
웃고떠들며 흩어져갔다.

호동에는 학철이와 광준반장, 연구사 희옥이만  
이 남았다.

축사가 조용해지자 광준은 쌓였던 불만을 터뜨  
려놓았다.

《여긴 과학연구실험을 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고  
기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목장이다.

제발 부탁인데 더는 주인들의 일에 간참하지 말  
거라.》

《그러니 전 손님이란 말인가요?》

잠시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희옥은 예상외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만약 제 행동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오빠 주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룩한 재부만으로 자기를 주인이라고  
뽕뽕하게 말할수 있을가요?

오늘의 대진군에서 담보는 침체이며 퇴보가 아난  
가요. 어제날의 투쟁이 오늘을 위한것이였다면 오  
늘의 투쟁은 마땅히 더 좋아질 래일을 위한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봐요!

래일로 이어진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주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참 창밖을 내다보던 광준은 노여운 빛이 사무  
친 눈을 곧추 뜨며 희옥을 향해 내쏘았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때다. 시간이 모든걸 증명할테니까...》

광준은 이 말을 남기고 썩— 하니 축사밖으로 나가버렸다.

싸늘한 땀기가 축사안에 퍼돌았다.

희옥은 가까스로 자신을 지탱해내는듯싶었다.

파르르 떨리는 그의 입가엔 이지러진 미소가 한 가닥 연하게 실려있었다.

저녁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늘은 감빛으로부터 연보라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 6

썩— 썩—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창살처럼 내리쬐인다. 폭우는 쉼 사흘째 계속되고있었다.

번쩍! 캄캄한 어둠을 옥몰어젖듯 비수같은 섬팡이 대지우에 날아와 박혔다.

그러면 대지는 아픔에 못이겨 신음하듯 거대한 몸체를 비틀며 《짜르릉—》하는 무너지는듯 한 소리를 냈다.

수십년만에 들이닥친 장마는 천암봉의 개간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뜻밖에 닥쳐온 재난앞에서 학철은 한순간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얼굴이 킁킁하게 질린 광준은 마치 냇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사태속에 뛰어들었다가 심한 부상을 당했다.

일을 당하고보니 학철은 왜서인지 희옥이 생각부터 들었다.

이럴 때 마침 희옥이가 자리를 뜬것이 다행스러웠다. 팽화떡이장치에 쓸 정밀부속품을 깎아오겠다고 자리를 뜬 희옥이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학철은 얼굴을 싸쥐고 두팔을 기댄채 아직도 비가 줄금줄금 내리고있는 창밖을 향해 앉아있었다.

책상우에는 큰물피해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고기생산계획을 일부 조절해달라는 학철의 의견서가 채 쓰다만채로 놓여있었다.

정문옆에 세워놓았던 전망도판이 세찬 비풍에 빼격이며 위태롭게 서있었다.

마침내 한귀통이가 찢겨진 전망도가 비풍에 애처롭게 펄럭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단 한번의 폭우에 씻겨내린 개간지처럼 그가 황홀히 펼쳐보이려 했던 리상이 과연 어떤것이었던가를 말해주는듯싶었다. 그렇게 회망에 차서 그려보고 설계한 그것이 결국은 한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사고였단 말인가?!...

젖은 머리칼이 흘러내린 희옥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동무의... 리상의 전부였군요!》

가슴을 파고드는듯 한 그 목소리.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고향에 대한 그의 사랑이 과연 희옥이만큼 뜨겁지 못했단 말인가?

그가 펼쳐보려 했던 리상과 희옥이가 그려보았던 태일...

지금껏 그가 말해온 고향에 대한 사랑은 한갓 오늘에밖에 머무르지 못한 사랑이었다.

줄기없는 샘이었다.

종내 한귀통이가 찢겨져 너털거리던 전망도가 철썩 하고 땅우에 떨어져버렸다. 그것을 바라보던 학철은 끝내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찌르릉—》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학철이가 송수화기를 집어들자 귀에 선 데설곳은 목소리가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천암! 천암목장이요?》

여긴 ××기계공장입니다.

누굽니까? 부기사장동무라구요? 거기 처녀연구사 동무가 도착했습니까? 안했다구요? 제길... 꼭... 차에 태워보냈어야 하는건데...》

송수화기에서 성급하게 흘러나오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 학철은 희옥이가 수십리가 넘는 그 기계공장에서 무거운 부속들을 지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기계공장에서는 희옥이에게 며칠후 목장쪽으로 가는 차편에 부속품을 실어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심상치 않게 번져지는 날씨를 보자 마음에 불이 당긴 희옥은 로동자들의 곡진한 만류도 물리치고 그밤으로 무작정 지름길을 잡아 떠났다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학철은 한곳을 응시하며 점도록 앉아있었다.

물뿜스러운 비바람에 창문이 저절로 젖혀졌다.

그 서슬에 책상우에 놓여있던 큰물피해정형 대책제의문건종이들이 산산이 흩어져 날리기 시작했다. 허나 학철은 조각상마냥 만년필을 전혀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지금 이 시각도 세찬 비바람속을 뚫고 무거운 부속품배낭을 진채 험한 령길을 뚫아오르고있을 희옥이...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한 처녀가 배낭과 함

게 데구루루 굴러떨어진다.

이를 악물고 다시금 일어서는 처녀...

아, 정녕 희옥의 가슴에 소중히 붙타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얀 종이우에 꼭 눌러짚은 만년필촉에서는 흑점 인양 파아란 잉크가 퍼져나가고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희옥의 날카롭고도 준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오늘의 대진군에서 답보는 침체이며 퇴보입니다. 어제날의 투쟁이 오늘을 위한것이였다면 오늘날의 투쟁은 마땅히 더 좋아질 래일을 위한것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고뇌와 피로가 한순간 온몸을 덮쳐눌렀다.

학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골짜기아래쪽에서 삼짙 소리, 곡괭이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 팽화먹이장치가 성공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부터 강냉이짚, 콩짚, 웬간한 떨기나무까지도 뭇땅 먹이로 만든다는거겠소?》

《그뿐인줄 알아요?》

지금 파는 이 양어뭇에선 땅 몇정보에 해당하는 량의 먹이가 거저 얻어진다지 않아요? 거기에는 술한 물고기와 수백톤의 유기질비료까지...》

《하! 그러니 지금껏 우린 코앞에 먹이원천을 놓고도 제 닭 잡아먹는 소경처럼 나라의 귀중한 산림까지 못쓰게 만들면 했구만!》

《정말 지식은 광명이라더니... 난 이번 피해복구나 끝나면 농장대학시험을 치겠소!》

《나두!》

《나두요!》

겉싸게 삼짙이며 곡괭이질을 해대던 청년들이 활기와 신심에 넘쳐 주고받는 말이였다.

깊은 자책에 잠긴 학철은 어둠속에서 희옥이를 찾았다. 은연중 그가 혹시 어디엔가 쓰러져있지 않을까 하는 위구심이 머리를 쳐들었다.

어디선가 성난듯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안된다. 이 몸을 가지군 안돼!》

《오빠, 제발 소리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어둠속에서 라이더가 절격거렸다.

학철은 그 불빛에 광준반장과 희옥의 얼굴을 톡 톡히 가려볼수 있었다.

《희옥아! 날 용서해라.

난 사실 너를 고향을 버리고 떠난 철새라고만 생각하면서 고깝게만 보아왔다.

헌데 오늘날 돌이켜보니 난 고향을 버린게 아니였어. 아니, 더 뜨겁게, 더 소중히 사랑했다고 할수있지... 이제 푹푹히 알았다.

래일로 이어진 뜨거운 애국의 심장을 간직한 사람만이 이 땅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할수 있다는것을 말이다.》

사실 그것은 희옥이에게 학철이가 하고픈 말이였다.

그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느끼며 옆에 선 나무에 몸을 기대었다.

아, 이 땅을 사랑하는 저런 불타는 청년들이 있어 우리의 고향, 우리의 조국은 나날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통성하는것이 아닌가?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음이 났다. 삽이며 곡괭이를 멘 목장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나타났던것이다.

그 소음속에 간간이 들리던 목소리는 잦아들고 말았다.

학철은 그들속에 섞여 힘껏 곡괭이를 휘둘러대기 시작하였다. (희옥동무! 날 용서하오)

새날이 희뵈히 밝아오고있었다.

×

《연구사동무가 떠나갔습니다.》

군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학철이에게 회계원처녀가 열쇠를 내밀며 말했다.

학철은 이전에 자기 방이였던 그 방문을 열었다. 창가에 활짝 핀 수선화꽃잎에선 금방 물을 먹은 듯 물방울이 이슬처럼 어롱져 평롱한 빛을 펼치고 있었다.

낮익은 크고 산뜻한 방이 왜서인지 예전과 달라져보였다.

먹물을 듬뿍 찍어 단숨에 내려쓴 족자가 유표하게 눈에 안겨들었다.

《자기 땅에 밭을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정돈된 방안은 마치 누군가 잠간 방을 비운것만 같았다.

책상우에 걸봉을 붙이지 않은 한통의 편지가 놓여있었다.

《부기사장동지!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보던 책들과 실험기구들은 부기사장동지에게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대로 두고 갑니다.

# 사랑하는 제자들아

김 명 옥

톡톡...

편지의 글줄마다 뜨겁게 흐르는  
제자들의 숨결과 맥박  
나의 심장 더욱 높뛰게 하구나

장하구나 나의 제자들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보람찬 로동생활의 첫 자욱을  
세포등판에 새겨가는 제자들아

붉은기 날리는 돌격대병실은  
제자들 한식솔로 사는 정다운 집  
아담한 병실 마당가벽보엔 새겨져있으리  
풀판을 펼쳐가는 붉은 도표  
물라보게 성장한 미더운 모습

지금 제자들이 개간하는  
풀판조성전투장에  
메아리치는 랑만의 노래소리  
보여오누나 손에손에 추켜든 화불  
밤하늘을 태우며 타오르는 우등불...

내 그러볼수록 황홀해지는 마음

그러보노라

염소떼 양떼 구름처럼 흐르는 등판  
멋쟁이로 일떠선 가공공장과  
줄지어 오고가는 운반차들의 끝없는 행렬

천년을 내린 잡관목뿌리도  
번쩍이는 삼날아래 자취를 감추고  
만년을 내린 바위의 뿌리도  
돌격대기발아래 녹아없어진다는  
제자들의 편지 가슴 흐뭇하게 하거니

천년세월 잠자던 등판을 깨우는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진군의 북소리  
대자연개조의 아름다운 선물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그네들 드넓은 등판에 올려가고있구나

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인생의 보람은 개척자의 삶에 있고  
인생의 삶의 자욱 초행길에 남길 때  
그 삶 조국이 알고 인민이 기억함을  
그네들은 스승의 품과 교정을 떠나  
드넓은 등판을 삶과 혁명의 교정으로 삼고  
보람찬 로동의 첫 자욱을 새겨가고있구나

그대신 아름다와진 고향의 새 모습을, 열렬하고  
도 따뜻한 고향사람들의 고마운 정을 안고 떠났니  
다. ...》

그는 봉투를 손에 든채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야흐로 무르녹는 가을별에 산야가 붉게 탄다.  
빨간 단풍잎새들이 미풍에 가볍게 하느적거리고있  
었다.

아마도 단풍의 아름다움은 가을에 가서야 알게  
되는것 같았다.

《희옥동무-》

학철의 목소리는 골과 골을 깨치며 오래도록 울  
려퍼졌다.

×

그로부터 몇달후 트렁크를 든 희옥이가 고향의  
동구길에 들어섰다.

그는 목장의 기사장으로 배치되어오는 길이  
였다.

소식을 듣고 마중나오던 고향사람들은 갈  
림길어귀에서 희옥이와 정겨운 이야기를 속  
삭이고있는 학철의 모습을 보고는 무춤 서버  
렸다.

쉬쉬- 하며 돌아서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  
까불며 나서는 조무래기들을 향해 광준은 눈  
을 부라리며 휘- 참새떼 날리듯 손을 내저  
었다.

《헛참! 적꼬만것들이 뭘 보겠다고... 방해들 말  
고 저리 썩 물러가지들 못해!》

목소리를 죽이며 한바탕 으르고난 그는 사람중  
게 꺾꺾 웃었다.

맑고 유정한 산골개울물만이 그들의 속삭임을 귀  
동냥해싯고 흐르는듯 조잘조잘 끝없이 구울러흐르  
고있었다.

## 소설가 김문창의 창작적개성

장편소설 《탄부》, 《백금산》, 《열망》...

이 작품들은 오늘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소설가 김문창의 이름과 함께 뚜렷이 남아있는 주체소설문학의 성과작들이다.

로동계급의 투쟁현실속에서 탐구된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제기과 개성적인 성격창조, 진실한 생활 반영으로 특징지어지는 김문창의 창작적개성을 깊이있게 분석하는것은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창작전투에 펼쳐 나신 작가, 예술인들에게 참고할만 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문창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로동계급형상창조에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친 재능있는 작가이다. 창작활동의 첫걸음을 댄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작가는 자기 작품의 대부분을 현시기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하는데 바쳤다. 우에서 언급한 세편의 대표적장편소설들은 그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로동계급형상창조는 비단 김문창이 처음으로 창작활동을 벌린 새로운 주제영역이 아니다. 주제문학사의 갈피에는 윤세중, 김보행, 변희근, 김리돈을 비롯하여 우리 당에 충실한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형상대상으로 정한 수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이 기록되어있다.

하다면 그들과 달리 김문창이 이 주제영역에서 소설가로서 자기의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문학사에 당당히 자리잡을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김문창이 작품들에 로동계급의 투쟁현실속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찾아내어 제기하고 해명한데 있다.

김문창은 소설창작에서 작품에 제기할 사회적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린 작가였다.

...어떻게 써여진 작품이 시대와 함께 남는가? 그에 대해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작품이 담고있는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이라고 생각한다. 명작들은 폐외없이 모두

가 당대의 사회본질을 담아 해결을 바라는 심원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하여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사회적문제성은 작품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곧 작가의 생명력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김문창의 소설들이 절박한 시대적요구와 현실적의의를 띤 사회적문제를 구현하게 된것은 그가 새로운 사회적문제의 제기를 작가와 작품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보고 여기에 작가적 사색을 집중시킨데 전적으로 있다.

당을 받드는 로동계급의 순결한 량심에 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뜻깊게 해명한 장편소설 《탄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대중적영웅주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참된 동지적사랑과 믿음의 견지에서 해명해나간 장편소설 《백금산》,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새시대 자력갱생의 참된 의미를 제기하고 깨우쳐주는 장편소설 《열망》 등은 그 뚜렷한 레로 된다.

소설가 김문창의 창작적개성은 또한 성실하고 진취적인 로동계급의 성격에 대한 뚜렷한 부각에서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작품들과 함께 김문창의 이름이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억되고있는것은 명실공히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성격형상에 있다.

김문창은 동시대의 작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개성있는 성격창조에서 묘기를 지닌 재능있는 작가였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성격탐구에 창작의 모를 박고 창작활동을 벌린데 그 원인이 있다. 작가는 후날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소설이 새롭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주인공의 성격이 새롭고 작품이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점이 새로운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형식이 새로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그것이 아니다. 작품발표에 급급해하면서 무엇인가 빨리 써야겠다는 욕망과 의무감만을 가지고 써서는 안된다. 쓰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창작적흥분을 안게 되었을 때 써야 한다.

그런데 그 창작적흥분이 언제 오는가. 새로운 문제성, 새로운 성격을 발견하였을 때 온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의 태창국, 박병률, 장사명, 장편소설 《탄부》에서의 김형석, 김영국, 김미순, 장편소설 《백금산》에서의 김철환, 류혁, 신양건, 강정식, 장편소설 《열망》에서의 전영범, 최관형, 안명신, 한옥련… 등 여러 대표적인물들은 그 형상의 참신성과 비반복성으로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속에서 성격분류의 대표적인물들로 살아숨쉬고있다.

김문창의 창작적개성은 또한 생산실천과의 밀접한 결부속에서 극적으로 켜인 구성조직에서 표현된다.

심각한 사회적문제점과 개성있는 성격형상으로 하여 첫시작부터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김문창의 소설들은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극적으로 켜여진 구성조직을 통하여 작품의 건인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였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는 산속에서의 양방목문제, 장편소설 《탄부》는 초박층생산을 위한 투쟁과정을, 장편소설 《백금산》은 광물증산을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장편소설 《열망》은 생산정상화와 선압기제작과정을 그리고있다. 이처럼 김문창은 생산실천과 밀접히 련관되면서도 강한 극성을 띠도록 구성조직을 해나가고있다.

그의 대표적작품들이 모두 텔레비죤연속극과 텔레비죤연속소설로 각색되어 광범한 대중의 관심을 모은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대답으로 된다.

이처럼 김문창은 극을 알고 그것을 작품창작에 적극 구현한 재능있는 작가였다. 그는 소설창작에서 극적인 구성조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적도 있다.

…장편소설에는 극적인 굴곡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쥐었다놓았다하면서 극적인 세계에 끌고들어가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장편소설가는 극을 알고 이야기줄거리의 모든 계기들에 극이 조성되도록 구성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

재능있는 소설가 김문창의 창작적개성을 논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것은 로동계급의 생활감정을 담은 소박하고 진실한 언어형상이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며 작가는 언어의 예술가이다.

김문창의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것은 김문창이 성실하고 진취적인 로동계급의 생활감정을 담은 소박하고 진실한 언어형상을 무기로 하여 로동계급의 투쟁모습과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실감있게 그려낸데 있다. 김문창의 문체는 결코 화려하거나 고도로 지성적이며 분석적이지 않다. 한생을 로동계급주체의 작품창작으로 불태운 작가의 언어는 로동계급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그대로 드러내보일수 있게 진실하면서도 소박한것이 특징이다. 또한 로동계급의 사고방식 그대로 명백하고 직관적이면서도 랑만이 넘치고 속도감이 차넘친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주의현실주체의 로동계급형상작가 김문창의 창작적개성을 론하였다. 현시대의 작가, 예술인들은 선행한 재능있는 작가들의 창작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격변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박 승 일

## 소 개

# 통일의 그날에로 달리는 무외월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입에 인차 오르게 되여야 하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게 되여야 한다.》

가사 《통일월차 달린다》(1961. 박산운 작)는 우리 문학사에서 자기의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오직 통일을 위해 살고 통일로 지향된 시창작 활동을 벌려온 시인 박산운은 가사 《통일월차 달

린다》를 창작하여 북,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에게 외세에 의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겨레가 모여살 그날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가사는 창작된지 50년이 넘지만 6.15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그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다.

이 가사형상에서 남달리 특징적인것은 하나의 민



죽, 하나의 강토가 둘로 갈라진 력사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아픔과 비애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국이 통일된 후에 펼쳐질 환희와 랑만에 대해 눈앞의 현실을 보듯이 매우 방불하게 그린것이다.

통일렬차 달린다 부산행렬차 달린다  
통일렬차 달린다 호남행렬차 달린다  
칠백리 락동강도 차창에 흘러들고  
지리산봉이들도 눈앞에 다가온다  
그립던 마음들을 차칸마다 싣고서  
제주도 한끝까지 한달음에 달리자  
질풍같이 물고개세 통일의 무쇠철마  
차창밖에 어둑어둑 어둑 어둑어둑 어둑어둑  
남녘형제 반겨온다

가사를 음미해보노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며 발걸음이 빨라진다.

금시 무쇠철마를 타고 남반부로 나가는 심정이다.

질풍같이 달려가는 통일의 무쇠철마—이것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질풍같이 달리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고 기백이다. 차창에 칠백리 락동강도 흘러들고 그립던 마음들을 차칸마다에 싣고서 질풍같이 달리는 통일렬차의 환희로운 감정이 금시 온 마음에 가득차오르는것 같다.

이와 같이 가사는 1절에서부터 추상적인것, 선언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화폭들의 연결로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절, 3절에서도 그 전개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상상이면서도 현실처럼 안겨지는 랑만적인 화폭들이 려져된다.

직통렬차 달린다 동해선 끼고 달린다  
직통렬차 달린다 남해선 끼고 달린다  
동해의 솟는 해도 반기며 따라서고  
다도해 동백꽃도 춤을 추며 설레인다  
...

통일렬차 달린다 부산행렬차 달린다  
직통렬차 달린다 평양역 떠나간다  
...

얼마나 랑만적인 형상인가.

동해선을 끼고 남해선을 끼고 달리는 통일렬차를 동해의 솟는 해도 반기며 따라서고 다도해 동백꽃

도 춤을 추며 설레인다. 모든것을 그리운 남녘형제와 함께 누리고싶은 절절한 동포애, 민족애...

참으로 가슴뜨거운 현실이 랑만적으로 차넘치는 형상이다.

가사에는 1960년대 당시의 현실이 마치 눈에 보이듯이 생동하게 그려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금도 뜬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보고 느끼는 바를 소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대번에 친근감이 가고 누구의 입에나 인차 오른다. 즉 가사는 읽고 부르는 즉시로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지고 그만큼 뜻이 인차 안겨온다.

평가사는 뜻이 깊고 알기 쉬운 가사, 누구의 입에나 인차 올라서 때없이 흥얼거리며 부르게 되는 가사, 인민이 쉽게 부르고 오래 기억하는 가사가 평가사이다.

《통일렬차 달린다》는 이 멋을 다 갖춘 평가사이다. 이 가사에는 요란한 말, 화려한 말이 없지만 소박하면서도 통속적이고 랑만적인 형상속에 통일의 무쇠철마가 동포애의 정을 싣고 혁명의 수도 평양역을 떠나 직통으로 부산까지 달려가는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 가슴벅차게 안겨든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두줄기궤도를 따라 통일의 무쇠철마를 힘차게 몰아가고있다.

통일의 무쇠철마—이는 단순히 랑만적형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이 요구하고 인민이 요구하는 통일념원의 가슴뜨거운 응결체이다.

가사는 두줄기궤도를 따라 경쾌하게, 질풍같이 내닫는 통일렬차의 바퀴소리를 려상시킨다.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마다 마치 통일렬차에 몸을 싣고 어깨를 규칙적으로 흥떡이는듯한 랑만적서정에 한껏 부풀게 한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의 열망과 불굴의 기백을 형상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대체적으로는 절절한것, 비장한것 등으로 그 양상이 정극적이었다. 이에 비하여 가사 《통일렬차 달린다》는 밝고 랑만적이며 빠르고 경쾌한것으로 하여 다른 많은 조국통일주제의 가사형상들에서 특이하게 이채를 띤다.

가사는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통일조국의 미래를 앞당겨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로 되고있다.

라 경 춘

## 한설야의 창작활동과 장편소설 《대동강》

한설야(1900—1976)는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해방전 리기영, 조명희, 송영 등과 함께 프로레타리아소설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으로 활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설야나 송영도 역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한설야는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한일합병에 관한 한일조약》으로 어린 마음에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은 통분함과 우울감이 가득찼고 빼앗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26년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여행을 마치고 1927년 1월에 조국에 돌아온 그는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으로 혁명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카프작가의 한사람으로서 문학예술을 통하여 대중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창작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단편소설 《파도기》(1928)와 《씨름》(1928)을 창작하여 로동동맹의 사상을 표현하였다.

그는 1930년이후 《조선지광》잡지와 《조선일보》에서 편집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던중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카프사건에 관계된것으로 하여 감옥생활도 하였다.

이 시기 그는 쪼들리는 가정생활과 일제침략자들의 혹심한 탄압속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리었다. 그리하여 단편소설 《철도교차점》(1933), 《능음》(1936), 《딸》(1936), 《강아지》(1938), 《모색》(1940) 등 많은 단편소설들을 창작발표하였다. 특히 장편소설 《황혼》(1936), 《청춘기》(1937), 《초향》(1938) 등을 창작발표하여 무산계급의 계급적해방을 지향하는 자기의 세계관을 뚜렷이 드러냈으며 예술적으로도 비교적 세련된 수준을 보여주었다.

1941년에 자서전적장편소설 《탑》(1부)을 발표하고 편이어 1942년에 2부와 3부인 《열풍》을 창

작하였으나 일제에 의하여 출판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해방전에 그가 창작발표한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취급하면서 무산계급의 감정과 세계, 새생활에 대한 리상을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하여 그는 로동계급주체작가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해방후 한설야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입과 배려에 의하여 여러 중임을 맡아 수행하면서 창작활동도 정력적으로 벌리었다.

그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0월 14일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사실을 소재로 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품도와 덕성,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의 나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이 바쳐온 불타는 애국정신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민족의 위대한 수령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형상한 단편소설 《개선》(1948)을 창작발표하여 수령형상문학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장편실화 《**김일성**장군》(1946), 수령형상소설인 《혈로》(1948)를 창작발표하였다.

이것은 한설야가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른 한사람이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장편소설 《대동강》(3부작, 1951—1954)과 단편소설 《승냥이》를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을 반미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에 자신을 따라세우지 못하여 1960년대 후반기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애국렬사릉을 돌아보시다가 떠나간 우리 작가들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한설야의 이름도 불러주시었다.

오늘도 한설야는 영생의 언덕에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장편소설 《대동강》은 3부작으로 된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제1부 《대동강》(1951), 제2부 《해방탑》(1951), 제3부 《통악산》(1954)으로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강점지역에서 벌린 평양인쇄공장 노동자들의 애국적투쟁을 반영하고있다.

현재까지는 작품의 창작동기에 대하여 전해지는 것이 없기때문에 체험문학인지 취재문학인지에 대하여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한설야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본성과 만행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후방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과 숨결을 같이한것만은 작품의 내용을 보아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작품의 제1부는 주인공 점순을 비롯한 평양인쇄공장 노동자들이 적들의 신문 첫호발간을 파탄시키는 이야기, 제2부는 미제의 허위선전을 폭로하고 애국자들을 구출하는 이야기, 제3부는 파괴된 공장을 복구건설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이야기줄거리로 하면서 준엄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노동계급의 선봉적역할문제를 기본주제로 하고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양인쇄공장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일하던 점순은 미국놈들의 폭격에 중상당한 어머니때문에 미처 후퇴를 하지 못하였다.

적들이 강점한 후 처음으로 거리에 나섰던 그는 미국놈들의 거만한 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였으며 사동탄광의 탄부였던 덕준이를 만나 그의 영향밑에 투쟁에 나선다.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남북을 한 다음 무연탄운반일을 하면서 적들의 전화선을 끊고 빠라도 뿌리며 인쇄공장에 들어가 상락이와도 손을 잡고 문일이, 동수, 태선 등을 투쟁에 망라시킨다. 그리고 기계설비들의 파괴, 기계부속들과 활자들을 무연탄재더미와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등으로 신문발간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킨다.

그러자 적들은 상락, 태선과 함께 점순이까지도 혐의자로 체포한다. 경찰서로 압송되어가던 도중에 동지들에 의하여 구출된다. 어머니의 체포, 연희장폭파사건, 상락의 또다시 체포로 정세가 급변하는 속에서도 그는 빠라공작을 맹렬히 벌려 강점자들의 허위선전을 폭로하고 인민군대의 재진격소식도 인민들에게 알려준다. 한편 적들이 패주하면서 애국자들을 학살하려는 음모에 대처하여 그들을 구출할 대담한 작전을 세워 상수리의 정전을 리용하

여 전투를 벌려 구출작전의 승리를 이룩하며 적들을 전멸케 한다.

평양이 해방된 후에도 점순은 공장복구사업에서 동료들과 진할줄 모르는 열정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전시의 가장 준엄하였던 환경에서 발휘한 우리 노동계급의 불타는 조국애, 영웅적희생정신과 단결력을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평도를 받으며 사랑하는 평양을 지켜싸우는 조선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3부작장편소설형식에 맞게 구성의 대를 세우고 예술적형상을 펼치고있다.

우선 매 부마다 적들의 강점지역에서 벌어진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계급적원썹들의 치떨리는 만행,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에서 돌아온 노동계급이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개하면서 이 시기 노동계급의 투쟁내용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전시후방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게 노동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인물관계를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맺어주어 극적견인력을 높이고있다.

특히 소설은 주인공 점순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성격을 비교적 훌륭히 창조하였다. 모든 일에서 자각성, 적극성이 높은 녀성, 혁명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인간, 뜨거운 동지적인간애가 차넘치는 처녀로 주인공을 형상하였으며 담차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동수, 일은 남보다 더 많이 하면서도 언제나 말을 적게 하고 어딘가 어리무리한 문일, 조금만 급해도 말을 더듬는 태선, 용감무쌍한 사나이 박시현 등의 개성적인 성격들로 이채로운 소설화폭을 펼치고있다. 소설은 박시현의 탈출세부, 최용범의 미군처단세부, 상락의 학습세부 등으로 우리 노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 불굴의 기상을 방불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시점을 달리하면서 설정된 주정토로들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집중되고있다.

한설야의 장편소설 《대동강》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웅적노동계급의 애국투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반영한 장편소설로서 우리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전쟁주제장편소설창작의 귀중한 경험을 마련한 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크다고 말할수 있다.

리 순 철

## 장편소설 《흰고래 모비 딕》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화사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장편소설 《흰고래 모비 딕》은 미국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허먼 멜빌(1819—1891)이 창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젊은 시절에 포경선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인종을 비롯한 여러 종족들속에서 생활해보기도 하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었고 이 과정에 바다 생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작가는 《타이피》(1846), 《오프》(1847), 《흰 자케트》(1850), 《모비 딕》(1851) 등과 같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중에서도 미국사회의 반동적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던 19세기 전반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장편소설 《흰고래 모비 딕》은 멜빌의 대표작으로 인정되고있다.

작품에서 장대한 몸집과 거대한 힘으로 온갖 횡포한짓을 저지르면서 인간의 생활을 구속하는 흰고래 모비 딕과 맞서 용감히 싸우는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장 에이합의 이야기는 이스마엘(방랑자라는 뜻)이라는 나의 시점에서 펼쳐지고있다.

원래 말하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에이합은 토인들속에서 생활한적도 있고 대학에 다닌적도 있는 것으로 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였으며 창을 특별히 잘 쓰는 용감한 사람이였다. 지난번 항해때 모비 딕한테 한다리를 빼앗긴 에이합은 자기자신과 그놈에게 목숨을 빼앗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하여 복수의 길에 나섰다. 사실 모비 딕은 사람들이 《하느님》, 《불사신》이라고까지 신비화하면서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지만 이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타승하겠다는 에이합의 결심과 의지는 드림없는것이였다.

어느날 《피쿼드》호는 《제르보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낸더키트의 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배는 모비 딕과 맞다들어 1등항해사 메이시를 잃고 심대한 손실을 입었다. 《제르보움》호에 타고있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을 가진 한 선원은 얼마나 혼이 났던지 모비 딕은 하느님이라고, 때문에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기승을 부린다.

《하느님을 더럽히는 죄의 무서움을 알지어다! 너의 뱃트는 틀림없이 부서져 가라앉을것이다! 흰고래의 꼬리지느러미가 두렵지도 않는가! 하느님에게 반항하는자의 치명적인 최후에 조심할지어다!》

그러나 에이합은 공포에 휩싸인 가브리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작살을 버리게 하며 금방 버린것을 피로 식힌다.

그후 《피쿼드》호가 태평양에 들어섰을 때 바람이 터져 돛이 찢기고 돛대가 부러진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선원들이 피뢰침에서 번뜩이는 푸른 섬광을 보고 덜덜 떨며 후에 좋은 날을 고르기로 하고 제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에이합은 그 제의를 단호히 물리치고 웨친다.

《흰고래를 쫓겠다는 너희들의 맹세는 나의 맹세와 마찬가지로 깨뜨릴수 없다. 그리고 이 늙은 에이합은 그 맹세에 몸도 목숨도 굳게 묶여있다. 자, 이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고동치고있는지 보여주마. 그리고 너희들의 두려움을 불어서 꺼주지.》

《피쿼드》호는 드디어 모비 딕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모비 딕은 선원들이 탄 뱃트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산산조각내고 사람들을 조롱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에이합을 비롯하여 물에 휘부러졌던 선원들은 다행히도 《피쿼드》호본체가 고래와 그들사이를 가로막은 덕에 구원될수 있었다.

이렇게 모비 딕과의 첫 싸움에서 실패한 후 다음날에도 추격은 계속되었으며 30여명 선원들은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선장을 따라 전진한다.

얼마후 그렇게도 찾고찾던 흰고래를 만나게 된 《피쿼드》호의 선원들은 세척의 뱃트에 갈라타고 맹렬한 공격을 시작한다. 전번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은 선장은 주동적으로 공격할것을 결심하고 작살과 창을 날린다. 그러나 횡포한 모비 딕은 모든것을 박살내고 유유히 사라진다. 이 싸움에서 여러명의 선원들이 타박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선장만은 크게 상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흘후에 흰고래와 또다시 맞다들었을 때 에이합은 온갖 저주를 담아 작살을 힘껏 던짐으로써 모비 딕의 한쪽눈을 맞힌다. 그런데도 여전히 흰고래가 《피쿼드》호를 향해 곧바로 돌진해오자

에이합은 또다시 작살을 던진다. 그러나 이때 작살에 땀 바줄이 풀리다가 얹히는 바람에 그것을 풀던 에이합은 고래와 함께 물속으로 휘감겨들어간다.

결과 모비 딕과의 최후결전에서 선원들모두가 배와 함께 바다속에 수장되고말았던것이다.

다만 세찬 혼들림에 선장의 뱃에서 내동댕이쳐졌던 나만이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이틀째 되는 날 다른 배에 의해 구원되어 이 거대한 바다의 서사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할수 있었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인간이 자기의 인격과 존엄, 명예를 지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속과 지배를 강요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까지도 내대여 완강히 싸워야 한다는 해답을 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에서는 자기의 존엄을 지켜 초인간적인 투지로 용감하게 싸우는 에이합의 적극적성격을 열렬하게 찬양하였다.

작품에서 모비 딕과 에이합의 대결은 인간을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힘과 그에 강하게 반발하는 자유로운 인간과의 대결과 투쟁이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의 존엄을 무시하는 당대 미국의 반동적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랑만주의적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드넓은 대양에서 모비 딕을 찾는 과정, 모비 딕과의 치열한 싸움...

이것은 비상한 환경이며 기적과 같은 이야기이다. 더우기 주인공의 성격은 매우 비상하다. 거만한 자존심, 비상한 복수심, 신비에 싸인 심리세계, 그와 결부된 외형도 역시 평범하지 않다.

그러나 작품에는 비판주의적색채가 짙게 나타나고있다.

그처럼 강렬하고 완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에이합도 결국에는 모비 딕과의 싸움에서 파멸되며 이와 같은 주인공의 전반형상에는 비판주의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비판주의는 사회적모순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처할 아무런 긍정적리상도 알지 못했던 작가의 세계관적약점으로부터 필연적인것이였다.

이처럼 장편소설 《흰고래 모비 딕》은 일련의 제한성을 내포하고있기는 하지만 지배와 구속을 반대하는 강렬한 개성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미국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서 의의있는 작품으로 인정되고있다.

김 은 하

##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6호 (루게 제788호)

###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6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6월 5일

ㄱ-36266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